

연구총서 2002-04

북한의 맑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 비교연구 :

체제형성에 미친 영향과 개혁·개방의 논리를 중심으로

서재진

통일연구원

요 약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이 보고서는 북한의 지배이념을 주체사상으로만 인식하여 왔던 기존의 북한 연구방식에서 탈피하여 맑스-레닌주의가 북한체제의 형성에 미친 영향을 정당하게 평가하고자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북한체제에서 주체사상이 행하고 있는 역할과 맑스-레닌주의가 행하고 있는 역할을 정확히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나아가서 최근 시도되고 있는 개혁·개방의 논리적 근원을 밝힘으로써 북한체제의 변화의 방향을 전망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 밝혀진 것은 맑스-레닌주의가 북한체제에서 국가(state)의 특성을 규정하는데 이념적 구실을 한 것인 반면, 주체사상은 정권과 사회와의 관계를 규정하는 레짐(regime)의 성격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체사상이 북한에서 행했던 기능은 북한체제 자체의 구성원리이기 보다는 경제와 정치에서 주민들을 동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자주노선, 폐쇄주의, 자력갱생, 군중노선, 수령우상화 등의 정책을 정당화하는 이론적 분석으로 작용했다.

최근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개혁·개방의 움직임은 주체사상의 논리들을 허물어뜨리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런데 주체사상은 쇠퇴하고 있지만 북한체제의 골격을 구성하는 맑스-레닌주의는 오히려 변화하지 않고 있다. 계급투쟁, 국가소유제도, 당의 조직원리 등은 변화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북한에서 진정한 의미의 개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맑스-레닌주의가 변화해야 한다는 점이다. 맑스-레닌주의가 사회주의 이론의 원형이며 골격이기 때문이다.

## I. 서론

흔히들 오늘날의 북한체제의 특성을 주체사상과 관련지어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 이것은 북한의 현재의 지배이데올로기에 오염된 생각이다. 주체사상이 당규약과 헌법에 유일지도이념으로 규정되어 있고 영생불멸할 것으로 주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체제의 특성 중에서 맑스-레닌주의가 미친 영향과 주체사상이 미친 영향을 정확히 구분하여 밝혀내는 작업이 필요하며, 이러한 작업이 이루어져야 북한체제의 지배 이데올로기를 제대로 이해하게 되며, 북한 지배이데올로기의 본질이 제대로 이해되어야 북한의 향후의 변화 방향에 대해서도 제대로 전망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맑스-레닌주의적 특징의 북한체제를 주체사상으로 분석하고자 했던 북한 지도부의 의도를 이해함으로써 주체사상의 기능을 새롭게 이해하게 될 것이다. 나아가 새로운 통치구호로 내세워 활용하고 있는 강성대국론에 대해서도 보다 근원적인 시각에서 이해할 수 있게 됨으로써 북한체제의 이념의 본질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각각의 지배이념이 북한체제 특성의 어떤 부문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 II. 통치의 도구로서의 지배 이데올로기의 개념

이 연구에서 사용하는 지배이데올로기의 개념은 도구로서의 기능을 강조하는 알투스의 이론에 근거하고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본다면 사회주의사회와 북한에서 지배이데올로기가 침투하는 방식이 지배적이고 일방적이며, 그 범위가 포괄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지배이데올로기가 자생력을 가진 독립적인 생명체

(entity)는 아니라고 본다.

북한의 맑스-레닌주의나 주체사상을 보는 관점에서조차 역시 도구로서의 지배이데올로기라는 측면에서 접근한다. 그래야 북한이 왜 맑스-레닌주의를 금과옥조로 사용하다가 이들 폐기처분하고 주체사상으로 대체하였으며, 주체사상을 유일사상으로 활용하다가 강성대국론과 같은 또 다른 통치구호를 제시하여 사용하고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다.

또한 주체사상이라는 지배이데올로기가 있는 한 북한은 개혁·개방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데올로기 결정론의 오류를 피할 수도 있는 것이다. 최근 북한에서 일고 있는 변화의 바람은 주체사상의 근본적인 가정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이데올로기 개념에 대한 기본 입장의 정립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 III. 맑스-레닌주의의 본질과 북한의 맑스-레닌주의

#### 1. 맑스-레닌주의의 본질

맑스-레닌주의와 사회주의는 동의어에 가깝다. 맑스-레닌주의가 어떻게 사회주의의 그 자체를 의미하는지는 사회주의권에서 해석된 맑스-레닌주의의 내용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잘 알려진 대로 맑스가 혁명가가 된 것은 자본주의에 대한 경제학적 연구의 결과가 아니다. 그가 혁명을 믿고 주장하게 된 것은 1843년-1844년 당시의 독일과 유럽의 정치적 상황과 맑스 개인의 경험 때문이었고, 사회주의 혁명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경제학 연구를 시작한 것이다. 즉, 맑스-레닌주의의 본질은 사회주의인 것이다.

맑스-엔겔스가 발전시킨 맑스주의의 이론적 체계는 당시 유럽의 세 가지 학문 조류를 반영하여 발전되었기 때문에 맑스주의의 학문체계

도 철학(변증법적 유물론 및 역사적 유물론), 정치경제학, 사회주의의 세부분으로 나누어서 이해할 수 있다. 엥겔스가 1878년에 집필한 맑스주의의 입문서 「반뒤링론」에서 맑스주의를 철학, 정치경제학, 사회주의의 세부분으로 나누어서 해설하였으며, 레닌도 맑스주의를 같은 방식으로 세부분으로 나누어서 해설하였으며, 이후 사회주의권에서 발간된 맑스-레닌주의 이데올로기 교재들도 모두 같은 방식의 체제를 갖추고 있다. 이들 세부분은 따로 분리되어서 각 영역별로 독자성을 가질 수도 있지만 세부분이 종합되면, “자본주의 사회가 변화 발전되어 계급갈등을 통하여 사회주의 사회로 전변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명제를 형성한다.

## 2. 스탈린주의

이론으로서 맑스-레닌주의는 맑스, 엥겔스, 그리고 레닌에 의하여 발전되었지만, 현실 사회주의체제인 소련 및 북한 등에 적용된 맑스-레닌주의는 스탈린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이다.

소련의 공식 이데올로기론자들이 스탈린의 사회주의 이론과 그가 만든 체제에 대하여 ‘스탈린주의’라고 명명한 적은 없다. 다만 소련에 대한 분석적 목적을 위하여 스탈린의 이론과 그에 의하여 만들어진 소련체제의 특징을 ‘스탈린주의’라고 불려지고 있다.

스탈린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부분이 당의 역할과 국가의 성격에 관한 부분이다. 일당독재의 개념과 프롤레타리아 독재에 대한 스탈린의 개념은 ‘국가사회주의’로 발전되었다. 스탈린의 사회주의관의 특징은 국가적인 것과 사회주의적인 것을 동일시하는 것이다. 스탈린의 사고는 주로 국가 메카니즘의 문제들에 맞추어진다. 혁명 후 국가는 당 지도 하에 놓였으며 생산수단의 국유화와 국가화의 법령과 함께 스탈린이 보기에 사회주의의 기본 특징이 된다.

국가사회주의는 전 사회생활의 국가화, 사회과정의 모든 영역에 대한 국가메카니즘의 절대적인 지배가 관철되는 체제이다. 그는 사회주의적인 사회체제를 국가 독점 및 국가적 전체주의와 동일시했던 것이다.

### 3. 북한의 맑스-레닌주의: 소련의 맑스-레닌주의와의 비교

북한의 맑스-레닌주의는 스탈린주의관 맑스-레닌주의이다. 중앙집권적 당이론, 프롤레타리아 독재이론, 군중노선 등의 이론들이 강조된 것이 특징이다. 스탈린 사후 소련의 맑스-레닌주의는 스탈린 격하운동에 따라 스탈린주의의 구각을 벗어던지는 방향으로 복귀했지만, 북한의 맑스-레닌주의는 스탈린주의를 그대로 온존시켰다는 차이가 있다.

북한의 맑스-레닌주의도 엥겔스의 맑스주의 해설, 레닌의 맑스주의 해설과 마찬가지로 철학, 정치경제학, 과학적 사회주의의 세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다. 큰 줄거리 면에서는 소련 등 사회주의권에서 사용된 맑스-레닌주의와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세부적인 면에서 북한의 맑스-레닌주의는 스탈린주의와 북한의 상황을 반영한 몇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으나 북한의 맑스-레닌주의는 맑스-레닌주의 당의 유일체제의 성격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 IV. 스탈린과 스탈린주의가 북한체제 형성에 미친 영향

### 1. 소련이 김일성정권의 형성 과정에서 미친 영향

소련이 북한 통치이데올로기의 형성에 미친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짧은 시절 김일성의 소련에서의 이념적 경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북한에서 집권하기 전 김일성의 이념적 경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1940년 말 항일연군이 괴멸된 이후 소련 하바로브스크의 소련

극동군 88여단으로 피신해 갔을 때 그곳에서 받는 5년간의 훈련과 맑스-레닌주의적 정치교육이다. 정치교육의 교재로는 「소련공산당사」, 스탈린이 쓴 「레닌주의의 기초」, 모택동의 「중국혁명전쟁의 전략문제」 등이다. 이때 김일성은 스탈린주의적인 레닌주의의 전략전술을 학습한 것으로 보이며, 해방 후 북한의 공산화 과정에서 김일성의 노선도 이 시기의 정치교육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김일성이 소련의 스탈린에 의하여 북한의 지도자로 옹립되었다는 것도 북한체제의 특성 형성에 중요한 요인이다. 당시 소련군정 정치사령관이었던 레베데프가 중앙일보를 통하여 밝힌 바에 의하면 1945년 9월 초순 스탈린이 김일성을 직접 면접한 이후 북한에 입북시켰으며, 또한 1946년 7월 스탈린이 김일성과 박헌영을 면접한 후 김일성을 북한의 최고지도자로 확정했다고 한 증언이 나왔다. 당시 총사령관 부관이었던 코바넵코의 증언과 당시 소련군정 정치사령관 레베데프의 증언은 일치하는 것이다.

## 2. 소련 군정이 북한체제 형성에 미친 영향

소련이 북한의 권력형성에 미친 영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련이 직접 김일성을 옹립하여 최고지도자로 만든 것 외에도 소련이 그런 식으로 최고지도자를 이식시킨 후유증이 오늘날의 북한권력의 특성을 형성하였다는 점이다. 즉, 소련의 스탈린이 북한내의 민족주의파, 국내파 등 주류 지도자들을 무시하고 소수파의 김일성을 옹립하였기 때문에 북한정권의 특성이 오늘날과 같이 ‘권력투쟁 지향적인 특성’으로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기존의 많은 정치세력들을 배제하고 소련에 의하여 옹립되어 다수파를 견제하면서 소수파 김일성을 옹립하였기 때문에 김일성은 오랫동안 국내파, 중국파, 소련파와 연립정권을 형성하였고 연립정권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권력투쟁 일변도의

정치를 했다.

### 3. 민주주의 및 인민민주주의론과 초기의 체제형성에 미친 영향

북한정치체제의 모형과 중요 통치이데올로기는 주로 소련 점령군 당국이 그 각본을 짜고 지령을 내린 것이었다고 한다. 그렇지만 소련의 북한 사회주의화 계획은 표면에는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 당시의 북한내의 정치지형이나 사회적 정세로 볼 때 공산주의 또는 사회주의 프로그램이 전혀 수용되기 어려웠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대다수 인구를 차지하였던 농민들도 토지소유에 대한 집념이 간절하였기 때문에 소련군정이 그들에게 사회주의화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토지를 국유화하는 조치를 취했다면 금방 폭동이 일어났을 것으로 평가된다.

그래서 소련은 동구에서와 마찬가지로 통일전선전술을 사용하여 일단 모든 정파를 통합하는 연립정권을 구성한 다음에 그 정권 내에서 점진적으로 해계모니를 장악하여 사회주의화하는 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사회주의화의 기도를 은폐하고 김일성이 사용한 이데올로기는 ‘민주주의’였다. 김일성의 이러한 일련의 태도를 통해서 볼 때 스탈린과 김일성이 남한의 공산화를 처음부터 계획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 V. 맑스-레닌주의가 북한체제 형성에 미친 영향

### 1. 6·25전쟁과 북한만의 사회주의화

남한에 대한 통일전선 전술의 실패와 북한만의 사회주의화 사회주의가 공식 이데올로기로서 표면적으로 부상하게 된 것은

6·25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 2월이었다. 미국이 한국전쟁에 참전함으로써 북한이 전쟁에서 실패할 조짐이 있는 마당에서 다시 남한을 사회주의화시킨다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된 이상 이제는 원래의 계획대로 북한만이라도 사회주의화를 본격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김일성이 대중연설에서 사회주의와 맑스-레닌주의를 처음으로 지배이념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1952년 2월이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맑스-레닌주의와 사회주의 개념을 쏟아내 놓기 시작하였다.

### 전쟁중 사상교양 사업의 이데올로기로서의 맑스-레닌주의

김일성이 맑스-레닌주의를 표면에 드러내게 된 계기는 주민들에 대한 사상교양을 위한 필요성과도 관련이 있다. 한국전쟁을 치르면서 김일성은 공산정권에 대한 북한주민의 지지가 결코 높지 않았음을 깨달았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전쟁시 북한에 진주한 한국군과 유엔군에 대해 북한의 도시 근로대중과 농민들이 마음으로부터 환영하고 협력했다는 것, 수백만의 주민들이 유엔군 후퇴시 이들 뒤를 따라 황급히 남하했다는 것, 국제연합군과 한국군이 북상했을 때 북한주민의 다수가 이들을 환영했을 뿐만 아니라 북한군이나 당원의 색출을 적극적으로 도운 것 등은 김일성으로 하여금 주민통제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했을 것이다.

### 농업협동화의 이데올로기로서 사회주의

농업협동화를 본격 추진하기 위한 이념적 명분으로도 사회주의의 개념이 필요하였다. 농업협동화를 해야 하는 명분으로서 김일성은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유를 주로 제시하였다. 김일성은 북한의 경제는 세 개의 경제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았는데 첫째로는 사회주의적 국영경제이며, 둘째로는 사회주의적 혹은 반사회주의적 성격을 띤 협동경제이며, 셋째로는 자본주의적 및 소상품적 경제인 개인 경제라

고 분류하였다. 생산성을 올리기 위해서는 공업과 농업에서 사회주의적 성분을 점차로 확대하며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농촌에서 사회주의적 농업협동화를 해야 하는 이유를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 2. 프롤레타리아 독재이론과 북한의 통치양식: 유일체제와 수령체제

### 프롤레타리아독재론에 대한 북한의 인식

김일성은 프롤레타리아독재의 개념에 대해서는 1956년경부터 본격적으로 거론하기 시작하였다. 북한이 1956년부터 프롤레타리아독재의 개념을 전면에 내세워 본격적으로 활용한 것은 1956년 8월 종파사건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8월종파사건을 계기로 김일성의 정적들이 전면에 드러나게 되자 이들을 숙청한 이후 일반주민들 중에서도 김일성과 그 지도부를 반대하는 세력들을 통제할 수 있는 이념적 도구로서 프롤레타리아독재의 개념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프롤레타리아독재의 개념이 김일성의 권력강화에 활용된 것은 1967년에 이르러 더욱 적극화된다. 1967년이라는 시점은 갑산파를 숙청하고 김일성 권력의 유일독재를 확립한 시점이라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김일성은 1967년의 연설에서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개념에 대한 인식을 체계화시켜 발표하였다.

### 프롤레타리아 독재론과 북한의 유일체제 및 수령제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 이행하는 과도기에 일시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개념지어졌던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독재자에게는 무소불위의 이념적 도구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김일성 정권에게는 매우 편리한 이론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서 이 개념은 북한 조선노동당의 독재, 나아가서 김일성 개인의 독재로 변용되었다. 또한 1967년

이후 추진된 유일사상체계의 이론으로도 활용되었다. 다시말하여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개념을 수령의 유일적 영도체계의 개념으로 개칭한 셈이다. 맑스-레닌주의를 폐기하고 대안으로 제시된 주체사상 이론서에서 조차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개념은 온존된 채 북한의 수령제를 설명하는 개념으로 활용되고 있다. 요약컨데 맑스-레닌주의의 프롤레타리아독재의 개념은 북한에서 수령의 유일적 영도개념을 정당화하는 이론으로 활용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 3. 레닌의 전위당 이론과 북한의 일당독재

북한의 일당 독재체제를 정당화한 것은 레닌의 프롤레타리아독재 뿐 아니라 레닌의 전위당 이론이 더욱 적극적으로 가세하였다. 북한을 비롯한 사회주의 체제에서 1당으로의 권력집중이 제도화하게 된 것은 당의 전위적 역할에 관한 레닌의 이론과 실천에서 비롯되었다.

북한의 맑스-레닌주의의 이론서는 레닌의 전위당의 개념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의 정치체제도 다른 사회주의와 마찬가지로 모든 정치적 권력이 관료화된 전위당인 노동당에 집중되어 사회의 전 구조가 수직적 통제 하에 들어있다. 모든 권력이 1인과 일당에 집중되었다.

### 4. 맑스-레닌주의의 당 조직원리와 북한의 전체주의

북한이 다른 사회와 구분되는 중요한 특징의 하나는 전체주의체제라는 점이다.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북한의 전체주의 구호는 북한체제의 핵심적 특징의 하나이다. 이러한 전체주의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통치방식을 특징짓는 것이지만 그 이

론적 근거는 맑스-레닌주의에서 나왔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맑스-레닌주의 당의 특성으로서 유일사상으로 통일단결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에서 가장 많이 강조되고 있는 정치구호가 ‘일심단결’임을 고려한다면 북한체제의 전체주의체제의 특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 5. 프롤레타리아 독재와 북한의 계급투쟁노선

김일성이 계급투쟁을 유력한 정치의 도구로 활용한 것은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개념과 유사하다.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개념과 계급투쟁의 개념은 같은 동전의 다른 면과 같은 격이다. 프롤레타리아독재와 마찬가지로 계급투쟁의 개념도 1956년의 8월종파사건과 1967년의 갑산과숙청 사건을 계기로 활발히 동원되었다. 8월종파사건 직후부터 ‘중앙당집중지도’를 실시하여 북한주민 전체를 상대로 출신성분과 사상경향을 조사하여 정권을 지지하는 자와 반대하는 자, 믿을 수 있는 자와 믿을 수 없는 자를 감별하고 반대하는 자들을 대상으로 ‘계급투쟁’을 실시하였다.

1967년 갑산과사건 직후에도 ‘주민재등록사업’을 실시하여 전주민을 정치적 성분에 따라 3계급 51계층으로 분류하고 계급투쟁을 실시하였다. 계급투쟁이론이 북한에서 어떻게 정치적 도구로 활용되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 6. 레닌의 폭력혁명론과 북한의 테러의 정치

사회주의 체제의 한 특징은 모든 현실적 가상의 적에 대하여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이름으로 조직적 폭력을 사용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문제 등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적 수단으로 테러를 사용한다. 레닌은 부르조아 국가는 사멸의 과정을 통하여 프롤레타리아 국가 (프롤레타리아 독재)로 대체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오직 폭력혁명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보았다.

북한도 레닌주의의 전통을 고스란히 물려받았다. 테러는 북한의 자주 사용되는 통치방식의 하나이다. 특히 90년대 들어서 자주 사용하고 있는 공개처형이 그 한 사례이다.

북한체제의 이러한 특징은 김일성과 김정일의 통치양식의 한 측면이지만 이것이 맑스-레닌주의의 이론적 배경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 VI. 주체사상이 북한체제 형성에 미친 영향

주체사상이 북한체제의 형성에 미친 영향은 크게 세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대외적 자주의 개념으로 사용되어 김일성의 정적들을 사대주의자 또는 교조주의자라고 딱지를 붙여 숙청하여 권력지형을 공고화하는 이념적 도구로 사용된 점, 둘째는 사회주의적 생산양식이 야기한 소극적 인성에 대하여 주인다운 태도를 갖도록 교양개조하는 이론으로 사용된 점, 셋째는 이들 두가지 개념을 북한체제의 각 부문 정책에 적용하여 지도이념으로 사용된 점이다.

### 1. 권력지형의 공고화

주체사상이 북한체제 형성에 미친 영향은 주체사상이 북한에서 행한 기능의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다. 북한에서 ‘주체’라는 개념이 처음 만들어지게 된 국내정치적 배경은 김일성 반대파의 김일성에 대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서이다. 1955년 당시까지 소련파, 연안파, 갑산파

등 많은 파벌들이 김일성에게 도전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김일성이 이들에 대응하기 위하여 ‘주체의 확립’이라는 명분을 만들어 낸 것이다. 김일성은 주체확립을 명분으로 소련과 중국을 등에 업고 있는 반대세력들에 반격을 가하였다.

## 2. 사회주의적 생산양식이 야기한 인성 개조

정치권력에서 안정적 지위를 완성한 북한으로서는 이제 경제의 건설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상황에서 당면하였던 과제가 북한에서 가장 풍부한 생산요소인 노동력을 활성화시켜 생산력을 증진시키는 것이었다.

당시 현안은 생산수단의 국유화와 명령경제체제의 정착 이후 나타난 노동생산성 하락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다. 명령계획경제 체제의 사회주의적 생산양식은 북한의 간부나 주민 할 것 없이 모두 공적 부문의 행위양식에서 무사안일, 개인주의, 이기주의, 본위주의, 그리고 책임감 없이 시키는 대로 수동적으로 하는 척만 하는 인성을 형성시켰기 때문이다. 1972년에 새롭게 개작된 북한의 주체사상은 이러한 주민들의 무사안일주의, 수동성, 소극성, 개인주의, 이기주의, 본위주의 등의 인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형성된 것이다.

북한은 ‘인민대중이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라는 주체사상의 구호를 인민대중에 대한 사상개조운동의 명분으로 활용하고 있다. 새로운 주체사상이 만들어진 이후 북한주민들은 ‘주인답지 못하다’는 비난에 직면하게 되었고 결국 인간개조운동의 대상으로 전락한 것이다. 인간을 주인으로 대접하겠다는 사상이 실제로는 인간개조의 대상으로 인간을 전락시킨 셈이다. 주체사상이 형식주의, 요령주의, 이기주의에 빠진 북한주민들의 인성을 개조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 3. 주민동원 정책에 대한 정당화

이 밖에도 주체사상은 북한의 유일 지도이념으로서 각 부문의 정책 방향에도 영향을 미쳤다. 70년대의 새로운 주체사상의 구호인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라는 구호는 경제관리방식, 문화건설이론, 영도예술, 영도체계 등의 영역에서 핵심이론으로 활용되고 있다.

주체사상이 북한에서 행한 정당화 역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의 수령체제를 정당화하는데 있다. 주체의 영도방법은 수령의 영도라고 정식화하였으며, “혁명과 건설에 대한 영도는 노동계급의 수령의 영도”라고 선언하였다. 수령의 영도에서 강조한 영도원칙은 수령의 유일적 영도의 실현이라고 보았다.

## VII. 북한의 맑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의 비교

### 1. 맑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과의 관계

북한은 맑스-레닌주의를 폐기하고 주체사상을 제시한 것은 시대의 발전이 세계관의 발전을 동반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맑스-레닌주의가 출현한 것은 그 당시의 시대상황에 맞는 사상이지만, 자본주의가 폐지되고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된 이제는 다른 사상이 필요하다는 요지이다.

또한 맑스-레닌주의가 관념론과 형이상학을 극복하고 유물변증법을 제시하였듯이 주체사상도 관념론과 형이상학과 대립된다고 주장함으로써 주체사상이 맑스-레닌주의를 창조적으로 발전시킨 사상임을 시사하고 있다.

## 2. 주체사상과 사회주의와의 관계

주체사상의 핵심적 내용 자체가 주체사상이 주장하는 사회주의제도의 핵심적 내용으로 해석되고 있다. 사회주의제도의 본질은 근로대중이 모든 것의 주인으로 되고 있으며, 사회의 모든 것이 근로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데 있다는 것이다.

또한 주체사상의 시각에서 본 사회주의의 의미는 “근로대중이 모든 것의 주인으로 되고 있으며 모든 것이 근로대중을 위하여 복무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명분은 인민대중이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의 주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 3. 맑스-레닌주의 없는 사회주의의 의미

“시대의 발전은 세계관의 발전을 동반한다”고 주장하고 사회주의가 수립된 이후의 새로운 사상으로서 주체사상의 정당성을 주장한 북한 지도부의 입장은 타당한 면이 있다. 사회주의 제도가 일단 북한에서 수립되었으니 사회주의 제도를 계속 발전시키기 위하여 인민들의 혁명적 열의를 발양시키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생각되는 주체사상만 있으면 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의 추상적 개념으로서의 ‘맑스-레닌주의’는 폐기되었지만, 맑스-레닌주의를 구성하는 세부적인 사상들, 즉, 변증법적 유물론, 역사적 유물론, 잉여가치설, 노동착취설, 계급투쟁설, 전위당의 개념, 프롤레타리아독재의 개념 등은 온전히 그대로 남아서 북한 체제의 일부로서 살아있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북한체제의 유일지배이념은 주체사상”이라는 언명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논증된 셈이다.

## Ⅷ. 북한의 주체사상 및 맑스-레닌주의와 개혁·개방의 논리

### 1. ‘강성대국론’의 경제우선 논리와 주체사상의 퇴조

주체사상이 행한 역할은 지도부의 의도에 크게 미치지 못하였던 것으로 평가된다. 형식주의, 요령주의 타파를 위하여 김일성과 김정일이 그렇게 지속적으로 외쳐대고 주체사상 사상교양을 강화하였지만 물질적 인센티브 없는 이데올로기의 효과는 매우 미약함을 알 수 있다. 결국에는 주체사상과는 전혀 상이한 논리로 구성된 새로운 사상이 제시되었다. 강성대국론이 그것이다.

논리적으로 볼 때 강성대국론과 주체사상은 모순적인 관계에 있다. 새로운 통치의 수단으로 활용하게 된 선군정치라는 개념은 인민대중이 주인이라는 주체사상의 기본 개념과는 상치되는 개념이다.

강성대국론이 주체사상을 대체하고 있다는 증거의 하나는 강성대국론이 만들어진 그 이듬해 1999년 이후 신년공동사설의 제목으로 올랐다는데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강성대국론이 아직 이론적 체계를 가진 이념체제로 발전되지는 않았다.

### 2. 주체사상 및 맑스-레닌주의의 논리에서 본 개혁·개방의 의미

**개혁의 내용:** 사회주의 사회보장제에서 자본주의적 임금노동제로

북한이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 7·1경제관리 개선 조치는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노동보수제에 있어서 기존의 사회주의 사회보장제도를 폐기하고 임금노동제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적 내용이다. 북한의 ‘노동보수제’ 개선은 지금까지 주체사상과 같은 이데올로기와 사상교육으로 해오던 방식을 지양하고 화폐 및 물질적 인센티브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일을 많이 한 사람은 많이 받는다는 ‘능력급제’를 도입하고 ‘실리보장’이라는 개념 하에 화폐유통을 중심 제도로 도입하여 노동생산성 향상을 꾀하고 있다.

### 개방의 내용

북한은 2002년 9월 22일 신의주를 홍콩과 같이 독자적 입법 사업 행정권을 가진 1국 2제의 자본주의적 행정특구로 개방했으며 개성공단과 금강산을 경제특구와 관광특구로 각각 개방했다. 이들 특구의 설치는 생산요소의 확보를 위한 것이다. 국내에서 만성적으로 부족한 생산요소를 외부에서 수혈받고 동시에 과학기술의 도입 및 학습, 경영기술의 도입을 위한 것이다. 북한은 최근 자본도입, 기술도입, 시장개혁에 혈안이 되어 있는데 특구를 통하여 이런 목적들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 주체사상 및 맑스-레닌주의의 논리에서 본 개혁·개방의 의미

최근의 개혁과 개방은 주체사상의 두가지 핵심 내용인 자주노선과 주인으로서의 자각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주체사상과 각각 상반되는 방향의 정책변화이다. 주체사상의 두가지 논리와 의미를 모두 폐기하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주체사상을 폐기할 정도로 통치논리를 변화시키고 있지만 현재까지 취해진 조치만으로는 개혁개방의 정도는 매우 미미하다.

북한이 보다 적극적인 의미의 개혁과 개방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맑스-레닌주의에 기초한 북한체제의 특성들이 변화되어야 한다.

## IX. 결 론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북한의 지배이념들 중에서 맑스-레닌주의가 행한 부분과 주체사상이 행한 부분은 따로 구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맑스-레닌주의가 북한 체제의 본질을 구성하고 있는데 반하여, 주체사상은 북한의 정책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주로 활용되었다. 즉, 맑스-레닌주의는 북한체제에서 국가(state)의 특성을 규정하는데 이념적 구실을 한 것이다. 그에 반하여 주체사상은 국가와 사회와의 관계를 규정하는 정권(regime)의 성격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북한의 체제형성에 더 중요한 기능을 한 지배이데올로기는 맑스-레닌주의인 셈이다. 북한에서 공식적으로는 맑스-레닌주의가 폐기되었다고 선언되었지만 실제 권력의 구조와 정치체제의 특징을 구성하는 것은 맑스-레닌주의의 이론들이다. 공식적인 언명에서 맑스-레닌주의가 폐기되었다고 해서 맑스-레닌주의가 실제로 폐기된 것은 아니다. 이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역사적 사실이 북한이 주체사상을 새로운 지배이념으로 형성한 이후 맑스-레닌주의적 요소 중에서 폐기된 부분이 아무 것도 없다는 점이다. 프롤레타리아 독재, 전위당, 계급투쟁, 폭력혁명 등의 맑스-레닌주의적 요소들은 모두 온존해 있다. 다만 맑스-레닌주의는 사회주의라는 이념의 표피 밑으로 잠수하게 된 것이다. 주체사상은 이러한 맑스-레닌주의를 은폐하기 위한 이데올로기적 구호로 활용된 측면이 강하다.

최근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개혁 개방의 움직임은 주체사상의 논리들을 허물어뜨리는 것임을 앞의 분석에서 발견하였다. 주체사상은 쇠퇴하고 있지만 북한체제의 골격을 구성하는 맑스-레닌주의는 변화하지 않고 있다. 계급투쟁, 국가소유제도, 당의 조직원리 등은 변화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북한에서 진정한 의미의 개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맑스-레닌주의가 변화해야 한다는 점이다. 맑스-레닌주의가 사회주의의 이론이며 골격이기 때문이다.

# 목 차

I. 서 론 .....	1
II. 통치의 도구로서의 지배이데올로기의 개념 .....	5
III. 맑스-레닌주의의 본질과 북한의 맑스-레닌주의 .....	8
1. 맑스-레닌주의의 본질: 사회주의 .....	8
가. 철학: 변증법적 유물론 및 역사적 유물론 .....	11
나. 정치경제학 .....	13
다. 과학적 사회주의 .....	14
2. 스탈린주의 .....	16
3. 북한의 맑스-레닌주의: 소련의 맑스-레닌주의와의 비교 .....	21
가. 변증법적 유물론 .....	23
나. 역사적 유물론 .....	25
다. 정치경제학 .....	30
라. 과학적 사회주의 .....	31
IV. 스탈린과 스탈린주의가 북한체제 형성에 미친 영향 .....	35
1. 소련이 김일성정권의 형성 과정에서 미친 영향 .....	35
2. 소련 군정이 북한체제 형성에 미친 영향 .....	40
3. 민주주의 및 인민민주주의론과 초기의 체제형성에 미친 영향 .....	44
V. 맑스-레닌주의가 북한체제 형성에 미친 영향 .....	59
1. 6·25전쟁과 북한만의 사회주의화 .....	59
가. 남한에 대한 통일전선 진술의 실패와 북한만의 사회주의화 .....	59
나. 전쟁중 사상교양 사업의 이데올로기로서의 맑스-레닌주의 .....	64
다. 농업협동화의 이데올로기로서 사회주의 .....	68

2. 프롤레타리아 독재이론과 북한의 통치양식: 유일체제와 수령제 .....	72
가. 프롤레타리아독재론에 대한 북한의 인식 .....	72
나. 프롤레타리아 독재론과 북한의 유일체제 및 수령제 .....	77
3. 레닌의 전위당 이론과 북한의 일당독재 .....	79
4. 맑스-레닌당의 조직원리와 북한의 전체주의 .....	84
5. 프롤레타리아 독재와 북한의 계급투쟁노선 .....	87
6. 레닌의 폭력혁명론과 북한의 테러의 정치 .....	89
<b>VI. 주체사상이 북한체제 형성에 미친 영향 .....</b>	<b>94</b>
1. 권력지형의 공고화 .....	94
2. 사회주의적 생산양식이 야기한 인성 개조 .....	105
3. 주민동원 정책에 대한 정당화 .....	113
<b>VII. 북한의 맑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의 비교 .....</b>	<b>117</b>
1. 맑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과의 관계 .....	117
2. 주체사상과 사회주의와의 관계 .....	121
3. 맑스-레닌주의 없는 사회주의의 의미 .....	122
<b>VIII. 북한의 주체사상 및 맑스-레닌주의와 개혁·개방의 논리 ...</b>	<b>124</b>
1. ‘강성대국론’의 경제우선 논리와 주체사상의 퇴조 .....	124
2. 주체사상 및 맑스-레닌주의의 논리에서 본 개혁·개방의 의미 .....	129
가. 개혁의 내용: 사회주의사회보장제에서 자본주의적 임노동제로 ..	129
나. 개방의 내용 .....	136
다. 경제 논리에서 본 개혁·개방의 의미 .....	138
라. 주체사상 및 맑스-레닌주의의 논리에서 본 개혁·개방의 의미 ..	139
<b>IX. 결 론 .....</b>	<b>142</b>
<b>참고문헌 .....</b>	<b>145</b>

## I. 서론

현재의 북한체제의 특성은 정권초기에 형성된 것이 많다. 정권초기 소련의 영향, 스탈린의 영향, 맑스-레닌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형성된 것이다. 그런데 흔히들 오늘날의 북한체제의 특성을 주체사상과 관련 지어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 이것은 북한의 현재의 지배이데올로기에 오염된 생각이다. 주체사상이 당규약과 헌법에 유일지도이념으로 규정되어 있고 영생불멸할 것으로 주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체제의 특성 중에서 맑스-레닌주의가 미친 영향과 주체사상이 미친 영향을 정확히 구분하여 밝혀내는 작업이 필요하며, 이러한 작업이 이루어져야 북한체제의 지배 이데올로기를 제대로 이해하게 되며, 북한 지배이데올로기의 본질이 제대로 이해되어야 북한의 향후의 변화 방향에 대해서도 제대로 전망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북한의 지배이데올로기와 관련하여 두가지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첫째, 북한은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이라고 주장하였지만 주체사상은 대중을 동원하는 역할과 대내외 정책을 정당화하는 이념으로 활용되는 것 외에는 사회주의 원리와는 별 관련이 없는 이론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북한 체제를 구성하는 이념은 사회주의이며, 사회주의야말로 북한의 본질적인 체제이념이다. 그런데 사회주의는 곧 맑스-레닌주의를 의미한다면, 북한에서 맑스-레닌주의 없는 사회주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논리적 모순이다. 따라서 맑스-레닌주의가 공식적으로 폐기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잔존하고 있을 것이라는 가설이 제기된다. 과연 북한의 맑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과의 관계는 무엇인가?

둘째 문제는 김일성 사망 이후 북한의 주체사상은 이제 기로에 서 있다는 점이다. 북한은 주체사상 대신 강성대국론을 정책홍보와 주민

동원을 위한 이념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주체사상은 북한의 공식 문헌에서 퇴조되고 있다. 북한은 부시행정부의 미국과 대결국면이 심화되고 있는 2002년에 들어서 7년만에 처음으로 신년공동사설에서 주체사상을 언급하였고, 1982년 김정일의 ‘주체사상에 대하여’ 논문 발표 20주년에 즈음하여 기념 중앙보고대회를 열기도 하고, 이 내용을 노동신문(3.31)에 게재하기도 하였지만 지배이념에서 퇴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북한지도부도 주체사상이 최고지도자에 대한 우상화에서 별 설득력이 없으며, 식량난의 시대에 주민 동원에서도 효과가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듯하다. 실제로 주체사상은 인본주의적 요소를 강하게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에 의하여 사상은 좋으나 현실과 맞지 않다고 인식되고 있으며, 사회복지제도가 무너지고 암시장이 성행하는 등의 변화된 경제상황 때문에 일반주민 들은 주체사상을 개인주의 사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확산되고 있다.<sup>1)</sup> 그래서 북한지도부는 주체사상이 김정일시대의 시대상황에 부적합한 지배이념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시대의 출범과 때를 같이하여 제기된 강성대국론은 “21세기의 새로운 설계도”로 호명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김정일시대의 새로운 지도이념으로 기획된 것으로 보인다.

위의 두가지 문제제기를 고려한다면 북한이 주체사상이 유일한 지배사상이며 영생불멸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미 현실과 모순된다. 주체사상의 기능약화와 기능의 제한성은 북한 지도부의 언명과는 달리 주체사상이 그렇게 유일한 지배이념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 지배 이데올로기의 실체는 무엇인가? 북한체제의 본질적인 체제의 구성원리와 지배이념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새로운 관

---

1) 이러한 내용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서재진, 『주체사상의 형성과 변화에 대한 새로운 분석』 (통일연구원, 2001) 참조.

심이 제기된다. 북한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사회주의의 이념적 토대인 맑스-레닌주의의 영향과 특징을 제대로 밝혀내야 한다. 그래야 주체사상의 기능과 본질을 이해할 수 있게 되며 새롭게 제기한 강성대국론의 의미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북한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연구는 주체사상에 한정되었고 북한체제의 실질적인 체제원리인 맑스-레닌주의를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였다. 북한지도부의 이데올로기적 의도에 끌려다닌 셈이다. 북한체제를 맑스-레닌주의의 측면에서 분석하는 것은 북한체제에 대한 비교사회적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북한의 주체사상 때문에 기존 연구는 북한체제의 특수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경향이 있었다. 그런데 과거와 현재의 북한체제의 특성은 맑스-레닌주의의 이론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본다면, 북한은 완전히 특수한 사회주의가 아니라 다른 사회주의와 공통성도 많을 것이라는 가정을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맑스-레닌주의의 어떤 측면이 북한체제의 어떤 특성의 형성에 영향을 미쳤는지, 또한 주체사상은 북한체제의 어떠한 특성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나누어서 구분해낼 필요가 있다.

북한의 지배이념을 주체사상으로만 인식하여 왔던 기존의 북한 연구방식에서 탈피하여 북한체제의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 맑스-레닌주의의 역할을 정당하게 부각함으로써 북한체제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한다. 또한 맑스-레닌주의적 특징의 북한체제를 주체사상으로 분석하고자 했던 북한 지도부의 의도를 이해함으로써 주체사상의 기능을 새롭게 이해하게 될 것이다. 나아가 새로운 통치구호로 내세워 활용하고 있는 강성대국론에 대해서도 보다 근원적인 시각에서 이해할 수 있게 됨으로써 북한체제의 이념의 본질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각각의 지배이념이 북한체제의 어떤 특성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 4 북한의 맑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 비교연구

그런데 유의할 것은 북한체제의 특성이 형성된 것은 지배이념 만의 영향은 아니다. 지도자의 개인적 특성, 주변환경, 권력구조, 사회적 동태 등 다른 변수들도 영향을 미쳤다. 여기서는 지배이념이 체제의 특성 형성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며, 다른 변수들과 어떻게 상호작용하였는지를 중심으로 분석할 것이다.

## II. 통치의 도구로서의 지배이데올로기의 개념

이데올로기의 개념은 맑스에 의하여 정립된 이후 후대 학자들에 의하여 많이 연구되어 졌다. 이데올로기란 지배계급이 자신들의 이익을 옹호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만든 허위의식으로서 피지배계급에게는 보편적인 진리로 가장되어 강요되고 있는 사상체계이다.<sup>2)</sup> 이데올로기가 단순히 지배자의 도구로서의 기능성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데올로기 그 자체가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의 투쟁의 장이라고 주장하는 관점도 있다. 폴란차스<sup>3)</sup>가 이데올로기를 계급투쟁의 관점에서 보았던 사람이다.

그런데 북한과 같은 체제에서 이데올로기는 계급투쟁의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지배계급의 도구로 보는 알투스의 시각이 더 잘 적용될 것이다. 알투스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주요 관심은 “어떻게 생산관계의 재생산이 가능한가”에 있다.<sup>4)</sup> 알투스는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본다: (i) 기술적 분업체계 속의 각 직책이 요구되는 노동자의 기술과 지식이 재생산되어야 하고, (ii) 그 기술과 지식뿐 아니라 노동자는 기존 질서에 순응하도록 재생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두가지 조건이 바로 국가의 이데올로기 기구(Ideological State Apparatuses)에 의해서 충족되며 이데올로기

2) 이데올로기론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또 하나의 북한사회: 사회구조와 사회의식의 이중성 연구」(나남출판, 1995), pp. 282-385를 참조할 것.

3) N. Poulantzas, *Political Power and Social Classes*, T. O'Hagan (trans.), (New Left Books and Sheed & Ward, 1973).

4) Louis Althusser, *Lenin and Philosophy and Other Essays*, (trans.), by Ben Brewster, (New York: Monthly Review Press, 1971), p. 128.

기구 중에서도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았다.

알투스의 이러한 분석은 자본주의 체제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분석에 한정된 언명인데, 이러한 논지를 사회주의체제의 경우, 특히 북한의 경우에 적용해 본다면, 이데올로기가 행하는 기능이 훨씬 확대된다고 볼 수 있다.

북한에서 이데올로기는 생산관계를 재생산하는 것 이상의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정권초기에 맑스-레닌주의가 행한 기능, 이후에 새롭게 등장한 주체사상이 행한 기능은 체제형성과 주민생활의 전 부문에 걸쳐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데올로기를 투쟁의 대상이 아니라 지배계급의 통치의 수단으로 보는 관점이 북한의 경우에 잘 적용된다는 것은 피지배계급이 이데올로기적인 토론이나 저항을 할 수 있는 정치적 조건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회주의사회와 북한에서 지배이데올로기가 침투하는 방식이 하향적이고 일방적이며, 그 범위가 포괄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지배이데올로기가 자생력을 가진 독립적인 생명체(entity)는 아니다. 이데올로기의 바로 이러한 특징 때문에 지배이데올로기를 지배계급의 통치의 도구(instrument of domination)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다.

북한의 맑스-레닌주의나 주체사상을 보는 관점에서조차 역시 도구로서의 지배이데올로기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북한이 왜 맑스-레닌주의를 금과옥조로 사용하다가 이들 폐기처분하고 주체사상으로 대체하였으며, 주체사상을 유일사상으로 활용하다가 강성대국론과 같은 또 다른 통치구호를 제시하여 사용하고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다.

또한 주체사상이라는 지배이데올로기가 있는 한 북한은 개혁·개방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데올로기 결정론의 오류를 피할 수도 있는 것이다. 최근 북한에서 일고 있는 변화의 바람은 주체사상의 근본적인 가정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이데올로기 개념에 대한 기본 입장의 정립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 Ⅲ. 맑스-레닌주의의 본질과 북한의 맑스-레닌주의

맑스-레닌주의와 사회주의는 동의어에 가깝다. 맑스-레닌주의가 어떻게 사회주의 그 자체를 의미하는지는 사회주의권에서 해석된 맑스-레닌주의의 내용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그런데 북한은 사회주의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맑스-레닌주의를 폐기하고 주체사상으로 대체하였다. 맑스-레닌주의 없는 사회주의를 하고 있는 셈이다. 맑스-레닌주의와 사회주의와의 원초적 동질성을 감안한다면 맑스-레닌주의 없는 사회주의의 본질에 의문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의 사회주의의 이론적 토대는 무엇이며, 사회주의와 주체사상과의 관계는 어떠한지, 맑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과의 관계는 어떠한지가 중요한 이론적 관심사이다.

#### 1. 맑스-레닌주의의 본질: 사회주의

잘 알려진 대로 맑스가 혁명가가 된 것은 자본주의에 대한 경제학적 연구의 결과가 아니다. 그가 혁명을 믿고 주장하게 된 것은 1843년-1844년 당시의 독일과 유럽의 정치적 상황과 맑스 개인의 경험 때문이었고, 사회주의 혁명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경제학 연구를 시작한 것이다.

맑스주의의 형성에 있어서 사회주의적 사상이 선행했다는 것은 맑스의 저작이 발표된 순서를 보아도 알 수 있다. 맑스의 사회주의적 실천의 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 「공산당 선언」을 1848년에 발표하고 나서 이후에 자본주의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분석과 비판을 행한 「자본론」을 집필하였던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즉, 맑스주의는 사회주의 사상이다. 그러나 사회주의가 몇몇 천재적 두뇌에 의하여 우연

히 발견된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형성된 두 계급인 프롤레타리아트와 부르조아지의 투쟁의 필연적 결과라고 엥겔스는 주장하였다.<sup>5)</sup> 다시 말해서 맑스는 당시의 시대상황에서 사회주의적 지향을 가졌고, 이러한 이념적 지향 하에서 자본주의를 분석함으로써 사회주의혁명에서의 이론적 토대를 구축한 것이다.

맑스의 사상과 학설의 체계인 맑스주의는 19세기의 3가지 주요 학문 조류였던 독일의 고전철학, 영국의 고전경제학 및 프랑스의 사회주의 사상을 그 원천 또는 구성 부분으로 하고 있다.<sup>6)</sup> 즉, 마르크스주의 체계는 헤겔 및 포이에르바흐 등 19세기 고전철학에서 각각 변증법과 유물론을, 또 영국의 고전경제학 중에서도 특히 리카르도의 경제학으로부터 노동가치설을, 그리고 프랑스의 R. 오웬, F. 프리에, 생시몽 등의 사회주의자들로부터 사회주의사상을 비판적으로 계승, 발전, 통일시킴으로써 형성되었다.

맑스-레닌주의 사상은 칼 맑스(1818-1883)에 의하여 창시되고 그의 동료인 프리드리히 엥겔스(1820-1895)에 의하여 구체화되고 발전되었으며 레닌에 의하여 재해석되었고 현실 정치에 적용되었다. 레닌에 의하여 러시아혁명이 주도되었고, 소련이라는 현실 사회주의체제가 생성된 이후 중국 등의 다른 사회주의 국가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맑스주의는 더욱 중요해졌다. 또한 이론적으로도 맑스와 엥겔스 이후 새로운 역사적 조건에 알맞게 맑스주의를 발전시키고 실제에 적용한 사람이 레닌이다.

레닌은 자기의 저서 『유물론과 경험비판론』에서 엥겔스 서거 이후 시기에 과학 특히 자연과학이 달성한 성과들을 개괄하고 맑스주의를 재해석하였다. 이 저서에서 레닌은 맑스주의 철학의 근본문제들, 자연

5) F. 엥겔스, 한철 옮김, 『반뒤링론』 (서울: 이성과 현실, 1989), p. 52.

6) V. I. 레닌, “맑스주의의 세가지 원천과 세가지 구성부분,” 『칼 맑스』 (서울: 도서출판 새날, 1990), p. 72.

과 사회의 유물론적 법칙, 프롤레타리아 혁명에 관한 이론들을 발전시켰다. 그는 자본주의에서 공산주의 사회로 넘어가는 시기는 반드시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시기로 되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것은 착취계급들이 혁명에서 패배한 이후에도 계속 반항하면서 낡은 사회를 회복하려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건설의 가장 중요한 여건으로 되지 않을 수 없으며 따라서 맑스주의 사상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의 하나를 차지한다.

레닌은 프롤레타리아 독재에 관한 맑스의 사상을 발전시켜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국가 형태로서의 소비에트 정권을 발전시켰으며 노동계급과 농민과의 동맹을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최고 원칙이라고 지적하였다. 동시에 그는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민주주의의 최고 형태이며 소수 착취자의 이익을 표현하는 부르조아 민주주의와는 반대로 다수(피착취자)의 이익을 표현하는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 형태라고 주장했다.

맑스-엔겔스가 발전시킨 맑스주의의 이론적 체계는 당시 유럽의 세 가지 학문 조류를 반영하여 발전되었기 때문에 맑스주의의 학문체계도 철학(변증법적 유물론 및 역사적 유물론), 정치경제학, 사회주의의 세부분으로 나누어서 이해할 수 있다. 엔겔스가 1878년에 집필한 맑스주의의 입문서 「반뒤링론」<sup>7)</sup>에서 맑스주의를 철학, 정치경제학, 사회주의의 세부분으로 나누어서 해설하였으며, 레닌도 맑스주의를<sup>8)</sup> 같은 방식으로 세부분으로 나누어서 해설하였으며, 이후 사회주의권에서 발간된 맑스-레닌주의 이데올로기 교재들도 모두 같은 방식의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들 세부분은 따로 분리되어서 각 영역별로 독자성을 가질 수도 있지만 세부분이 종합되면, “자본주의 사회가 변화 발

7) F. 엔겔스, 한철 옮김, 「반뒤링론」(서울: 이성과학실, 1989).

8) V. I. 레닌, 「칼 맑스」.

전되어 계급갈등을 통하여 사회주의 사회로 전변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명제를 형성한다. 맑스-레닌주의의 세부분을 차례대로 살펴보자.

### 가. 철학: 변증법적 유물론 및 역사적 유물론

철학부문은 이전의 관념론을 비판하여 유물론의 이론을 정립하고, 형이상학을 비판하여 변증법의 방법을 개발한 부문이다. 자연과학에서의 변증법적 유물론을 사회분야에 적용하여 발전시킨 것이 역사적 유물론이다.

맑스와 엥겔스는 이전 철학에서 신비주의와 숙명론을 주장하는 관념론과 형이상학을 반대하기 위하여 포이에르바하의 유물론과 헤겔의 변증법을 비판적으로 개작하고 그의 합리적 알맹이를 섭취하여 새로이 변증법적 유물론을 창시하였다.

그들은 이러한 유물변증법의 제원리를 사회현상에 적용하여 역사적 유물론을 도출함으로써 사회발전이 무엇에 의존하고 있는가를 해명하고자 하였다. 그들은 당시까지 지배적이었던 독일의 철학과 사상은 모두 관념론으로서, 사회현상을 인과관계로 설명하지 못하고 지배계급의 이익을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하였다.<sup>9)</sup> 역사적 유물론이야말로 경제적 토대와 이를 반영한 상부구조 사이의 상호작용을 중심개념으로 설정하여 사회구조와 사회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객관적 과학이라고 주장하였다.

유물론과 변증법을 사회역사에 적용한 역사적 유물론은 인간 사회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생산의 개념에서 출발하였다. 그들은 사람들

---

9) K. Marx and Frederick Engels, *The German Ideology*, ed. by C. J. Arthur (New York: International Publisher, 1970).

이 정치에 종사하고 과학이나 예술에 종사하기 전에 우선 먹고 입어야 하며 따라서 물질적 재부의 생산이 모든 사회생활의 기초로 된다는 사실에서 이론적 착상을 하였다. 생산의 개념에서 출발하여, 생산력과 생산관계를 도출하고, 생산관계의 개념에서 계급투쟁의 개념을 도출해 내었다. 맑스와 엥겔스는 계급투쟁의 개념에 의거하여 인간의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라고 보았으며 계급투쟁이 역사발전의 동인이라고 보았다.<sup>10)</sup>

그들은 사회의 발전이 우연하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법칙에 따라 한 사회 제도로부터 보다 높은 다른 사회제도로 넘어간다고 주장하였으며, 역사를 창조하는 결정적인 힘은 왕이나 장군이나 정치가가 아니라 바로 프롤레타리아트라고 보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레닌은 역사적 유물론을 「과학적 사유의 최대의 전과」라고 불렀다. 역사적 유물론의 창시를 통하여 “역사나 정치에 대한 견해에서 종래 지배해오던 혼돈과 자의는 종식되고, 어떻게 한 사회생활 제도로부터 생산력의 장성의 결과로서 보다 더 높은 다른 구성체가 발전하는가를 보여주는 놀랄만치 완벽하고도 정연한 과학적 이론으로 교체되었다”고 주장하였다.<sup>11)</sup>

그들은 이 세상에 변화하지 않는 사물이란 하나도 없고 아무리 견고해 보이는 사물이라 할지라도 실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으며 따라서 자본주의도 반드시 망할 날이 온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사물이 운동하고 발전하는 것은 외부의 힘 때문이 아니라 내부 모순과 대립물의 투쟁 때문이며 따라서 사회의 경우에도 계급들의 투쟁에 의해서만

10) 아이히호른 외 지음, *Marxistisch-lenistische Philosophie*, 이상훈 외 옮김, 「역사적 유물론」(서울: 동녘, 1990), p. 205; 빅토르 아파나세프, 김성환 옮김, 「역사적 유물론」(서울: 백두, 1988), p. 75.

11) V. I. 레닌, “맑스주의 세가지 원천과 세가지 구성부분”, 「칼 맑스」, p. 12.

발전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하였다. 자연의 법칙에서 발견한 유물론을 사회에 적용하여, 역사적 연관 속에서 본 자본주의적 생산방식의 불가피성, 일정한 역사적 시기에 있어서의 그것의 필연성, 따라서 그 멸망의 불가피성까지도 설명하고자 하였다.

#### 나. 정치경제학

정치경제학 부문은 역사적 유물론의 이론과 방법론에 입각하여 자본주의의 정치경제를 분석한 것이다. 맑스와 엥겔스는 영국의 고전정치경제학에서 연구된 노동가치설에서 이룩된 긍정적인 성과를 참작하여 잉여가치학설을 내놓았다. 그들은 자본가가 노동자에게 지불하는 노임이 노동의 가치가 아니라 노동력의 가치라는 것, 잉여가치는 노동자의 노동에 의하여 그의 노동력이 가치 이상으로 창조되어 자본가들에게 무상으로 점유되는 가치 부분이라는 것을 밝힘으로써 처음으로 자본주의사회의 착취의 개념을 제시했으며 노동자와 자본가가 화목하게 지내야 한다는 기존의 주장을 비판하였다. 잉여가치설은 종래는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이 자본주의적 생산방식 그 자체보다도 주로 그 해독적인 결과에 대한 감정적 비판에 둘러졌기 때문에 아직 해명되지 않은 채로 있는 이 생산방식의 내적 성격을 ‘폭로’하였던 것이다.

맑스와 엥겔스는 자본주의가 발전함에 따라 부르조아 사회의 한편에서는 거대한 재부가 축적되고 사치와 낭비와 방탕이 증대되는 반면에 사회의 다른 편에서는 빈궁과 실업과 기아가 증대되어 노자간의 투쟁이 격화된다고 보았다. 이처럼 맑스와 엥겔스는 자본주의적 생산방식의 기본 모순을 천명하였는바 그것은 생산의 사회적 성격과 점유의 자본주의적 형태간의 모순이라는 것이다.

레닌은 잉여가치설을 맑스의 경제학이론의 초석이라고 불렀다. 레

닌은 맑스의 사회과학적 발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는 자본과 노동과의 관계를 종교적으로 해명한 것, 다시말하면 자본주의적 생산양식 속에서 자본가가 노동자를 어떻게 착취하는가를 폭로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레닌은 유물론적 역사관과 잉여가치론에 의하여 자본주의적 생산의 비밀을 밝힌 것이 맑스의 가장 큰 공로이며, 이 발견에 의하여 맑스주의는 과학으로 되었으며 그러한 분석에 근거한 사회주의도 공상적 사회주의를 넘어서 과학적 사회주의로 되었다고 주장하였다.<sup>12)</sup>

#### 다. 과학적 사회주의

맑스-레닌주의에 있어서 세 번째 구성부분은 과학적 사회주의의 학설에 관한 것이다. 공상적 사회주의자들이 자본주의 사회를 비판하여 단죄하고 저주하면서 그것의 폐지를 몽상하며 보다 나은 제도를 공상하고 가진 자들을 향해 착취의 부도덕성을 설파하려고 하였지만 그것은 공상에 그치고 말았다고 맑스는 비판하고, 과학적 현실분석과 실천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자신의 이론을 과학적 사회주의라고 주장하였다. 맑스는 자본주의가 사회주의 사회로 불가피하게 전화한다는 결론을 오직 근대사회의 경제적 운동법칙에서 끌어내고 있다.<sup>13)</sup> 맑스주의는 자본주의에서 임금노동제의 본질, 자본주의의 발전의 법칙을 설명하고, 새로운 사회의 창조자가 될 능력을 갖춘 사회세력으로서 프롤레타리아트를 발견하였는데 이것이 계급투쟁의 학설이다.<sup>14)</sup>

맑스는 전 생애에 걸쳐서 이론적 연구와 함께 직접 사회주의운동에 투신하기도 하기도 하고 프롤레타리아 계급투쟁의 전술에 관한 문제

12) F. 엥겔스, 한 철 옮김, 『뒤링론』, p. 53.

13) V. I. 레닌, 『칼 맑스』, p. 55.

14) 위의 책, p. 78.

에 관심을 집중하였다.

사회주의 혁명을 위한 투쟁 전술은 레닌에 의하여 더욱 심화되었다. 전위당에 관한 레닌의 이론은 매우 유명하다. 레닌은 노동운동의 첫단계는 자연발생적 노동운동이라고 보았다. 역사상 어느 나라에서나 노동운동은 처음에는 자연발생적인 운동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자연발생적 노동운동이란 노동계급이 자기의 혁명적 당의 지도를 받지 못하여 노동운동이 사회주의 사상과 결부되지 못한 운동을 말한다. 자연발생적 노동운동 단계에 있어서 노동계급은 자기의 최종 목적, 즉, 자본주의의 전복과 사회주의-공산주의 사회건설의 필연성과 방도를 인식하지 못하고 노동계급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단순한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투쟁하였다.

레닌에 의하면 노동운동의 둘째 단계는 의식적 노동운동이다. 이 단계에서 노동계급은 당의 지도하에 경제투쟁과 정치투쟁을 옹기 결함하여 목적의식적으로 투쟁한다. 레닌은 선진적 이론에 의하여 지도되는 당만이 전위투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당이 전위대, 조직자, 지도자, 이론가여야 하며 그러한 역할 없이는 노동자들이 부르조아 사회의 지평을 넘을 수 없다고 보았다. 오직 당만이 사회에 대한 과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은 사회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독점적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다.<sup>15)</sup> 당은 공중보다는 공중의 이익, 요구, 욕구에 대하여 더 잘 알며 인민대중은 너무 무식하기 때문에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며 당만이 과학적 지식에 기초하여 잘 헤아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레닌은 당 주도의 사회주의를 과학적 사회주의라고 부르고, 유포피아 또는 공상적 사회주의 및 자생적인 노동자운동과 구별하였다.

---

15) 위의 책, pp. 387, 391.

## 2. 스탈린주의

이론으로서 맑스-레닌주의는 맑스, 엥겔스, 그리고 레닌에 의하여 발전되었지만, 현실 사회주의체제인 소련 및 북한 등에 적용된 맑스-레닌주의는 스탈린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이다. 따라서 스탈린이 맑스-레닌주의를 어떻게 해석하고 변형하였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소련의 공식 이데올로기론자들이 스탈린의 사회주의 이론과 그가 만든 체제에 대하여 ‘스탈린주의’라고 명명한 적은 없다. 다만 소련에 대한 분석적 목적을 위하여 스탈린의 이론과 그에 의하여 만들어진 소련체제의 특징을 ‘스탈린주의’라고 불려지고 있다.

맑스-레닌주의 이론의 핵심의 하나는 역사적 유물론으로서 역사적 발전단계를 생산력과 생산관계를 결정인으로 하여 객관적 과학적 법칙으로 설명한다는 데 있다. 그런데 맑스-레닌주의는 실제로 스탈린시대 소련에서 나타났던 경제적 정치적 체제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모든 국가조직들이 어쩔 수 없이 객관적으로 주어진 현실의 산물인가, 아니면 당시 스탈린의 독특한 마르크스주의관과 사회주의관에서 비롯된 것인가? 러시아 현실의 구조변화에 스탈린이라는 인물이 주역을 맡았다는 주장에 이론이 없다.<sup>16)</sup>

스탈린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부분이 당의 역할과 국가의 성격에 관한 부분이다. 이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맑스와 엥겔스는 프롤레타리아계급이 혁명적 계급이라고 주장한 것에 그쳤는데 반하여, 레닌은 전위당의 개념을 발전시켜 소수의 엘리트들이 다수 프롤레타리아 계급을 의식화 조직화하는 역할을 해야 프롤레타리아혁명을 성

---

16) P. 브라니츠키, 이성백, 정승훈 옮김, 『마르크스주의의 역사』(II) (중원문화사, 1989), p. 299.

공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런데 스탈린은 레닌보다 당의 지도적 역할을 더 강화시켜 나갔다. 그래서 소비에트나 대중조직들은 어떤 중요한 정치적 문제나 조직적 문제도 당의 지도지침을 따라야지 스스로 결정해서는 안된다고 못박았다. 또한 그에 따르면 당내에서의 자유로운 토론과 다양한 의견개진도 금지사항이다. 오로지 당 지도부 가운데 다수파가 견지하는 입장과 견해가 절대적인 당의 노선으로 채택되어야만 하며 프롤레타리아 대중은 그것을 배우고 실천하는 일에만 매달려야 한다는 것이다.

스탈린 시대에는 소비에트마저도 차츰 대중조직으로서의 성격을 잃어감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이 대중조직을 대신하는 결과를 낳았다. 대중에 대한 당의 지도가 당의 지배로 바뀌었던 것이다. 차차 당은 가장 강력한 국가기구가 되었으며, 대중의 창의성과 자발성에 바탕한 사회주의의 건설은 유보되었다.<sup>17)</sup>

나아가 스탈린은 공산당을 유일한 정치단체로 인정하는 일당독재론을 정립하였다. 스탈린이 공산당 외의 당은 존재 근거가 없다는 주장을 다음과 같이 정식화하였다.

소련에는 자본가, 지주, 부농 등과 같은 계급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소련에서는 오직 두 개의 계급, 이해관계가 상호 적대적이기는커녕, 우호적일 뿐인 노동자와 농민이 존재할 뿐이다. 그러므로 소련에는 당이 몇 개씩이나 되고 그들을 위한 자유가 존재해야 할 하등의 근거가 없다. 소련에서는 오직 하나의 당, 공산당만이 존재할 근거를 갖는다.<sup>18)</sup>

프롤레타리아 독재에 관한 스탈린의 재해석은 스탈린과 맑스-레닌주의를 구별해주는 핵심 부분이다. 맑스-레닌주의에서 프롤레타리아

17) 윤해수, 『러시아체제변동론』(서울: 한울아카데미, 1995), p. 110.

18) 스탈린, 『스탈린선집 II』(서울: 전진, 1988), p. 111.

독재의 개념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데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 이행하는 과정에 국가의 성격과 역할을 규정한 이론이기 때문이며, 사실상 사회주의로의 이행 과도기에 ‘헌법’에 해당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스탈린은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개념을 폭력혁명의 개념으로 변형하였다. 레닌이 다양한 역사적 시기들에 따라 그에 맞는 다양한 프롤레타리아 독재 형태가 필요하다고 보았다면 스탈린의 견해는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법에 제한 받지 않는, 그리고 폭력에 의거한, 부르조아지에 대한 프롤레타리아의 지배이다”라고 정식화함으로써 그 정점에 달한다.

또한 스탈린의 주장은 맑스주의의 국가소멸론과 상반되는 계급투쟁과 국가의 계속성의 강화로 특징지어진다.

많은 동지들이 계급의 지양의 테제, 무계급사회 창조의 테제, 그리고 국가소멸의 테제를 계급투쟁을 무마시키고 국가권력을 약화시키는 반혁명적인 이론의 옹호로 여겼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 당과 같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당으로부터 추방되어야 할 변절자나 이중인격자들입니다. 계급의 지양은 계급투쟁을 완화시킴으로써가 아니라 그 투쟁을 강화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됩니다. 국가소멸은 국가권력을 약화시킴으로써가 아니라 그것의 최대한의 강화를 통해서 도래할 것입니다.<sup>19)</sup>

맑스와 엥겔스를 거쳐 레닌에게까지 이어진 국가소멸론을 스탈린은 국가강화론으로 대체시켰다. 스탈린이 국가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명분은 ‘자본주의 포위’라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국가가 공산주의 도래 시에도 존재할 것인가? 만일 자본주

---

19) 스탈린, “제1차 5개년 계획의 성과”(1933년 1월 7일 개최된 당 총회에서 행한 보고서), 『스탈린 선집 II』.

의의 포위가 사라지지 않고 외국으로부터의 침략위험이 제거되지 않으면 국가는 계속 존재할 것이다. 그와 반대로 만약 자본주의의 포위가 없어지고 우리가 사회주의 국가들로 둘러싸인다면 국가는 저절로 소멸할 것이다. --- 소비에트 맑스주의자들이 혁명을 성공으로 이끈 나라가 자본주의에 포위되어 붕괴되지 않도록 하자면 국가권력을 약화시킬 것이 아니라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국가 및 국가기관, 그리고 정보기관과 군대를 강화해야 한다.<sup>20)</sup>

콜라코프스키는 계급투쟁의 지속과 국가권력의 강화에 관한 스탈린의 이러한 이론은 경찰 테러 체제를 정당화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하였다.<sup>21)</sup>

### 국가사회주의

일당독재의 개념과 프롤레타리아 독재에 대한 스탈린의 개념은 ‘국가사회주의’로 발전되었다. 스탈린의 사회주의관의 특징은 국가적인 것과 사회주의적인 것을 동일시하는 것이다. 스탈린의 사고는 주로 국가 메카니즘의 문제들에 맞추어진다. 혁명 후 국가는 당 지도 하에 놓였으며 생산수단의 국유화와 국가화의 법령과 함께 스탈린이 보기에는 사회주의의 기본 특징이 된다.<sup>22)</sup>

초기의 사회주의자들이 사회주의화 과정을 통해서 지향하고자 했던 것은 경제적 소외의 지양과 그 다음으로 사적 자본에 의해서든 국가 관료주의에 의해서든 모든 다른 형태의 소외, 종속, 억압과 착취를 지양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국가주의적 단계의 점진적인 극복의 길을

20) 윤해수, 『러시아체제변동론』, p. 129에서 재인용.

21) Leszek Kolakowski, *Main Currents of Marxism, 3 The Breakdow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78), p. 101.

22) P. 브라니츠키, 『마르크스주의의 역사』(II), p. 305.

통해서, 그리고 노동자들의 더 광범위한 자치의 실현을 통해서 도달 되는 것이었다. 그래서 사회주의적 혁명과 국가소멸론이 제기된 것이었다.

그런데 스탈린은 이 과정을 반대방향, 즉, 국가기구와 국가적, 당적, 경찰적 관료주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돌렸다. 이렇게 강화된 국가주의적 독점과 여타의 사회적 개악과 함께 그는 역사 속에서 스탈린주의로 알려진, 그리고 끝내 개인숭배로까지 개악된, 사회주의체제를 만들어냈다. 스탈린주의는 당과 국가기구가 국가주의적 수뇌부의 충실한 도구로 전락하고, 이 최고기관이 정치적 영역뿐 아니라 모든 사회생활의 영역에서 심판관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사회주의는 전 사회생활의 국가화, 사회과정의 모든 영역에 대한 국가메카니즘의 절대적인 지배가 관철되는 체제이다. 스탈린이 세웠던 사회주의체제는 사회주의적인 사회체제를 국가 독점 및 국가적 전체주의와 동일시했다는 것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sup>23)</sup>

스탈린주의는 모든 사회계층을 국가주의적 관료제에 종속시킨다. 그것에는 순종의 정신이 지배적 틀이 된다. 스탈린주의는 사회생활의 국가적 조종의 시대요, 자유롭고 자기주도적인 사회주의적 개인에 중점이 두어지지 않고, 그렇다고 대중에게도 중점이 주어지지 않은, 전능한 국가주의 관료제에 그 중점이 주어진 단계이다.<sup>24)</sup>

### 스탈린 이후의 맑스-레닌주의

스탈린을 격하시키고 스탈린의 체제를 비난하였던 후르시초프는 스탈린의 국가개념을 비판하고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그것

---

23) 위의 책, p. 331.

24) 위의 책, p. 336.

은 레닌의 프롤레타리아 독재국가론과도 다른 개념이다. 후르시초프는 1961년 제22차 당대회에서 소련은 이제 프롤레타리아 독재국가에서 '전 인민의 국가'로 바뀌었다고 선언하였다. 국가이론에서 두드러진 점은 레닌이 프롤레타리아 독재국가를 주장한데 비해 그는 한 단계 더 발전한 사회주의국가 개념인 '전 인민의 국가' 개념을 제시하였다. 국가의 성격과 관련해서 국가는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거친 후 새로운 단계에서 전 인민의 국가가 되며, 또 국가는 그 기구의 측면에서 실제로 점차 소멸하는 대신 국가의 다른 여러 기능들은 이에 상응하는 각 자치정부 및 사회조직으로 이전된다는 것이다. 각 계급의 적대관계는 이미 종식되었으므로 이제는 국가도 특정 계급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전 인민의 국가'가 되었으며, 인민 전체의 이익과 의지를 표현하는 조직체로 발전했다는 것이다.<sup>25)</sup>

국가의 개념 뿐만 아니라, 맑스-레닌주의 전반에 대해서도 스탈린주의로부터의 이탈이 있었다. 1953년 스탈린 사후 소비에트 학자들이 스탈린주의의 구속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맑스, 엥겔스, 레닌의 텍스트로의 복귀를 의미한다.<sup>26)</sup>

### 3. 북한의 맑스-레닌주의: 소련의 맑스-레닌주의와의 비교

북한의 맑스-레닌주의는 스탈린주의판 맑스-레닌주의를 수용하였다고 보아야 옳을 것이다. 중앙집권적 당이론, 프롤레타리아 독재이론, 균중노선 등의 이론들이 강조된 것이 특징이다. 스탈린 사후 소련의

25) Jerry Hough and Merle Fainsod, *How the Soviet Union is Governed*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1979), p. 227.

26) James Scanlan, *A Critical Survey of Current Soviet Thought*, 강재륜 역, 『소련의 마르크스주의』 (서울: 명문사, 1989), p. 118.

맑스-레닌주의는 스탈린 격하운동에 따라 스탈린주의의 구각을 벗어 던지는 방향으로 복귀했지만, 북한의 맑스-레닌주의는 스탈린주의를 그대로 온존시켰다는 차이가 있다.

그런데 맑스-레닌주의의 큰 틀에서 볼 때는 북한의 맑스-레닌주의는 소련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 가령, 북한도 주체사상이 만들어지기 이전까지는 맑스-레닌주의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결코 사회주의와 분리하지 않았다. 북한의 맑스-레닌주의 이론서는, 스탈린의 말을 인용하면서, 맑스-레닌주의는 “자연 및 사회의 발전 법칙에 관한 과학이며 피압박 피착취 대중의 혁명에 관한 과학이며 전 세계에서 사회주의의 승리에 관한 과학이며 공산주의 사회의 건설에 관한 과학”이라고 인식하고 있다.<sup>27)</sup>

북한의 맑스-레닌주의도 엥겔스의 맑스주의 해설, 레닌의 맑스주의 해설과 마찬가지로 철학, 정치경제학, 과학적 사회주의의 세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다. 큰 줄거리 면에서는 소련 등 사회주의권에서 사용된 맑스-레닌주의와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세부적인 면에서 북한의 맑스-레닌주의는 스탈린주의와 북한의 상황을 반영하는 등 몇 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다.

북한의 맑스-레닌주의에 대한 분석은 두가지 원전을 활용한다. 하나는 「사회과학강의: 맑스-레닌주의 학설」<sup>28)</sup>로서 통일혁명당 중앙위원회 선전부에서 집필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이다. 이후에는 「맑스-레닌주의학설」로 칭하고자 한다. 다른 하나는 「변증법적 및 역사적 유물론」<sup>29)</sup>이다.

27) 최길성, 「사회과학강의: 맑스-레닌주의 학설」, (북한문헌연구자료 5) (평양: 문화사, 1965), p. 9.

28) 위의 책.

29) 학우서방, 「변증법적 및 역사적 유물론」(하) (東京: 학우서방, 로동신문 출판인쇄소, 1962).

### 가. 변증법적 유물론

변증법적 유물론은 유물론 및 변증법에 관한 일반적 이론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소련의 것을 거의 그대로 도입하였으며 유의미한 차이가 별로 없다.

장(章) 단위의 목차만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은 주요 개념들이 포함되어 있다.

- 유물론과 관념론
- 변증법과 형이상학
- 물질
- 의식
- 물질세계의 전반적 영향
- 양적 변화의 질적 변화로의 이행의 법칙
- 대립물의 통일과 투쟁의 법칙
- 부정의 부정의 법칙
- 유물변증법의 범주
- 변증법적 유물론의 인식론

특이할만한 것은 ‘의식’에 관련된 장에서 주체사상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 사상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것을 보면 주체사상이 북한에서 독창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맑스-레닌주의에서 거론되고 논의된 사상의 일부가 확대 발전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 있다. 가령, “의식은 물질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작용한다”는 논지는 마치 주체사상 해설서를 읽는 듯한 느낌이 들게 하는 부분이다.

인간의 감각, 의식, 사유는 고도로 발전한 물질인 뇌수의 기능이며 물질 세계의 반영에 불과하다. 의식은 물질에 의존하며 물질이 없이는 있을 수 없다. 그러면 의식은 물질세계에 대하여 다만 수동적이기만 하고 아무런 역할도 놀지 못하는가? 결코 그런 것은 아니다. 인간의 사유, 의식은 최고도로 발전한 물질인 뇌수의 기능이며 객관적 현실의 반영이면서 동시에 그것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반작용한다.

의식을 가지고 있지 못한 동물은 외부 환경에 항상 순응할 따름이다. 그러나 의식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현실을 적극적으로 변혁한다. 의식은 인간이 주위세계를 개조하는 수단으로 되며 그의 실천을 지도하는 무기로 된다. 인간은 의식의 도움으로 미래를 예견하고 목적과 계획을 작성하여 자기의 실천활동을 진행한다. 이러한 의식의 능동적인 역할이 없다면 우리는 자연을 전혀 개조할 수 없다. --- 인간의 의식은 자연을 개조하는데서 만이 아니라 사회를 개조하는 데서도 적극적인 작용을 한다. 인간은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 언제나 자기의 사상, 의식에 의거하여 행동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가 진보적인 사상을 소유하고 있다면 진보적으로 행동할 것이며, 그와 반면에 반동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다면 반동적으로 행동할 것이다. --- 사상, 의식의 능동적 역할에 관한 변증법적 유물론의 이 명제는 우리들로 하여금 과학적 맑스-레닌주의 사상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대중 속에서 이러한 사상이론을 보급하며 그들로 하여금 각종 비과학적 이론과 반동사상의 영향을 극복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sup>30)</sup>

황장엽이 집필한 주체사상 해설서에 인간을 동물과 구분하면서 인간이 자연환경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개조하고 적응한다는 논지와 거의 유사한 맥락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sup>31)</sup> 북한이 초기에 주체사상에 대하여 “맑스-레닌주의를 창조적으로 계승 발전시켰다”는 언명은 맑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의 이러한 유사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다.

30) 『맑스-레닌주의 학설』, p. 20-21.

31) 황장엽, 『나는 역사의 진리를 보았다: 황장엽 회고록』 (서울: 한울, 1999), p. 378.

## 나. 역사적 유물론

역사적 유물론에 관한 일반적 이론에 있어서는 북한의 이론과 소련의 그것은 매우 유사하다. 장(章) 단위의 목차만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은 주요 개념들이 포함되어 있다.<sup>32)</sup>

- 역사적 유물론은 사회발전에 관한 과학이다
- 물질적 부의 생산은 사회생활의 기초이다
- 생산력과 생산관계 발전의 합법칙성
- 사회의 토대와 상부구조
- 계급과 계급투쟁
- 국가, 혁명 및 프롤레타리아 독재에 관한 맑스-레닌주의 이론
- 사회적 의식과 그의 형태들
- 역사에 있어서 인민대중과 개인의 역할
- 현대 부르주아 반동철학 및 사회학의 기본 조류들에 대한 비판
- 결론
- 교수요강

그러나 일부 핵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있다. 가령, ‘인민’에 관한 사항은 큰 차이가 있다. 소련의 이론서는 ‘인민’으로 표기된 것이 북한에서는 ‘인민대중’으로 표현되었다. 소련의 인민보다 북한의 ‘인민대중’의 개념은 보다 집단주의적 특성이 더 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레닌이 지적한 바와 같이 “맑스의 학설에서 주요한 점은 사회주의 사회의 창조자인 프롤레타리아트의 세계사적인 역할을 해명하였던 일”

32) 학우서방, 『변증법적 및 역사적 유물론』(하).

이다.<sup>33)</sup> 프롤레타리아트는 개인차원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며 개인차원에서는 인민이다. 소련에서 역사적 유물론은 ‘인민’이 역사의 창조자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고 해설하였다. 인민은 역사의 실질적 창조자이며 사회발전의 결정적 세력이라는 것이다.

역사의 과정에서 인민의 결정적인 의의는 사회의 발전에서 생산양식이 수행하는 규정적 역할로부터 유래한다. 물질생산은 사회의 삶의 토대이며 근로인민은 사회의 발전을 결정하는 세력이며 역사의 실질적 창조자들이다. 그러면 어떠한 방식으로 역사에서 인민의 역할이 발휘되는가? 근로인민은 무엇보다도 먼저 자신들의 생산적 노동을 통해 역사를 만든다. 바로 그들이 모든 물질적 재화를 창조한다.<sup>34)</sup>

소련의 맑스-레닌주의는 또한 ‘다양한 개인’의 존재와 집단과 구별되는 개인의 존재를 인정하였다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

동일한 사회에 다양한 개인들이 존재하는 또 다른 이유는 개인이 능동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개인의 능동성의 정도는 그가 행동하는 터전인 사회일반과 미시환경의 본성에 의존하며 또한 그의 개인적 성질들, 경험, 문화 수준 그리고 그의 특수한 해부학적, 생리학적 성질들 및 심리학적 성질들(의지력, 개성) 등에 의존한다. 구체적 개인은 사회환경의 영향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특수한 개성들, 이해들, 요구들 및 목표들을 유지하면서 능동적이고 선택적으로 받아들인다. 개인이 사회 환경의 산물이라고 해서 개인이 사회로 환원되는 것은 아니다. 개인은 사회의 메카니즘에서 단순히 하나의 톱니바퀴가 아니다. 사회환경이 개인을 형성하는 것과 동일한 정도로 개인은 사회를 형성한다. 환경을 바꾸는 것은 바로 인민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sup>35)</sup>

33) V. I. 레닌, “칼 맑스 학설의 역사적 운명,” 『칼 맑스』, p. 83.

34) 빅토르 아파나세프, 김성환 옮김, 『역사적 유물론』, p. 59.

35) 위의 책, p. 68.

또한 소련의 맑스-레닌주의는 역사에서 개인의 ‘능동적’ 역할도 매우 강조되었는데 반하여 북한에서는 삭제되었다. 북한의 경우는 개인이란 ‘결출한 위인’을 지칭하는 개념으로만 사용되었는데 이것은 북한에서 개인은 수령 한 사람뿐이라는 주장을 시사한다.<sup>36)</sup>

레닌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역사의 필연에 대한 개념은 역사에서 개인의 역할을 조금도 훼손하지 않는다. 모든 역사는 명백하게 능동적 존재인 개인들의 행동들로 구성된다.” 오직 마르크스주의만이 사회의 발전에서 개인의 실질적 의의를 증명했으며, 또한 개인이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조건들을 밝혔다. 개인은 자신의 노동, 정치적 활동, 의지 및 이성에 의해 역사를 만든다.<sup>37)</sup>

소련에서 나타나는 개인의 능동적 역할에 관한 논의에 비교해 볼 때 북한은 개인이라는 말을 인민대중이라고 바꾸어 놓았다.

력사발전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노는 것은 인민대중의 실천 활동이며 따라서 력사의 창조자는 인민대중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 력사적 유물론은 인민대중이 사회발전에서 결정적 역할을 놀며 력사의 진정한 창조자라고 가르친다.<sup>38)</sup>

사회생활의 기초는 물질적 부의 생산이다. 생산하지 않고서는 사람들은 먹고 입고 집을 쓰고 살 수 없으며 사회는 유지될 수 없다. --- 물질적 부를 생산하는데 있어서 결정적 역할을 노는 것은 인민대중이며 무엇보다도 생산에 직접 참가하는 근로대중이다. 그것은 근로대중이 생산력의 직접적인 담당자로서 생산력의 기본요소를 이루기 때문이다.<sup>39)</sup>

36) 학우서방, 『변증법적 및 력사적 유물론』(하), pp. 348-349.

37) 빅토르 아파나세프, 『역사적 유물론』, p. 69.

38) 학우서방, 『변증법적 및 력사적 유물론』(하), pp. 327-328.

39) 위의 책, p. 330-331.

북한은 ‘인민대중’의 역할에 대하여 매우 체계적으로 설명하였다. 기술발전, 사회혁명 등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는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개체로서의 ‘개인’이 아니라, 집단으로서의 ‘인민대중’이다.

인민대중은 생산에서 결정적 역할을 놀뿐만 아니라 기술을 발전시키는데 있어서도 결정적 역할을 논다. 인민대중은 생산관계의 교체, 사회혁명에 있어서 결정적 역량이다. 인민대중은 사회발전을 위해서 자연을 무단히 개조할 뿐만 아니라 낡은 사회제도로 혁명적으로 변화시킨다. 그리하여 생산력 발전을 저해하는 낡은 생산관계를 청산하고 생산력의 발전의 길을 열어주는 새로운 생산관계를 수립한다.<sup>40)</sup>

맑시즘에 있어서 프롤레타리아트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북한이 인민대중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은 맑시즘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의 주체사상의 핵심적인 명제인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라는 명제는 실제로는 맑스-레닌주의의 프롤레타리아트에 관한 입장과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북한의 주체사상은 맑스-레닌주의에서 프롤레타리아트의 혁명에서의 영도적 개념을 부각시켜서 발전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 우상숭배 관련 부분

소련의 맑스-레닌주의와 북한의 맑스-레닌주의간의 또 하나의 차이는 우상숭배에 대한 입장이다. 스탈린 사후 강화된 내용인 우상숭배 비판에 관한 맑스-레닌주의적 해석은 북한에서는 삭제되었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소련의 맑스-레닌주의 교과서는 개인숭배에 대

---

40) 위의 책, p. 333.

하여 매우 강하게 비판하였음을 아래의 인용문에서 볼 수 있다.

맑스-레닌주의는 역사에서 뛰어난 인물들이 수행하는 커다란 역할을 인정한다. 동시에 맑스-레닌주의는 개인숭배 즉, 역사를 자신의 의지대로 만들 수 있는 초인간적인 능력을 부여받았다고 주장하는 위인에 대한 맹목적인 숭배와 결코 양립할 수 없다. 개인숭배는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에 정면으로 배치되며 공산주의 운동에 심각한 해를 끼친다. 맑스, 엥겔스, 레닌은 항상 개인숭배나 개별적 지도자들의 역할에 대한 과장, 혹은 그들을 찬양하고 그들에게 아첨하는 따위의 일들에 대해 반대했다. 맑스-레닌주의의 창시자들은 집단적 지도만이 혁명운동의 성공을 보장한다고 강조했다. 개인숭배는 역사의 창조자로서의 인민의 역할과 인민의 집단적 지도자로서의 공산당 및 당 중앙기구의 역할을 평가절하하기 때문에 매우 해롭다. 개인숭배는 당의 이데올로기 생활과 인민의 창조적인 에너지의 발전을 방해하며, 인민에게 상부로부터의 지시를 수동적으로 기다리기만 하는 잘못된 습관을 길러준다. 개인숭배와 이로 인한 당생활과 국민생활의 레닌주의적 규율들의 파괴, 그리고 사회주의 법과 민주주의의 파괴는 사회주의의 민주주의적 본성과 거리가 멀다. 왜냐하면 사회주의의 특징은 개인의 전능이 아니라 인민의 통치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소비에트 연방공산당은 개인숭배를 비판하고 그 결과들을 단호히 청산했다.<sup>41)</sup>

이러한 내용들은 북한에서는 전혀 언급 없이 삭제되었다. 북한이 맑스-레닌주의를 그대로 북한에 적용하기 보다는 ‘창조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러한 우상숭배 금지 관련 부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제기된다.

또한 맑스-레닌주의의 변증법적 철학은 북한의 절대적인 김일성의 권위, 김일성의 절대성, 무오류성 등의 개념, 즉, 김일성의 우상숭배의 논리와 충돌된다. 이러한 내용들은 북한에서는 삭제되어 있다.

41) 빅토르 아파나세프, 김성환 옮김, 『역사적 유물론』, p. 72.

레닌에 의하면, 변증법적 철학에 있어서는 궁극적인 것, 절대적인 것, 신성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철학은 모든 것에 관해 또 모든 것에 있어서 그것이 일시적인 것임을 밝혀내고 있다. 그리고 이 철학에 있어서는 생성하고 소멸하며 낮은 것에서 높은 것으로 한없이 상승해 가는 끊임없는 과정 이외에는 지속해 있는 것은 아무것도 있을 수 없다.<sup>42)</sup>

#### 다. 정치경제학

정치경제학 부문은 자본주의체제의 특성에 대한 분석을 주요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북한체제의 형성에 관련된 이론은 별로 없다. 소련의 그것과도 큰 차이가 없다. 그래서 북한의 맑스-레닌주의에 나타난 주요 개념 중에서 장의 제목들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자본주의 이전 생산방식들
- 상품과 화폐
- 자본과 잉여가치, 임금
- 자본의 축적과 노동계급의 빈궁화
- 자본의 순환과 회전
- 평균이윤과 생산가격
- 상업자본과 상업이윤
- 대부자본과 대부이자, 화폐유통
- 지대, 농업에서 자본주의의 발전
- 사회적 자본의 재생산과 국민소득, 경제공황
- 제국주의의 기본특징
- 제국주의의 역사적 지위

---

42) V. I. 레닌, 『칼 맑스』, p. 25.

- 자본주의의 전반적 위기

## 라. 과학적 사회주의

과학적 사회주의에 관한 부분이 북한의 맑스-레닌주의와 소련의 맑스-레닌주의 사이에 가장 많은 차이를 보인다. 소련의 맑스-레닌주의가 스탈린주의의 영향에서 벗어난 것인데 반하여, 북한의 맑스-레닌주의는 스탈린주의의 영향을 그대로 온존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은 특히 당의 영도, 당의 조직원리로서의 전체주의적 특성들, 유일체제의 특성들을 매우 강조하였다. 장(章) 단위의 목차만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은 주요 개념들이 포함되어 있다.

- 노동계급과 노동운동
- 맑스-레닌주의 당
- 전략전술
- 농민문제
- 식민지-민족 문제
-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이 중에서 맑스-레닌주의 당의 이론이 가장 강조되었으며, 북한체제의 특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 아래의 인용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의 영도적 역할에 관한 북한 맑스-레닌주의는 레닌의 전위당 이론을 계승하여 당만이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영도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당의 영도적 역할을 부단히 높여야 한다. --- 당의 정치적 영도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모든

대중적 조직들, 즉 인민정권, 직업동맹, 농민단체, 청년단체, 여성단체, 문화단체들을 지도하여 당주위에 광범한 대중을 단결시켜 그들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 이끌고 나가는데 있다. 당은 매시기 정확한 대책을 작성하여 대중에게 나갈 길을 명시해 주며 대중단체들의 사업에 방향을 제시하고 그들의 사업을 지도 통제한다. 이러한 사업은 사회발전 법칙으로 무장된 맑스-레닌주의 당만이 할 수 있다.<sup>43)</sup>

소련의 이론서<sup>44)</sup> 당의 조직원리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되어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북한의 맑스-레닌주의 이론서는 맑스-레닌주의 당의 조직원칙에 대하여 매우 길고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런데 북한에 소개된 맑스-레닌주의 당의 조직원칙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계급이 자기 앞에 부과된 세계사적 사명을 훌륭하게 수행하자면 반드시 자기의 혁명적 맑스-레닌주의 당을 가져야 한다. 맑스-레닌주의 당은 무엇보다 먼저 노동계급과 전체 근로대중의 선봉적 부대로 되어야 한다. 레닌이 말한 바와 같이 맑스주의 당은 노동계급의 한 부분이기도 하나 다른 광범한 부분과 달리 노동계급의 선진적 분대이며 정치적 지도체이다.<sup>45)</sup>

맑스-레닌주의 당은 민주주의 중앙집권제 원칙위에서 조직되어야 한다. 민주주의 중앙집권제는 당건설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의의를 가지는 원칙이다.

레닌은 『공산주의에 있어서 좌익소아병』이라는 저서에서 “무조건적인 중앙집권과 노동계급의 엄격한 규율은 자본가 계급에 대한 승리의 기본 조건중의 하나이다.”

당의 중앙집권제는 당원은 당조직에 복종하며 하급당 조직은 상급

43) 『맑스-레닌주의 학설』, p. 387.

44) G. P. 체르니코프, 『과학적 사회주의』(노준기 옮김, 서울: 백두, 1989), p. 77.

45) 『맑스-레닌주의 학설』, p. 376.

당 조직에 복종하며 전체 당조직은 당중앙위원회에 절대 복종하며, 하급당 조직은 상급당 조직의 결정을 의무적으로 집행하며 상급당조직은 하급당조직의 사업을 계통적으로 지도검열하는 것을 의미한다.

민주주의 중앙집권제의 기본요구는 당원들이 당생활과 당조직들의 활동에 있어서의 당의 유일적인 지도, 유일적인 의사를 그의 적극적이며 창발적 활동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는데 있으며 당의 혁명적 규율을 당원대중의 정치적 자각과 고도의 창발성, 적극성과 잘 결합시키는데 있다.<sup>46)</sup>

북한의 맑스-레닌주의는 또한 맑스-레닌주의 당의 유일체제의 성격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북한체제의 유일체제적 속성은 일찍부터 발아되고 있었으며 소련의 스탈린주의적 맑스-레닌주의를 강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당대열의 사상의지, 행동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매개 당원들이 하나의 유일적 규율에 의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행동하며 당 규율을 자각적으로 준수해야 한다.<sup>47)</sup>

군중노선에 대한 강조도 주목할 만하다. 북한의 군중노선은 항일빨치산에서부터 유래한 것으로 소급하여 설명하고 있지만 맑스-레닌주의로 정당화하고 있다.

맑스-레닌주의 당은 모든 사업에서 혁명적 군중에 철저히 의거해야 한다. 정치적 영도에서는 군중속에서 사업할 줄 하는 능력과 수완이 요구되며 사업에서 필요한 모든 수단들을 옹계 이용할 줄 아는 것이 요구된다.

노동계급이 혁명운동에서 모든 후비군을 동원하는 문제는 결국 대중을 혁명의 편으로 전취하고 그들을 투쟁으로 옹계 인도하는데 있

---

46) 위의 책, p. 379.

47) 위의 책, p. 380.

다. 혁명은 대중을 해방하는 사업이며 따라서 대중 자신의 투쟁으로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맑스-레닌주의는 대중 전취 문제를 혁명 승리를 좌우하는 기본 열쇠로 본다.

소련정부와 스탈린 그리고 소련에서 도입된 맑스-레닌주의가 북한 체제 형성에 미친 영향에 관한 분석은 이하의 장에서 살펴본다.

## IV. 스탈린과 스탈린주의가 북한체제 형성에 미친 영향

### 1. 소련이 김일성정권의 형성 과정에서 미친 영향

소련이 북한 통치이데올로기의 형성에 미친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젊은 시절 김일성의 소련에서의 이념적 경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북한에서 집권하기 전 김일성의 이념적 경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1940년 말 항일연군이 괴멸된 이후 소련 하바로브스크의 소련 극동군 88여단으로 피신해 갔을 때, 그곳에서 받는 5년간의 훈련과 맑스-레닌주의적 정치교육이다.

88여단은 소련 극동군의 정찰대 소속으로서 앞으로 대일전에 대비하여 정찰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특수부대였다. 당시 소련극동군 정찰국은 도망해온 항일연군의 패잔병들을 야영에 수용하여 공산주의 정치학습과 군사훈련을 실시했다. 한편으로는 이들에 대한 정치교육과 군사교육을 실시하면서 소부대를 편성해서 동북으로 투입시켜 파괴공작, 선전공작 등 소련군을 위한 ‘군사정찰’의 특수요원 교육을 주로 실시하였다. 군사훈련으로는 사격, 사살, 투탄, 정찰, 스키, 낙하산 강하, 무선전신, 통역 등의 훈련이 실시되고, 정치교육으로는 중국 혁명사, 공산주의와 삼민주의, 항일민족통일전선, 항일전쟁의 당면한 정국과 발전의 전도, 군대의 정치공작과 당적 건설 등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었다.<sup>48)</sup> 정치교육의 교재로는 『소련공산당사』, 스탈린이 쓴 『레닌주의의 기초』, 모택동의 『중국혁명전쟁의 전략문제』 등이다.<sup>49)</sup>

48) 이육경·이민화, “在東北抗日戰場上的 周保中志,” 『求是學刊』 (홍콩강대 학보, 1981년), p. 28, 신일철, 『북한주체철학 연구』 (서울: 나남출판, 1993), pp. 448-449에서 재인용.

이때 김일성은 스탈린주의적인 레닌주의의 전략전술을 학습한 것으로 보이며, 해방 후 북한의 공산화 과정에서 김일성의 노선도 이 시기의 정치교육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주보중진」에 의하면 이 여단의 정치학습은 “주로 맑스와 레닌의 저작, 모택동의 저작, 그리고 「구국시보」, 「신화일보」 등 공개적 간행물의 재료 등이었다”<sup>50)</sup>라고 쓰고 있다.<sup>51)</sup>

해방 후 북한의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의 교본으로 이 「소련공산당사략정」과 스탈린이 집필한 「레닌주의의 기초」<sup>52)</sup>가 도입되었고, 특히 「소련공산당사략정」은 노동당 간부 뿐 아니라 각 분야의 지도간부들의 필수적인 연수교재가 되었다. 북한주민의 사상교육을 위하여 「소련공산당사략정」의 제4장 「변증법적 유물론과 역사적 유물론」은 공산주의 대용종교의 경전처럼 암송하게 되었고, 다른 사상이나 종교는 억압당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 당시 북한에서 사용된 맑스-레닌주의 사상 교과서는 모두 스탈린 철학이고 스탈린주의에 속하는 것이었음은 물론이다.

한국이 해방되자 김일성은 이 88여단에서 북한으로 입북하였는데 입북하기 직전에 소련 당국에 의하여 북한의 새 지도자로 선발되었다. 김일성이 88여단에서 소련당국에 의하여 직접 북한의 새 지도자로 선

49) 「중공당사 인물전」 제10권, pp.267-268, 신일철, 위의 책, p. 449에서 재 인용.

50) 유문신·이육경, 「周保中傳」(흑룡강성 인민출판사, 1986), p. 273; 주보중은 제2로군총사령으로서 ‘주보중진’은 그의 일기에 근거한 서술로서 김일성의 소련 체류에 대하여 소상하고 결정적인 증언을 담고 있다, 신일철, 위의책, p. 440.

51) 신일철, 위의 책, p. 449.

52) 「레닌주의의 기초」의 목차는 -레닌주의의 역사적 근원, -방법, -이론, -프롤레타리아독재, -농민문제, -민족문제, -전략과 전술, -당, -사업의 방식을 포함하고 있다. (스탈린, 「스탈린선집」 I, 서울: 전진출판사, 1988).

발되었다는 사실은 북한 체제의 특성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김일성이 스탈린에 의하여 직접 선발되었고 권력 장악과정과 체제형성 과정에 스탈린과 소련의 지원을 받았다면 김일성과 북한 체제의 형성은 소련에 의하여 영향을 크게 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김일성이 스탈린에 의하여 지명 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당시 관련자의 증언에 의하여 확인되었다. 당시 소련 극동군 총사령관 바실레프스키 원수의 부관이었던 전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 국제부 부부장 코바넨코 이반 이바노비치(1993년 당시 72세, 모스크바 거주)가 처음으로 김일성의 선발과정을 증언하였다. 그에 의하면 1945년 8월 24일 대일전에서 승리한 소련은 북한 소비에트화의 조기 정착을 위한 지도자 후보 선정을 놓고 고심하던 중 1945년 9월 초순 극동군 총사령관 바실리에프 원수가 극동군에서 추천한 88정찰여단의 김일성 대위를 비밀리에 모스크바로 보내라는 스탈린의 긴급지시를 받고 하바로브스크에서 소련군 특별수송기 편으로 김일성을 모스크바로 보냈었다고 한다.<sup>53)</sup>

김일성을 모스크바로 보내라는 스탈린의 지시를 받은 바실레프스키 사령관은 하바로브스크 인근에 있는 군용 비행장에 수송기를 대기시켜 놓고 88정찰여단의 김일성 대위를 불러온 후 KGB 극동본부 요원 2명에게 모스크바로 안내하도록 했다고 한다. 스탈린과 김일성의 면담은 식사를 겸해서 4시간 동안 진행되었다고 한다. 면담 후 스탈린이 김일성을 북한 정국의 최고지도자 후보로 내정하고, 소련군으로 하여금 그를 적극 지원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sup>54)</sup> 김일성이 1945년 9월 18일 북한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스탈린과 면담 후 북한의 지도

53) 중앙일보특별취재반, 『비록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하권 (중앙일보사, 1993년), p. 202.

54) 위의 책, pp. 202-204.

자로 임명을 받은 것이 사실로 확인된 셈이다.

1945년 10월 14일 평양시 군중대회를 통하여 소련군정은 김일성을 북한의 지도자로서 공식적으로 지명한 것이다.

코바넨코의 증언에 의하면 김일성이 소련 군정에 의하여 북한의 최고지도자로 선발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항일투쟁 ‘김일성장군’으로 인민들에게 널리 알려진 지명도 때문일 것이라고 한다. 박헌영도 당시 김일성의 지명도를 인정하는 발언에 관한 기록을 남긴 바 있다. 소련은 그의 이 같은 ‘명성’을 최대한 활용해 양손에 당(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 책임비서)과 행정권(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위원장)을 쥐어준 후 ‘민주개혁’을 추진케 했다고 한다.<sup>55)</sup>

김일성의 집권과정에 난관도 있었다. 박헌영과 같은 큰 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정권초기 박헌영과 김일성 두 지도자는 지도노선 등에서 큰 차이를 보이면서 주도권을 다투게 되었다. 소련군정의 지원 속에 순탄하게 북조선선을 장악한 김일성에 비하여 박헌영은 남한에서 어려운 싸움을 벌였으나 공산당의 흐름은 점차 북쪽으로 흐르기 시작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당시 소련 극동군 사령부 부관이었던 코바넨코는 “김일성에 대한 불만이 쌓일 대로 쌓인 박헌영은 제1차 미소공위가 결렬된 1946년 5월 스탈린에게 보낸 편지에서 불만을 폭발했다”고 밝히면서 “이 편지는 의외의 효력을 발휘해 박헌영이 처음으로 김일성과 함께 스탈린을 면담하는 기회로까지 발전하게 되었다”고 증언하였다.” 당시 총사령관 부관이었던 코바넨코의 자세한 증언은 다음과 같다.

1946년 5월 KGB 극동본부에서 박헌영이 보낸 편지를 가지고 사령관을 찾아왔습니다. 당시는 극동권 총사령부가 해체되고 극동군구로 바뀌어 사령관 역시 마리노프스키 원수로 교체되었습니다. 소련

55) 위의 책, pp. 298-299.

어로 된 장문의 편지는 일제때 지하에서 항일 투쟁한 국내 공산주의자들을 무시하고 빨치산 활동을 했던 인사들만 앞세우는 등 독재가 많았으며, 중앙당을 무시하고 독자노선을 걸으면서 남한 실정에 맞지 않는 정책 등을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나(박헌영)를 추종하는 당원들을 배제하면서 당을 분열시키고 있다는 등 김일성을 원색적으로 비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또 이 편지는 소련군정 지도부가 당 총책 임자인 자신을 따돌리고 일방적으로 김일성에게만 적극 협력하고 있어 당의 권위가 추락해 혁명사업에 차질이 예상된다는 등 소련군정에 대해서도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사령관은 한참동안 심사숙고 끝에 최종 판단은 스탈린 대원수께서 내릴 수 있도록 모스크바 당중앙에 보내라고 지시했습니다. KGB에서 보낸 이 편지를 놓고 중앙당에서도 한 때 고심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결국 박헌영의 편지는 스탈린에게 보고되었지요. 스탈린은 이 편지를 읽고 박헌영의 주장 가운데 상당 부분이 근거가 있다고 보이니 평양의 25군과 김일성 진영에 지시하여 즉시 시정토록 하라고 KGB 본부에 강력히 지시했습니다. 스탈린의 지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니다. 당시 일부에서 강력히 주장했던 ‘박헌영지도자론’에 대한 소문을 듣고 “박과 김을 내가 직접 만나 볼테니 그들을 모스크바로 부르라”는 의외의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러시아어로 쓰인 박헌영의 편지는 당시 서울 주재 소련 총영사관 부영사 샤브신(KGB 소속)을 통해 하바로브스크의 KGB 극동본부에 전달되었던 것이다.<sup>56)</sup>

당시 소련군정 정치사령관이었던 레베데프가 중앙일보를 통하여 밝힌 바에 의하면 1946년 7월 스탈린이 김일성과 박헌영을 면접한 후 김일성을 북한의 최고지도자로 선택했다고 한 증언이 나왔다.<sup>57)</sup> 위의 당시 총사령관 부관이었던 코바네펬코의 증언과 당시 소련군정 정치사령관 레베데프의 증언은 일치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련 인사들의 증언을 통하여 볼 때 김일성은 자력으로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된 것이 아니라 소련의 스탈린에 의하여 최고지

56) 위의 책, pp. 210-212.

57) 위의 책, pp. 211-212.

도자로 선발되어 소련군정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sup>58)</sup>

## 2. 소련 군정이 북한체제 형성에 미친 영향

김일성이 스탈린에 의하여 지명되었을 뿐만 아니라 북한정권의 형성도 소련의 후견 하에 이루어졌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이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김일성과 그의 추종자들이 북한의 군부와 치안조직을 장악했다는 점이라고 고병철은 지적하였다.<sup>59)</sup> 1945년 11월에 북한에 설립된 북한 최초의 군 및 정치간부 양성소인 평양학원은 빨치산파의 김책이 맡았고, 1946년 2월에 임시인민위원회가 조직되었을 때 초대 보안국장도 빨치산파의 최용건이었다. 같은 해 8월까지 설립된 중앙보안간부학교와 다른 간부양성소도 모두 빨치산파들이 장악하였다. 이러한 간부양성소가 배출한 군과 보안간부는 1946년 말까지 2만 명에 달했는데 그들의 총사령관은 빨치산파의 안길이다. 서대숙은 이러한 사실들이 김일성의 권력장악이 “소련보호 하의 군사집권” (a military takeover under Soviet tutelage)이라는 것을 시사한다고 주장한다.<sup>60)</sup>

소련이 북한정권의 형성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행사했다는 증거는 많다. 가장 신빙성 있는 증거는 한국전쟁 중 입수된 북한의 각종 문서와 북한포로 또는 귀순자들의 증언에 근거해서 미국무성이 발간한 연구보고서에 나타나 있다. 이들 자료에 의하면 소련은 조선계 소련인들을 북한에서 활용하였다고 한다. 그들은 소련군정시기뿐만 아니

58) 더 자세한 증언 내용은 중앙일보, 위의 책 참조할 것.

59) 고병철, “한국전쟁과 북한정치체제의 변화,” 고병철 외, 『한국전쟁과 북한사회주의체제 건설』 (서울: 경남대학교극동문제연구소, 1992), p. 4.

60) Dae-Sook Suh, *Kim Il Sung: The North Korean Leader*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8), pp. 101-102.

라 북한정권 수립 이후에도 북한 권력기구의 요소를 장악하고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것이다. 각 기관마다 적어도 한 명씩의 소련인 고문이 파견되어 있었으며 그들의 임무는 정책결정을 검토하는 것이었다고 한다.<sup>61)</sup>

당시 북한에 진주한 소련 25군 정치사령관 레베데프 소장의 증언에 의하면 토지개혁 등의 초기 정치 프로그램이 소련의 주도로 이루어졌다고 한다.<sup>62)</sup> 소련군정은 당시 조선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무산계급층인 인민들이 가장 갈망하는 토지개혁 조치를 비롯, 8시간 노동제, 남녀평등, 기업소 등의 국유화 조치안을 김일성의 이름으로 발표케 하고 강력히 시행하도록 지원했다고 한다. 신탁통치 문제로 소군정과 결별한 민족주의파 조만식을 고려호텔에 감금하였고 그러자 대부분의 지주, 지식층, 민족계열 인사들이 대거 월남해 버렸기 때문에 토지개혁을 시행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었다고 한다.<sup>63)</sup>

서대숙은 소련점령당국이 북한을 소비에트화하였다고 주장하고 김일성의 권력장악이 소련의 결정과 후원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이는 중앙일보특별취재반이 취재한 당시 소련군 관련자의 증언과 일치한다.<sup>64)</sup> 스칼라피노와 이정식은 소련이 북한에서 최종 결정권을 행사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김일성은 그 당시 어느 지도자보다 외국의 “괴뢰”(a puppet of a foreign power)라고 주장한다. 소련의 북한통치기구는 북한정권이 수립된 후에 점령당국으로부터 소련대사관으로 이전하였을 뿐이라고 지적하였다.<sup>65)</sup>

---

61) U.S. Department of State, *North Korea: A Case Study in the Techniques of Takeover*, Department of state Publication No. 7118, Far Eastern Series No. 103 (Washington, D.C.: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61); 고병철, 위의 글, p. 3에서 재인용.  
 62) 중앙일보특별취재반, 「비록: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하권, pp. 48-57.  
 63) 위의 책, p. 298-299.  
 64) Dae-Sook Suh, *Kim Il Sung: The North Korean Leader*, pp. 59-73.

소련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의 정도를 알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소련의 북한 언론 장악이다. 북한에 진주했던 소련군 25군의 정치사령관을 지냈던 레베데프는 소련 군정의 당시 북한에 대한 언론정책을 소상히 증언하였다. 그의 증언에 의하면 소련군 연해주 군관구에는 동방의 정세분석 등을 담당하는 7호정치국이 있는데 그곳에서 조선어, 중국어, 일본어를 하는 장교를 양성했는데 그들이 후에 북한에 들어와서 언론을 담당했다고 한다. 소련군정은 입북하자마자 평양에서 가장 시설이 좋은 『평양매일신문』의 설비 일체와 사무실을 그대로 접수해 소련군 신문사를 조직하여 한글로 신문을 발행했다. 북한 언론은 소련군정이 정해놓은 한계 내에서만 움직여야 했다고 한다. 그 한계는 바로 소련 군정이 내밀하게 정해놓은 목표로서 ‘북한의 소비에트화’라는 중장기 목표라고 한다. 소련군정 소속 매체는 직접 통제하고 기타 매체는 검열이라는 방식으로 간접 통제하였다고 한다.

통제의 기준은 두가지였다고 한다. 첫째는 “조선을 해방한 위대한 붉은 군대”에 대한 선전이며 두 번째는 김일성을 정치지도자로 부각하는 일이었다고 한다. 김일성을 항일 민족 영웅으로 만드는 것이 소련군의 긴급한 과제였으며, 소련군은 가능한한 모든 매체들로 하여금 김일성이 소련군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자이며 장차 지도자가 될 사람이라는 점을 인민들에게 암시하도록 했다고 한다. 국내파라든가 의용군, 무정 등은 거의 취급하지 않았다고 한다. 방송국에서는 방송 시작과 종료시 ‘김일성 장군의 노래’를 반드시 틀도록 했다고 한다.<sup>65)</sup>

위에서 살펴본 것은 소련과 스탈린의 영향이 북한의 정권을 형성하는데 얼마나 큰 역할을 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주장과 증거들이다.

65) Robert Scalapino and Chong-Sik Lee, *Communism in Korea, Part I: The Movement*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2), pp.317-318, 381-382.

66) 중앙일보특별취재반, 『비록: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하권, pp. 58-63.

소련과 스탈린, 그리고 맑스-레닌주의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는 오늘의 북한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련이 북한의 권력형성에 미친 영향 중에서 정치적인 요소의 하나는 소련이 직접 김일성을 옹립하여 최고지도자로 만든 것 외에도 소련이 그런 식으로 최고지도자를 이식시킨 후유증이 오늘날의 북한권력의 특성을 형성하였다는 점이다. 즉, 소련의 스탈린이 북한내의 민족주의파, 국내파 등 주류 지도자들을 무시하고 소수파의 김일성을 옹립하였기 때문에 북한정권의 특성이 오늘날과 같이 ‘권력투쟁 지향적인 특성’으로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해방 당시 정치세력의 지형을 볼 때 주류를 형성하였던 것은 조만식, 박헌영 등 국내파였다. 수적으로 뿐 아니라 이념적으로 대중성이 컸다. 그런데 북한 전 인민들의 절대적인 추앙을 받고 있던 조만식을 비롯한 민주 민족 진영과 국내 공산주의 세력의 틈바구니 속에서 소련이 개입하여 김일성을 북한의 지도자로 이식하였기 때문에 정치적 풍량이 컸던 것이다. 조만식이 이끄는 민족주의파는 가장 영향력이 컸기 때문에 일찍이 소련에 의하여 거세되었고 남은 권력집단 또는 파벌은 김일성의 빨치산파와 갑산파를 포함한 범빨치산파, 조선계 소련인들을 지칭하는 소련파, 중국에서 돌아온 혁명가들로 구성된 연안파,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선과 일본에서 공산주의운동을 한 사람들을 망라한 국내파였다. 이중 가장 수가 많은 것이 국내파였고 가장 수가 적은 것이 빨치산파였다.<sup>67)</sup>

이 속에서 권력을 유지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였기에 오늘날과 같이 정권유지 제일주의의 정치풍토가 형성되었다. 다수파를 견제하면서 소수파 김일성을 옹립하였기 때문에 김일성은 오랫동안 국내파, 중국파, 소련파와 연립정권을 형성하였고 연립정권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권력투쟁 일변도의 정치를 했다.

67) 고병철, "한국전쟁과 북한정치체제의 변화," p. 5.

가장 먼저 제거된 파벌은 남로당파였다. 6·25전쟁 중 전쟁 실패에 책임을 물어 김일성에 대한 공세가 제기되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김일성은 오히려 전쟁의 책임을 남로당의 책임으로 전가하면서 역공을 취했다. 남침을 감행하였을 때 남한에서 공산당의 남침을 환영하여 민중봉기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전세가 불리해졌다고 주장하면서 남로당을 비난하였다. 수가 가장 많고 부담스러운 국내파를 가장 먼저 공격할 수 있는 명분이 된 것이다. 6·25전쟁의 주도자가 자기임에도 불구하고 박헌영, 이승엽 등 남로당파에 전쟁의 실패를 전가하고 미국 간첩이라는 죄를 씌워서 1952년 12월 15일에 체포하였고, 휴전 3일 후에 이들을 기소하여 처형하였다.<sup>68)</sup> 최대 파벌이었던 박헌영을 6·25전쟁의 혼란 속에서 미제의 간첩으로 몰아서 제거한 것이다.

김일성에 대한 그 다음의 도전은 소련파와 연안파로부터 왔다. 한국전쟁 동안 북한은 소련과 중국으로부터 많은 원조를 받은 것이 소련파와 연안파가 더욱 득세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김일성은 1956년 8월의 종파사건을 계기로 소련파와 연안파를 제거하였고 1967년에 갑산파 제거를 마지막으로 경쟁파벌들을 제거하여 유일지도체제를 확립하였다. 1967년 유일체제를 확립하기까지는 김일성의 권력은 경쟁파벌들과의 연립정권이었으며 이들과의 집단지도체제였다. 김일성은 이러한 경쟁세력들을 종파라고 규정하였으며 이들 각 종파는 중국과 소련을 등에 업은 세력이었기 때문에 이들을 사대주의자들이라고 비판하였다.

### 3. 민주주의 및 인민민주주의론과 초기의 체제형성에 미친 영향

북한의 정권 초기 이데올로기적인 측면에서 소련의 영향을 살펴보

68) 박헌영에 대한 처형은 1955년 12월에 있었다. 위의 글, pp. 12~13.

자. 1945년 8월 해방과 더불어 소련군이 북한에 진주하고 소련군정에 의하여 김일성이 지도자로 옹립되고 소련군의 북한 소비에트화 계획에 의하여 모든 정책이 추진되었다는 것은 앞에서 지적되었다.

북한정치체제의 모형과 중요 통치이데올로기는 주로 소련 점령군 당국의 로마넨코 정치사령부가 그 각본을 짜고 지령을 내린 것이었다고 한다. 로마넨코 정치사령부는 소련공산당원증을 가진 김일성 등 43인에 의해 구성된 43인조회의가 있어서 여기서 모든 정치공작의 핵심역할이 행해진 것으로 보인다.<sup>69)</sup>

그렇지만 소련의 북한 사회주의화 계획은 표면에는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 당시의 북한내의 정치지형이나 사회적 정세로 볼 때 공산주의 또는 사회주의 프로그램이 전혀 수용되기 어려웠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대다수 인구를 차지하였던 농민들도 토지소유에 대한 집념이 간절하였기 때문에 소련군정이 그들에게 사회주의화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토지를 국유화하는 조치를 취했다면 금방 폭동이 일어났을 것이다.

그래서 소련은 동구에서와 마찬가지로 통일전선전술을 사용하여 일단 모든 정파를 통합하는 연립정권을 구성한 다음에 그 정권 내에서 점진적으로 헤게모니를 장악하여 사회주의화하는 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판단은 소련 지령의 내용에 의하여 확인되었다. 1945년 9월 20일 소련군 최고사령관 스탈린의 명의로 소련극동군 사령관, 연해주군관구 제25군에 보낸 '지령'에서는 "북한 영토 내에 소비에트나 소비에트정권의 다른 기관을 수립하거나 소비에트제도를 도입하지 말 것"을 지시하였다. 스탈린은 이 문서에서 북한지역에서 형성되어야 할 권력의 형태에 대하여 명확한 입장을 전달한 셈이다. 소련식의 소비

69) 신일철, 『북한주체철학 연구』, p. 291.

에트 제도를 ‘도입’하는 시도를 하지 말며, 그대신 “반일적인 민주주의 정당 단체들의 광범한 동맹에 기초하여 북한에 부르조아민주주의 권력을 수립하는데 협력하라”는 지시였다.<sup>70)</sup>

이 지시는 코민테른 제7차대회의 인민전선·민족통일전선 방침과 일치한다. 이는 소련군이 주둔하는 북한 지역에서 이 지역의 주민들이 조직하는 정당 단체들이 ‘반일적’인 성격을 지니는 한 그 형성을 방해하지 않고 원조하며, 그 정당 단체들이 동맹토록 유도하여 그 기초 위에서 부르조아민주주의 권력을 형성토록 한다는 구상을 제시한 점에서 확인된다. 이는 소련측이 코민테른 제7차대회에서 결정한 바 있는 식민지·반식민지에서의 반제통일전선에 기초한 정부수립 방침을 다시 해방 후 북한 지역에서 적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sup>71)</sup>

김일성은 소련의 이러한 전략에 충실하게 행동하였음을 그의 연설문의 내용분석을 통하여 잘 알 수 있다. 김일성 연설문을 최초로 묶어서 낸 자료인 1949년판 『김일성 선집』 제1권의 첫 번째 연설문의 처음 도입부에서 당시의 지배 이념이 무엇인지가 잘 드러난다.

쏘련 군대의 위력으로 해방된 북조선은 결정적으로 진정한 민주주의적 발전의 길에 나섰습니다.<sup>72)</sup>

진정한 ‘민주주의’가 당시 김일성 정권이 지향하는 정치 이데올로기

70) 전현수, “소련군의 북한 진주와 대북한 정책” 『한국독립운동사연구』 9 (1995), p. 355; 김성보, 『남북한 경제구조의 기원과 전개: 북한 농업체제의 형성을 중심으로』 (서울: 역사비평사, 2000), p. 120에서 재인용.

71) 김성보, 위의 책, p. 120.

72) 김일성, “목진 조선정치형세와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의 조직문제에 관한 보고”(1948년 2월 8일 북조선민주주의 각정당 사회단체 행정국 인민위원회 대표 확대협의회에서 행한 연설), 『김일성 선집』 제1권 (평양: 조선노동당출판사, 1949), p. 1.

였다고 볼 수 있다. 이 연설에서 김일성은 임시인민위원회 조직을 위한 10대 당면과제를 제의하였는데 첫째가 친일파와 반민주주의적 분자를 숙청하는 문제를 강조하는 것으로서 역시 민주주의를 표방하였다.<sup>73)</sup>

1개월여 후에 10대과제를 보다 구체화한 20개조 정강이 발표되었다. 주요 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조선림시정부는 전체인민의 리익과 희망을 실현할 능력을 가진 진실한 민주주의 정부로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상에 말한 바와 같은 진실한 민주주의적 정부는 아래와 같은 정강 위에 서야만 결성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1) 조선의 정치 경제생활에서 과거 일본통치의 일체 잔여를 철저히 숙청할 것.

(2) 국내에 있는 반동분자와 반민주주의적 분자들과의 무자비한 투쟁을 전개하며 파쇼 및 만민주주의적 정당 단체 및 개인들의 활동을 절대 금지할 것.

(3) 전체인민에게 언론, 출판, 집회 및 신앙의 자유를 보장시킬 것. 민주주의 정당 로동조합 농민조합 및 기타 제 민주주의적 사회단체의 자유롭게 활동할 조건을 보장할 것.

(4) 전조선인민은 일반적으로 직접 또는 평등적으로 무기명투표에 의한 선거로써 지방의 일체 행정기관인 인민위원회를 결성할 의무와 권리를 가질 것.

(5) 전체 공민들에게 성별, 신앙 및 자산의 다소를 불구하고 정치, 경제, 생활 제조건에서의 동등한 권리를 보장할 것.

(6) 인격, 주택의 신성불가침을 주장하며 공민들의 재산과 개인의 소유물을 법적으로 보장할 것.

(7) 일본통치시에 사용하며 그의 영향을 가진 일체의 법률과 재판기관을 폐지하며 인민재판기관을 민주주의원칙에서 건설할 것이며 일반공민에게 법률상 동등권을 보장할 것.<sup>74)</sup>

73) 위의 글, p. 21.

74) 김일성, “조선림시정부수립을 앞두고 20개조 정강발표” (1946년 3월 23일) 『김일성선집』 제1권, pp. 22-23.

이 정강에서 나타난 것은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주요 이데올로기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반동분자와 같은 표현에서 이 정강의 비공산주의자에 대한 투쟁적 의지를 암시하고 있으나 전반적인 기조는 민주주의라는 개념이며 소유물을 법적으로 보장한다는 조항 등은 부르조아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1945년 11월에 행한 아래의 김일성 연설에서도 프롤레타리아 독재와 사회주의체제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자본주의 국가를 설립하는 것도 반대했다는 점이다.

지금 어떤 사람들은 부르조아공화국을 세우고 조선이 자본주의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하며 또 어떤 사람들은 당장 프롤레타리아독재 정권을 세우고 조선이 사회주의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떠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 건국사업에 떨쳐나선 인민들을 혼란에 빠지게 하는 그릇된 주장들입니다. 우리 나라에 부르조아공화국을 세우자는 것은 조선인민들을 또다시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노예로 만들지는 것과 같은 것이며 조선에 당장 프롤레타리아독재 정권을 세우자는 것은 이발도 나지 않은 어린이에게 콩밥을 먹이자는것이나 다름없는 어리석은 주장입니다. 우리는 해방된 조선에 결코 자본주의제도를 세울수 없으며 또 혁명발전의 단계를 뛰어넘어 당장 사회주의사회를 건설할수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 나라 혁명은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단계에 놓여있습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이러한 우리 나라 혁명의 성격에 맞는 진보적인 민주주의사회를 건설하여야 합니다.<sup>75)</sup>

이듬해 1946년 3·1절 기념식에서 행한 연설에서도 민주주의가 주된 이데올로기로 사용되었다.

우리는 이날을 기념할 때에 이와같은 3·1운동의 교훈과 경험을 우

75) 김일성, “건국사업에서 인테리들앞에 나서는 과업,” (평양시내 교원, 인테리들 앞에서 한 연설, 1945년 11월 17일), 『김일성 저작집』, 1권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pp, 420-421.

리는 잘 인식하고 우리는 이제부터 굳게 전면적 대동단결을 힘있게 지어가지고 민주주의적 기초위에서 각 민주주의 정당, 각 사회단체는 통일전선을 굳게 지어서 새조선 새정부인 민주주의조선을 건설하여야 합니다.<sup>76)</sup>

1946년에 실시한 토지개혁에 대해서도 그 의미를 민주주의적인 것으로 해석하였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물론 토지개혁이 사회화나 국유화가 아니라 개인소유를 원칙으로 하였다는 점도 중시할 필요가 있다.

북조선에서 실시된 토지개혁은 4천년동안 내려오던 조선의 봉건제도를 없애버리고 민주주의적으로 조선을 발전시킬 첫 기원이 되는 것이다. 금번의 토지개혁에서 북조선의 봉건제도는 영영 가버리고 새로이 인민생활의 행복을 위한 민주주의적 새농촌이 탄생케 되었다.<sup>77)</sup>

북한이 지배이념으로서 민주주의를 제시한 배경으로서 당시 민주주의가 호소력을 가질 수 있었던 국제적 환경도 지적할 수 있다. 2차대전 종전 직후의 상황을 김일성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파시스트의 독일로부터 해방된 구라파 각 약소국가들은 국제구내의 모든 반동파들의 책동과 음모를 박차고 민주주의 인민의 정권을 수립하였으며 조국 부흥사업을 용감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세계는 민주주의 원칙에 의하여 재건되고 있으며 전진하고 있습니다.<sup>78)</sup>

---

76) 김일성, “3·1절을 맞이하며 조선인민에게 고향” (1946년 3월 1일 평안남도 3·1운동 기념대회에서), 『김일성선집』 1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49), p. 18.

77) 김일성, “토지개혁 총결보고에 대한 결론 요지,” (1946년 4월 13일,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 제1차 확대회의에서), 『김일성선집』 제1권, p. 25.

78) 김일성, “북조선 민주주의 민족통일전선위원회 결성에 대한 보고,”

뿐만아니라 김일성은 남한을 봉건적 파쇼분자들의 반민족적 반인민적 반민주적이라고 규정하였다.<sup>79)</sup> 북한만이 민주주의 국가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셈이다.

### 통일전선과 민주주의

북한은 정권초기부터 통일전선을 강조하였다. 통일전선이란 김일성 정권에 통합되지 않은 제반 집단과 세력을 포섭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향후 사회주의체제로 통합하기 위한 예비 조치이다. 이것이 사회주의를 내세우지 않고 ‘민주주의’를 정권의 통치이념으로 내세운 이유 중의 하나이다.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정당과 사회단체가 많았기 때문이다.

토지개혁을 순조롭게 진행하게 된 조건의 하나는 북조선에서 민주주의적 통일전선이 굳게 결성되었다는 것이다. 북조선에 있는 각 민주주의적 정당, 즉 조선공산당, 조선민주당, 신민당, 천도교청우당 급 기타 각 사회단체들이 결성한 통일전선은 가장 튼튼하다.<sup>80)</sup>

북조선의 각 민주주의 정당과 사회단체들의 공동한 노력에 의하여 우리는 북조선에 있어서 앞으로 통일적 민주조선을 세우기 위하여 튼튼한 토대를 닦아놓았습니다. --- 수백만의 군중은 민주주의 각 사회단체내에 결속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있어서 중요한 것만 본다면 현재 직업동맹원, 농민연맹맹원, 민주청년동맹맹원, 예술연맹맹원 뿐만 아니라 우리는 북조선에서 각민주주의정당, 각 사회단체들의 민주주의 통일전선 기초 위에서 인민의 정권 북조선로동시인민위원회

---

(1946년 6월 22일 북조선 민주주의 각 정당 사회단체 대표회의에서) 「김일성선집」 제1권, p. 93.

79) 위의 글, p. 94.

80) 김일성, “토지개혁 총결보고에 대한 결론 요지”(1946년 4월 13일, 북조선로동시인민위원회 제1차 확대회의에서), p. 28.

를 창립하였습니다.<sup>81)</sup>

북한은 이것을 반제 반봉건적 민주혁명, 레닌식 ‘부르조아 민주주의 혁명’의 노선을 조선의 현실에다 올바르게 적용한 표본으로 내세웠다.

이 시기 북한에서는 제2차세계대전 직후의 동유럽에서와 마찬가지로 ‘사회주의’나 ‘사회주의적’이니 하는 용어의 사용을 의도적으로 삼가고 그 대신 의회민주주의와 공산주의에 다같이 수용될 수 있는 ‘민주주의’라는 이데올로기를 사용하였다. 토지개혁 법령(1946.3.5), 중요산업국유화법령(1946.8.10), 노동법령 (1946.6.24), 남녀평등에 대한 법령(1946.7.30), 선거법령 (1946.6.4), 개인기업의 창발력발휘에 대한 결정서(1946.10.4) 등의 실시는 과도기에 있어서 실시된 ‘민주개혁’들로서 사회주의라는 의미를 일체 부여하지 않았다.

가령, 토지개혁을 국유화가 아닌 사유화의 방식으로 실시한 배경을 통해서 당시 김일성 정권의 이데올로기적 조작을 잘 볼 수 있다. 토지개혁을 강행하던 당시에는 토지개혁이 사회주의혁명과 관련이 있다든가 장치는 집단농장제로 발전할 것이라든가 하는 말은 엄금되어 있었다. 이것은 공산당이 아직 모택동의 이른바 ‘필요한 조건’, 즉 대중에 대한 충분한 정치교육과 당의 역량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특히 대외적으로는 각 당파를 총망라한 ‘민주주의 통일전선’을 내세우고 토지개혁을 통일전선내의 제정당의 일치한 지지를 받는 하나의 진보적 사회개혁으로 부각하고, 이것은 공산주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듯이 선전하였다.

그리고 중요산업의 국유화 법령을 공포할 때도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로 설명되지 않았다. 소위 친일분자와 반동분자에 대한 애국적 경

---

81) 김일성, “북조선 민주주의 민족통일전선위원회 결성에 대한 보고”(1946년 6월 22일 북조선 민주주의 각 정당 사회단체 대표회의에서), p. 93.

각심을 촉구하는 내용의 연설을 하였다.<sup>82)</sup> 프롤레타리아 계급의식까지를 억제하도록 금욕을 발휘하였던 것이다.<sup>83)</sup>

그러나 6·25전쟁 이후에 농업협동화를 추진할 때는 1946년의 토지개혁이 “점차 사회주의적 협동경제로 발전할 수 있는 광활한 전망을 열어놓았다”고 회고하였다.<sup>84)</sup>

농민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주고, 농촌정리를 근본적으로 개조한 토지개혁을 실시하였다고 하여서 북조선에는 공산주의가 실시된다고 하는 것은 반동적 지주와 결탁된 민족반역자 친일분자들의 발악적 악선동에서 나온 잡꼬대rob에 간주할 수 없습니다.<sup>85)</sup>

김일성은 소련의 주도로 공산주의가 이식되고 있다는 여론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이를 부정하는 발언도 하였다.

인민위원회는 어떠한 외국의 정치적 간섭에 의하여 어떠한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정치형태가 아니라 조선인민의 창의에 의하여 해방직 후에 우리민족 자체가 창설한 조선해방의 산아입니다. 인민위원회는 쏘련군이나 미군이 조선에 진주하기 전에 벌써 조선인민의 창의로써 조직되었습니다. --- 오늘 이 해방의 산아가 우리 북조선에서 성장되고 있다고 해서 즉 진정한 인민위원회가 성장되고 고정화하였다고 해서 북조선에서는 공산주의가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외국의 반동

---

82) 김일성, “중요산업의 국유화는 자주독립국가건설의 기초”(산업국유화법령지지 평양시 군중대회에서 한 연설, 1946년 8월 10일), 『김일성저작집』2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p. 340.

83) 양호민, 『북한의 이데올로기와 정치: 인민민주주의혁명』 제2권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1972), p. 61.

84) 『조선통사』 (하), 1958년, p. 36.

85) 김일성, “8·15해방 2주년 기념보고,”(1947년 8월 14일 북조선인민회의 북조선인민위원회 북조선각정당 사회단체 평안남도 및 평양특별시 인민위원회 연합 8·15해방 2주년 기념대회에서), 『김일성선집』 제1권, p. 395.

적 정객들의 영향에 있는 조선의 민족반역자 친일분자들의 발악과 악몽에서 나온 잠꼬대로밖에는 간주할 수 없습니다.<sup>86)</sup>

김일성은 국유화에 대해서도 그 기도를 은폐하고자 하였다. 패망한 일제의 재산을 국유화하는 것이 당연시되었던 당시에 있어서는 공산주의자는 물론 민족주의자와 민주주의자의 불만을 살 하등의 이유도 없었다. ‘통일전선’의 논리에 의하여 소수와 공산당의 역량을 더욱 강화할 필요성에 당면했던 김일성은 ‘국유화’ 정책에 대한 이론적 해명에서 아직은 맑스-레닌주의의 이데올로기를 가능한 한 덮어두고, 모든 비공산주의자들까지 납득할 수 있는 초당파적 이데올로기를 택했던 것이다. 김일성은 산업국유화 법령의 원문이나 해설에서 국유화 정책을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와 연관시키지 않았음은 물론, 중요산업의 국유화로 북한에서는 공산주의가 실시되고 있다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도리어 최대의 비난을 퍼부었다.<sup>87)</sup>

산업국유화의 결과 우리 인민들은 스스로의 창조력을 더 한층 높이고 우리 조국의 빛나는 장래에 대해 확고한 신념을 가지게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그 결과로 민족경제의 토대가 구축되고 우리 조국이 부강한 자주독립국으로 되는 경제적 기초가 보장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북조선에서는 ‘공산주의’가 실시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 민족의 배반자, 우리 조국을 또다시 외국의 정치적 경제적 예속속에 넣으려는 민족반역자, 친일파들의 발악과 악선동에서 나온 잠꼬대로밖에는 간주할 수 없습니다.<sup>88)</sup>

86) 위의 글, p. 391.

87) 양호민, 「북한의 이데올로기와 정치: 인민민주주의혁명」, 제2권, p. 55.

88) 김일성, “8·15해방 2주년 기념보고,” (1947년 8월 14일 북조선인민회의 북조선인민위원회 북조선각정당 사회단체 평안남도 및 평양특별시 인민위원회 연합 8·15해방 2주년 기념대회에서), 「김일성 선집」, 제1권 (평양:조선로동당출판사, 1949), p. 398.

김일성이 1947년 2월 8일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성립 제1주년 기념대회에서 행한 연설에서도 당시의 지배 이데올로기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 이 연설에서 김일성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프롤레타리아 독재 등의 용어는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다.

김일성은 이 연설의 ‘북조선민주주의 건설의 당면과제’라는 소절에서 북조선 인민들은 장래 조선의 민주주의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는 토대를 만들기 위하여 엄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 과업을 위하여 무엇보다도 먼저 인민경제를 부흥발전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이를 위하여 앞에 놓여진 복잡하고 다대한 난관들을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 김일성은 인민경제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투쟁은 민주주의 민족통일전선의 공고한 토대 위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민주주의 통일전선 산하에 망라된 모든 정당 사회단체들의 튼튼하고 화목한 호상협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전체인민들의 단결된 역량을 강조하며 반면에 이를 파괴하려는 반동분자들의 책동을 경계하였다.<sup>89)</sup> 이러한 주장들에는 ‘사회주의’의 흔적은 전혀 표출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사회주의를 표면에 내세우지 않은 것이 김일성의 의도된 전략이었음이 김일성의 이후의 고백에서 사실로 드러났다.<sup>90)</sup> 1955년에 행해진 김일성의 연설에서 김일성은 그동안 자신이 사회주의를 표

89) 김일성, “조선정치 형세에 대한 보고,” (1947년 2월 8일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성립 제1주년 기념대회에서)

90) 김일성은 남침을 감행하였으나 미군이 참전하여 전세가 불리하여지고 북한만의 사회주의화가 불가피하게 된 상황이었다던 1952년 2월에 처음으로 북한이 추구하는 체제는 사회주의체제이며 맑스-레닌주의를 지배이념으로 채택하고 있음을 선언한 바 있다. 출처는 김일성, “현재단계 있어서의 지방정권기관들의 임무와 역할,” (도, 시, 군인민위원회위원장 및 당지도 일군 편석회의에서 한 연설, 1952년 2월 1일), 『김일성 저작집』 7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pp. 27-28을 볼 것.

면화하지 않고 감추어 놓고 있었던 것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였다.

우리가 해방직후에 조선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한다고 떠들었다면 누가 그것을 인정하였겠는가? 인민들은 우리의 곁에도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제국주의자들이 사회주의란 것은 한 이부자리를 쓰고 살며 한 가마 밥을 먹고 사는 것이라고 까지 악선전하였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을 고려하지 않고, 그때에 우리가 사회주의 구호를 들었다면 인민들은 무서워했을 것이며 곁에도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sup>91)</sup>

김일성의 이러한 일련의 태도를 통해서 볼 때 스탈린과 김일성이 남한의 공산화를 처음부터 계획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통일전선 형성을 통하여 남한까지를 병합하기 위하여 사회주의라는 말을 피하고 민주주의라는 이데올로기를 사용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사회주의라는 말을 쓰면 남한이 경계할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세력들을 포섭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었다.

## 인민민주주의

김일성은 정권초기에는 권력형태를 민주주의라고 칭하였으나 6·25 전쟁 이후인 1956년 무렵에 와서야 ‘인민민주주의’라고 고쳐 불렀다. 북한의 첫 ‘중앙주권기관’이라고 하는 1946년 2월의 북조선임시인민 위원회에 관해 김일성은 한국전쟁이후인 1956년 4월 23일 조선노동당 제3차대회에서 당시까지의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사회주의의 의미가 담긴 ‘인민민주주의’라고 처음으로 규정하였다.

91) 김일성, “사회주의 혁명의 현단계에 있어서 당 및 국가사업의 몇가지 문제들에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한 결론, 1955년 4월 4일), 「김일성 선집」 4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0), p. 258.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노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농동맹에 기초하여 국내의 광범한 반제반봉건적 민주주의 력량을 망라하고있는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에 립각한 인민정권으로서 인민민주주의 독재의 기능을 수행하였습니다. 이 인민정권의 혁명적성격과 그 기본과업들은 20개조정강에 뚜렷이 밝혀져있습니다.<sup>92)</sup>

그리고 김일성은 그 이후의 업적을 북한에 인민민주주의제도를 공고 발전시킨 것으로 주장하였다.

국내생활에서 당은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위하여 시종일관 꾸준히 투쟁하여 왔으며 공화국북반부에 수립된 인민민주주의제도를 백방으로 공고발전시켰습니다.<sup>93)</sup>

그러나 1946년 2월 임시인민위원회 당시에는 공산권에서는 아직 인민민주주의의 개념이 형성되지 않고 있었으며, 북한에서는 인민민주주의라는 용어조차 모르고 있었다.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수립되던 당시에는 인민민주주의라는 용어대신 ‘진보적 민주주의’, ‘신민주주의’, ‘진정한 민주주의’등 민주주의라는 이데올로기가 주로 사용되었다. 사회주의나 프롤레타리아 독재 등의 어휘는 일체 기피되었던 것이다.

소련권에서 인민민주주의라는 개념이 정착된 것은 1948년 12월이었는데 이 인민민주주의 개념마저 김일성은 북한에 사용하지 않았다. 사회주의권에서 전개되는 일체의 이데올로기적인 논쟁을 북한에 반영하지 않은 셈이다.

당시 사회주의권에서는 북한과 같이 새롭게 형성된 정권의 형태를 규정하기 위한 이데올로기적인 논쟁이 중요한 정치적 현안이었다. 제

92) 김일성, “조선로동당 제3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1956년 4월 23일), 『김일성 저작집』 제10권, 1980.

93) 위의 글.

2차대전 직후 동구 각국에서 수립된 정권들의 성격을 소련과 같이 ‘프롤레타리아 독재’라고 규정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첫째로는 이 지역에 수립된 정권들은 히틀러의 침략에 반대하여 투쟁한 사회민주당, 농민당 등 비공산주의 정치세력과 공산당과의 연립정권이었다. 헝가리, 체코 등의 국가에서는 노동계급의 대다수는 사회민주당의 조직 하에 있었으며, 헝가리, 폴란드, 불가리아 등의 국가에서는 농민들은 반공적인 농민당을 지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동구의 초기정권들을 소비에트 정권 또는 프롤레타리아 독재라고 규정할 수 없었다. 그렇다고 소련의 군사력을 배경으로 모스크바의 통일전선전략에 의해 수립된 정권들을 부르조아 독재라고 부를 수도 없었다. 그리하여 대전후의 특수한 정세 하에서 수립된 독특한 형태의 새 정권들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고 개념화할 것인가 하는 것은 맑스-레닌주의 이데올로기가 해야할 이론적 과제였다. 여기서 모스크바와 동구의 공산주의자들이 새로이 내세운 개념이 곧 인민민주주의이다.<sup>94)</sup>

인민민주주의에 관한 초기의 이론상의 공통점은 첫째로, 인민민주주의 제도가 프롤레타리아 독재도, 부르조아 독재도 아닌 제3의 형태 내지는 새로운 형의 정권이요, 소비에트제도와는 상이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얼마지 않아서 1948년 6월 티토의 유고슬라비아가 민족주의적 편향으로 몰려 코민포름에서 추방된 뒤 인민민주주의는 곧 프롤레타리아 독재로 재해석되었다. 1948년 12월 G. Dimitrov가 불가리아 노동자당 제5차대회에서 행한 연설에서 인민민주주의 정권은 노동계급의 지도하에 자본주의적 요소를 청산하고 사회주의경제를 조직하고 있는 단계에서는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해석한 이후 이것이 사회주의권의 공식 이론으로 된 것이다.<sup>95)</sup>

94) 양호민, 『북한의 이데올로기와 정치』 제2권, pp. 105-106.

그런데 당시 북한에서는 사회주의권에서 사용된 인민민주주의라는 개념은 1956년까지는 일체 사용하지 않았으며, 인민민주주의의 성격을 규정한 프롤레타리아독재라는 말도 일체 사용하지 않았다. 북한은 ‘반제 반봉건 민주주의 혁명’이란 개념만 사용하였고, 이 혁명이 사회주의 혁명을 지향한다는 말은 금기시하였다.

김일성은 ‘민주개혁’ 또는 ‘민주주의’ 개혁에 관해 논할 때 이것이 사회주의로 이행하기 위한 준비과정이라는 언급을 기피하고 숨기려 하였다. 통일전선 전술 하에서 비공산주의자들을 당분간 기만하면서 이용하는 것은 전술인 셈이다.

동유럽의 인민민주주의 제국을 언급할 때도 김일성은 이 나라들이 사회주의를 지향하고 있다거나 궁극적 목표는 사회주의를 지향한다는 말을 일체 회피하였다. 1952년 2월까지의 김일성의 연설에서 사회주의라는 용어는 찾아볼 수 없었다.

## V. 맑스-레닌주의가 북한체제 형성에 미친 영향

김일성의 최고지도자로서의 부상과 북한체제의 형성과정은 소련의 후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북한의 지배이념도 소련의 당시 지배이념이었던 맑스-레닌주의의 영향을 받았을 것임은 당연한 이치이다. 이장에서는 맑스-레닌주의가 북한체제의 형성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다.

### 1. 6·25전쟁과 북한만의 사회주의화

#### 가. 남한에 대한 통일전선 전술의 실패와 북한만의 사회주의화

사회주의가 공식 이데올로기로서 표면적으로 부상하게 된 것은 6·25전쟁이 한창이던 때임이 앞에서 지적되었다. 전쟁 중에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본격 등장시키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이 분석할 수 있다. 첫째, 미국이 한국전쟁에 참전함으로써 북한의 패색이 짙어지게 되자 다시 남한을 사회주의화시킨다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된 이상 이제는 원래의 계획대로 북한만이라도 사회주의화를 본격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는 전쟁기간동안 이데올로기의 혼란과 주민들의 사상혼란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사회주의를 사상교양의 핵심내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민주주의라는 이데올로기를 사용하는 남한과 구분되는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정식화함으로써 적과 이를 분명히 구분하여 사상적 통합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는 농업협동화 등 사회주의적 개조를 추진하기 위하여 사회주의라는 이데올로기가 필요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들 세가지 요

인을 자세히 살펴본다.

김일성이 대중연설에서 프롤레타리아 독재 개념을 중심으로 한 맑스-레닌주의를 처음으로 지배이념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1952년 2월이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맑스-레닌주의와 사회주의 개념을 쏟아내 놓기 시작하였다.

다 이는바와 같이 로동계급에 의한 정권쟁취는 프롤레타리아혁명의 시초일 따름입니다. 쓰딸린동지는 로동계급이 정권을 잡은 이후에 프롤레타리아독재는 자기앞에 제기되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 주요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첫째로 혁명에 의하여 전복되고 수탈된 지주와 자본가들의 반항을 분쇄하고 자본의 주권을 회복하려는 그들의 온갖 시도를 청산하여야 하며,

둘째로 모든 근로자들을 프롤레타리아트의 주위에 집결시키는 정신으로 건설사업을 조직하며 또 그 사업을 계급들의 청산과 폐절을 준비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여야 하며,

셋째로 외적들과 투쟁하기 위하여, 제국주의와 투쟁하기 위하여 혁명을 무장시키고 혁명의 군대를 조직하여야 한다.

우리 당과 인민정권은 쓰딸린동지가 지적한 이 원칙을 지침으로 삼았으며 또 삼고있습니다.<sup>96)</sup>

한창 전쟁 중이던 김일성은 6·25전쟁을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간의 전쟁으로 규정하여 주민들을 사상적으로 결집시키고자 한 의도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952년 말쯤에는 다른 사회주의국가들이 사회주의의 길을 선택한 만큼 북한도 사회주의의 노선을 선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사회주의를 주민들에게 설득하는 작업을 본격 시

---

96) 김일성, “현계단에 있어서의 지방정권기관들의 임무와 역할” (도, 시, 군인민위원회위원장 및 당지도 일군련석회의에서 한 연설, 1952년 2월 1일), 『김일성 저작집』 7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pp. 27-28.

작하였다. 아래의 연설문에 그러한 의지를 잘 읽을 수 있다.

쏘련공산당 제19차대회의 결정들과 쓰딸린동지의 현명한 지도에 고무된 쏘련인민은 공산주의건설의 웅대한 강령을 실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쏘련은 공산주의건설계획을 실현하면서 평화와 인민들간의 친선의 정책을 실시하고있습니다. --- 구라파와 아세아의 여러 나라들이 자본주의체제에서 떨어져나와 인민민주주의국가를 창건한 결과 쏘련을 선두로 하는 세계사회주의체제가 형성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평화와 민주주의 력량을 비상히 강화하였으며 미제국주의자들을 괴수로 하는 전쟁과 제국주의반동 세력을 현저히 약화시켰습니다.

사회주의의 길에 들어선 인민민주주의국가들은 쏘련과 함께 지난 한해에 새생활의 건설에서 커다란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이 나라들의 근로대중은 오직 사회주의의 길로 나아갈 때에만 매개 나라들이 부단한 경제적 양양을 이룩할 수 있다는 것을 자체의 경험을 통하여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사회주의가 억압과 착취를 당하던 근로대중을 자기 운명의 완전한 주인으로, 력사의 자각적 창조자로 전변시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sup>97)</sup>

1955년에 들어서는 레닌의 학설을 본격 소개함으로써 북한은 레닌의 학설에 입각하여 새생활을 창조하는 길에 있다고 선언함으로써 북한의 지배이념이 맑스-레닌주의임을 밝혔다.

레닌의 이름은 모든 인민들에게 있어서 무한히 고귀하다. 레닌의 학설은 인류사회발전의 성숙된 요구와 피착취, 피압박 인민대중의 리익과 희망과 지향을 반영하였으며 압박받고 착취받는 인민들에게 해방투쟁의 승리의 길을 가리켜주었으며 그들을 민족적 및 사회적 해방을 위한 결정적 투쟁으로 고무하였다. --- 맑스와 엥겔스의 기본명제에 립각하여 레닌은 새로운 력사적환경, 제국주의시대의 민족

97) 김일성, “당의 조직적 사상적 강화는 우리 승리의 기초,”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5차전원회의에서 한 보고, 1952년 12월 15일), 『김일성 저작집』 7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pp. 385-386.

및 식민지 문제에 관한 과학적리론을 내놓았다. 그것은 레닌주의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다.

오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몽골인민공화국, 월남민주공화국 인민들도 레닌의 불패의 학설에 립각하여 새생활을 창조하는 길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고 있다.<sup>98)</sup>

레닌의 이론을 본격 소개하기 시작한 시점에서는 김일성은 왜 정권 시작부터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드러내지 않고 숨겨왔는지를 실토하기도 하였다. 김일성은 북한의 지배이념이 처음부터 사회주의였는데 처음부터 사회주의를 표방하지 않은 것은 통일전선전술을 통하여 남한까지 영향권내로 포섭한 뒤에 추진하기로 계획하였다고 발언하였다.

우리가 해방직후에 조선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한다고 떠들었다면 누가 그것을 인정하였겠는가? 인민들은 우리의 곁에도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제국주의자들이 사회주의란 것은 한 이부자리를 쓰고 살며 한 가마 밥을 먹고 사는 것이라고 까지 악선전하였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을 고려하지 않고, 그때에 우리가 사회주의 구호를 들었다면 인민들은 무서워했을 것이며 곁에도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sup>99)</sup>

자신이 사회주의를 주장하지 않고 지금까지 반제 반봉건 민주주의를 주장한 것이 통일전선 전술 차원이었음을 시인한 셈이다. 당시까지 김일성은 통일전선 전술이라는 말은 많이 사용하였다.

전쟁 전에는 남한을 통일전선전술로 점령하기 위하여 사회주의를

98) 김일성, “레닌의 학설은 우리의 지침이다,” (레닌 탄생 85돐에 즈음하여 발표한 론설 1955년 4월 15일), 『김일성 저작집』 9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pp. 316-317.

99) 김일성, “사회주의 혁명의 현단계에 있어서 당 및 국가사업의 몇가지 문제들에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한 결론, 1955년 4월 4일), p. 258.

김춘데 반하여, 전쟁이후에는 북한에 사회주의 기지를 먼저 건설한 이후 남한을 사회주의화시켜야 한다는 논지로 북한의 사회주의화를 강조하였다.

현단계에서 우리 혁명의 기본 임무는 미제국주의 침략세력과 그 세력을 부식하며 그 동맹자로 되고 있는 남반부의 지주, 예속자본가, 친일친미파, 민족반역자들을 타도하고 남반부 인민들을 제국주의적 및 봉건적 압박과 착취로부터 해방함으로써 조국의 민주주의적 통일과 완전한 민족적 독립을 달성하는데 있다. --- 그러기 위해서는 북반부에서 혁명을 더욱 전진시켜 사회주의 기초 건설을 위한 과업들을 철저히 수행해야 한다. ---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은 남반부 인민들, 특히 노동자, 농민과 광범한 소자산계급에게 커다란 추동력으로 될 것이며 심지어 남반부의 일부 민족자본가들과의 통일전선의 결성을 방조하는 힘으로 될 것입니다.<sup>100)</sup>

김일성은 1955년 4월에 이르러서는 이제 당의 강령을 사회주의로 수정해야 한다고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우리당 강령에는 우리의 최종목적이 서술되어 있지 않습니다. 1946년 우리가 (20개조) 당 강령을 채택할 당시에는 우리나라의 모든 사정으로 보아 그렇게 서술하는 것이 필요하였으며 또 적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에 와서는 우리 당이 자기의 강령에 조국의 통일독립을 달성할 데 대한 과업만 지적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나라를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로 인도해야 한다는 당의 최종목적까지 지적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946년에 작성한 우리 당 강령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때 형편에서는 그렇게 서

100) 김일성, “모든 힘을 조국의 통일 독립과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을 위하여,” (우리 혁명의 성격과 과업에 관한 테제, 1955년 4월), 『김일성 선집』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0), pp. 199-201.

술하는 것이 옳았습니다.<sup>101)</sup>

#### 나. 전쟁중 사상교양 사업의 이데올로기로서의 맑스-레닌주의

한국전쟁을 치르면서 김일성은 공산정권에 대한 북한주민의 지지가 결코 높지 않았음을 깨달았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전쟁시 북한에 진주한 한국군과 유엔군에 대해 북한의 도시 근로대중과 농민들이 마음으로부터 환영하고 협력했다는 것, 수백만의 주민들이 유엔군 후퇴시 이들 뒤를 따라 황급히 남하했다는 것, 국제연합군과 한국군이 북상했을 때 북한주민의 다수가 이들을 환영했을 뿐만 아니라 북한군이나 당원의 색출을 적극적으로 도운 것 등은 김일성으로 하여금 주민통제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했을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현상은 김일성 정권에 대한 큰 위협이 아닐 수 없었다.<sup>102)</sup>

또한 한국전쟁이 야기시킨 중요한 사회적 결과의 하나는 북한주민의 사회정치적 구성이 매우 복잡하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지리적으로 이동이 심했을 뿐만 아니라 남한으로 가족이 월남한 경우, 남한에서 월북한 경우, 전쟁 중에 남한편에 가담한 사람, 북한편에 가담한 사람, 전쟁 중에 가족이 사망하는 상처를 입은 경우 등 무수하게 복잡한 경우가 많아졌다. 따라서 각계 각층의 인민들을 하나의 조직과 이념 속으로 통합하는 작업이 급선무로 대두한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김일성정권은 정치교회사업을 철저히 벌여나가기 시작하였다. 한국전쟁이 3·8선을 중심으로 교착상태에 있던 무렵부터 김일성은 주민의 사상통제를 본격 추진하기 시작했다. 1952년 12월

101) 김일성, “사회주의 혁명의 현단계에 있어서 당 및 국가사업의 몇가지 문제들에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한 결론, 1955년 4월 4일), p. 259.

102) 김학준, 『한국전쟁』 (서울: 박영사, 1989), p. 354.

15일에 열린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5차회의에서 행한 보고 <당의 조직적 사상적 강화는 우리 승리의 기초>라는 문헌<sup>103)</sup>이 발표되었고, 이것은 휴전 직후부터 ‘당중앙위원회 제5차전원회의 문헌 재토의 사업’이라는 명칭으로 사상교양의 교재로 사용된 것이다. 이것이 북한에서 오늘날과 같은 사상교양 정책이 시작된 시발점이기도 하다.

사상교양 사업은 우선 남한을 경계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일성이 계급투쟁을 강조할 때는 언제나 대한민국의 존재를 의식했고 이것과 관련하여 북한의 사회적 불안을 논했던 것이다.<sup>104)</sup> 또한 6·25전쟁을 치르면서 사상적으로 혼란스런 상황을 경험한 김일성으로서 사상통일을 위해서는 자본주의 잔재를 청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듯하다.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김일성이 지적한 바와 같이 북한에서는 사회주의 경제, 자본주의경제, 소상품경제가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상적 통일이 급선무였던 것으로 보인다.<sup>105)</sup>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기초건설을 성과있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전체 우리 당원들을 맑스-레닌주의적 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며 그들의 계급적 각성을 높임으로써 그들을 근로대중의 선두에서 투쟁하는 철저한 혁명투사로 단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당원들과 근로대중을 선진적 맑스-레닌주의 사상으로 무장시키지 않고서 그리고 넓은 사상에서 넘겨받은 자본주의적 사상잔재를 사람들의 머리에서 청산하지 않고서는 새 사회를 성공적으로 건설할 수 없습니다.<sup>106)</sup>

103) 김일성, “당의 조직적 사상적 강화는 우리 승리의 기초,”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5차전원회의에서 한 보고, 1952년 12월 15일).

104) 양호민, 『북한의 이데올로기와 정치』, p. 212.

105) 김일성, “모든 힘을 조국의 통일 독립과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을 위하여”(우리 혁명의 성격과 파업에 관한 테제, 1955년 4월), p. 202.

106) 김일성, “농촌경리의 급후 발전을 위한 우리당의 정책에 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한 결론, 1954년 11월 3일),

김일성은 맑스-레닌주의적 교양 사업을 진행할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몇가지로 강조하였다. 첫째, 외부적인 적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적이 사회주의건설에 지장을 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적들과 장기간 대치하여 있고 내부에 자본주의적 요소들이 아직 남아있는 조건하에서 적들이 무력 침범의 기도를 계속 버리지 않고 있을 뿐만아니라 북반부에 잠재하고 있는 반동요소와 결탁하여 각종 파괴 암해 행동을 획책하는 조건하에서 사회주의 건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공화국 북반부에서 실시된 민주개혁의 결과 청산된 지주계급과 예속자본가, 친일분자, 민족반역자 기차 반동분자들은 과거의 자기 처지를 회복하려는 망상을 버리지 않고 있으며 자기의 착취적 본성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오래동안에 걸쳐 부식된 낡은 사회의 사상잔재, 습관, 전통들은 우리 인민대중의 머리에서 아직 완전히 청산되지 않은 채 남아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사회주의 건설에 지장을 주는 것들이며, 그것은 공개적으로 또는 비공개적으로,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정치, 경제, 문화의 각 분야에서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sup>107)</sup>

둘째, 지난 기간 북한 역사 발전의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당의 기본 군중인 노동자, 농민들의 계급적 각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였고 맑스-레닌주의 사상 교양으로 이를 보완하고자 하였다.

셋째, 과거 일본제국주의자들이 혁명적 맑스-레닌주의 사상과 이론에 대하여 악랄한 허위선전과 중상과 비난을 하였었는데 일제의 이러한 반동 선전의 독소는 오늘날까지 북한 인민대중의 머리에서 완전히 청산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넷째, 북한의 맑스-레닌주의 당의 역사가 짧고 그 질적 구성이 아

(『김일성 선집』 4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0), p. 218.

107) 김일성, “당원들의 계급교양 사업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한 보고, 1955년 4월 1일), (『김일성 선집』 4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0), p. 219.

직 낮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사상교양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sup>108)</sup>

반미주의도 매우 중요한 소재로 사용되었다. 북한은 ‘미군의 재침’의 가능성을 강조하면서 ‘미제와의 끊임없는 투쟁’을 위해 주민들은 언제나 깊은 경각심을 가질 것을 요구했다. 아래의 인용이 이 사실을 잘 예시하여 준다.

오랫동안 외래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압박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민의 사상의식은 대단히 나쁜 영향을 받았습니다. 근 40년동안에 걸친 일제의 통치는 많은 조선사람들의 의식을 중독시켰으며 조국해방전쟁의 일시적 후퇴시기에 비록 짧은 동안이나 미국놈들은 우리사람들의 머리속에 사상적 독소를 뿌려놓아 많은 사람들을 못쓰게 만들었습니다.<sup>109)</sup>

계급교양의 기본방향과 대책으로 김일성이 제시한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맑스-레닌주의 학설과 제원칙을 북한의 구체적인 현실과 결부하여 연구할 것이며 당원들에 대한 계급교양 사업을 북한의 생동한 현실생활과 실지 투쟁을 통하여 진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둘째, 당원들을 맑스-레닌주의 사상으로 교양하여 그들이 자연과 사회에 대한 유물변증법적 세계관을 확립하도록 하며 사회주의 혁명의 최후 승리에 대한 신심을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러기 위하여 매개 당원들에게 자연과 사회 발전의 일반적 합법칙성을 명확히 인식시키며 특히 자본주의하에서의 계급투쟁의 본질과 자본주의와 제국주의의 불가피한 멸망 그리고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필연

108) 위의 글, pp. 219-223.

109) 김일성, “당사업에서 주되는 것은 모든 사람을 교양하고 개조하여 단결시키는 것이다” (1961년 1월 23일, 평양시 송호구역 리현리당 총회에서 한 연설) 『김일성저작집 15』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pp. 15~16.

적 승리에 관한 과학적 지식으로 그들을 무장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sup>110)</sup>

요약컨대 6·25전쟁이 야기한 사회혼란이 북한의 맑스-레닌주의 사상을 강화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남한이 6·25 전쟁이후 반공사상이 강화된 것과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 다. 농업협동화의 이데올로기로서 사회주의

사회주의 이념의 동원과 더불어 생산수단의 사회주의적 개조가 뒤따랐다. 김일성은 6·25전쟁을 치르면서 사상적으로 혼란해지자 농민들의 반항이 더 심화된 것을 느끼게 되었고 농민들을 장악하기 위해 서라도 농업협동화가 절실히 필요했던 것이다. 김일성이 농업협동화를 단행해야 했던 더욱 직접적인 계기의 하나는 북한 농민들이 국가에서 시행한 양곡수매 사업을 거부한 사건이다. 북한은 토지개혁 이후 그리고 전쟁 이후 국가적인 양곡수매사업을 1954년에 처음으로 실시하였다. 당시 북한은 양곡이 유일한 부의 원천이었기 때문에 양곡을 누가 장악하느냐가 누가 권력을 장악하느냐와의 문제였다. 양곡을 국가가 소유해야 국가가 노동자와 농민, 인텔리를 장악할 수 있었던 것이다. 특히 농민들이 부농화되어 기득권이 강화되면 농민이 새로운 사회세력으로 등장하게 된다. 지배계급이 사회적 권력까지 독점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또한 김일성이 “국가적인 양곡수매사업은 올해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이며 이 사업을 잘하는 것은 전후복구건설을 성과적으로 보장하며 인민생활을 안전향상시키는 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라고 선언한데서 드러나듯이 전후복구의 재원마련

110) 김일성, “당원들의 계급교양 사업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한 보고, 1955년 4월 1일), p. 232.

을 위하여서도 양곡수매사업이 절실하였던 것으로 보인다.<sup>111)</sup>

1954년부터는 농촌의 ‘사회주의적 개조’라고 불리는 집단농장이 조직되기 시작하였다. 김일성은 1954년 11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농업협동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농촌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본격적으로 거론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토지소유욕이 강했던 북한 농민들이 농업협동화에 대하여 찬성할 이유가 없었다. 자기 땅을 가지고 자기 재량으로 생산물을 처분하는 것이 농민들의 숙원이었다면 농민의 손에서 도로 땅을 빼앗아 가는 것은 농민들에게는 엄청난 좌절임에 틀림없다. 농민들의 반발이 광범위하게 나타났다. 농업협동화에 대하여 농민들 사이에 많은 반발이 있었으며 그것에 대하여 ‘치열한 계급투쟁’이 있었음을 김일성의 연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치열한 계급적 투쟁이라는 말속에는 자기 소유의 땅을 국가가 빼앗아간다는 것에 대한 농민들의 분노가 표출되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어로 이행하는 력사적 행정은 치열한 계급투쟁을 동반합니다. 쓰딸린이 말한 바와 같이 죽어가는 계급이 자발적으로 력사무대에서 물러간 일은 일찌기 없었으며 죽어가는 부르쵸아지가 자체의 생존을 고수하기 위하여 마지막 발악을 하지 않은 경우는 아직도 력사에 있어본 일이 없습니다. 공화국 북반부에서 민주개혁의 결과 청산된 지주계급과 예속자본가, 친일분자, 민족반역자 기타 반동분자들은 과거의 자기 처지를 회복하려는 망상을 버리지 않고 있으며 자기의 착취자의 본성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sup>112)</sup>

111) 김일성,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제30차전원회의에서 한 결론 (1954년 8월 23일),” 『김일성 저작집』9권 (평양: 조선노동당출판사), p. 83.

112) 김일성, “당원들속에서 계급교양사업을 더욱 강화할 데 대하여” (로동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한 보고, 1955년 4월 1일), p. 249.

실제로 계급투쟁과 저항이 완강하였다. 주로 부농과 중농들의 저항이 더 컸다. 이유는 무엇보다도 토지의 개인소유를 포기하기 어려운 농민들의 속성과 경제적 이해관계 때문이었다. 저항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났다. 우선 자원적 원칙에 의하여 조합에 가입한다는 정부 방침을 이용하여 조합가입을 주저하거나 거부하는 사례가 많았다. 황해남도 신천군의 한 빈농 과부는 토지개혁 때 받은 토지에 대한 애착 때문에 초기에 조합가입을 주저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토지개혁 때 남편과 함께 패말을 쫓고 기뻐하던 땅, 영원히 자기소유로 습관이 되어 온 그 땅, 그 땅이 비록 남의 땅보다 유독 좋아서가 아니지만 그 땅을 내놓을 마음은 도저히 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가 조합 가입에 주저한 또 다른 이유는 조합경영이 잘 될 것인가에 대한 우려, 그리고 남남끼리 모여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불신 때문이다.<sup>113)</sup>

농업협동화 과정에서도 농민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개인의 이익을 고수하고자 하는 여러가지 편법행위들이 나타났다. 이런 사실들은 농업협동화에 대해서 북한주민들은 전반적으로 저항적이었으며 가능하면 협동화과정에 개인이익을 확보하려는 최후의 인간힘을 다한 분위기였다.<sup>114)</sup>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주의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이념적 명분으로 주장되었다. 농업협동화를 해야 하는 명분으로서 김일성은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유를 주로 제시하였다. 김일성은 북한의 경제는 세 개의 경제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았는데 첫째로는 사회주의적 국영경제이며, 둘째로는 사회주의적 혹은 반사회주의적 성격을

113) 조근원, “새날을 위한 애국렬사 가족들의 첫봉화,” 『농업협동화운동의 승리 (1)』, p. 84.

114) 자세한 분석은 서재진, “북한의 토지개혁과 농업협동화 이후 농민들의 의식변화,” 『현대북한연구』, 5권 1호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2002) 참조.

떤 협동경제이며, 셋째로는 자본주의적 및 소상품적 경제인 개인 경제라고 분류하였다. 생산성을 올리기 위해서는 공업과 농업에서 사회주의적 성분을 점차로 확대하며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농촌에서 사회주의적 농업협동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115)</sup>

이러한 입장이 농민들에게 잘 수용되지 않자 김일성은 농촌에서 모자라는 노동력과 축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농업을 협동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기까지 하였다.

지난 3년동안이나 계속된 전쟁 때문에 농촌에서는 로력이 매우 부족합니다. 농촌의 많은 청년과 장년들이 군대에 나갔기 때문에 농촌 로력의 다수는 부녀자와 늙은이들이라고 주장. <sup>116)</sup>

김일성은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하여 비교사회주의적 시각을 동원하기도 하였다. 북한이 사회주의체제를 추구한다면 소련 등의 다른 사회주의국가에서 했던 것처럼 맑스-레닌주의에 의거하여야 하며, 생산수단의 국유화를 위하여 농업협동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논지를 폈다. 사대주의를 경계하고 주체를 확립해야 한다는 연설을 했던 그해에 김일성은 소련의 경험을 따라서 배워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던 것이다.

전체당원들은 맑스-레닌주의 이론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며 우리당의 력사와 당의 결정들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며 쏘련 공산당을 비롯한 형제나라 공산당 및 로동당들의 사회주의 건설 경험을 진지하게 연구 섭취하여야 할 것입니다.<sup>117)</sup>

115) 김일성, “농촌경리의 금후 발전을 위한 우리당의 정책에 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한 결론, 1954년 11월 3일), p. 178.

116) 위의 글, p. 181.

117) 김일성, “모든 힘을 조국의 통일 독립과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을 위하여,” (우리 혁명의 성격과 과업에 관한 테제, 1955년 4

이처럼 북한은 사회주의 이데올로기가 본격적으로 동원되면서 북한은 공업과 농업 등 전 산업에서 생산수단의 사회주의화를 1958년까지 마무리 지었다.

## 2. 프롤레타리아 독재이론과 북한의 통치양식: 유일체제와 수령제

### 가. 프롤레타리아독재론에 대한 북한의 인식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중간에는 하나의 과도기가 놓여있고 이 과도기 정권의 본질이 프롤레타리아 독재라는 규정은 맑스-레닌주의의 혁명이론에서는 핵심적 명제로 제기되어 왔다. 1871년에 프롤레타리아트의 대중적 혁명운동(파리코뮌)이 발발했을 때, 맑스는 그 혁명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또한 그것이 단명했고 명백한 취약성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혁명과정을 통해서 그것이 발견한 정치형태를 연구하기 시작하였던 데서 그 논의는 시작되었다. 파리 코뮌은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부르조아 국가기구를 분쇄하려는 최초의 시도이기 때문이다. 또한 그것은 분쇄된 국가기구를 대체할 수 있고, 대체해야 하는 ‘마침내 발견된’ 정치형태인 것으로 맑스는 보았다. 맑스는 사회주의와 정치투쟁의 전 역사를 통해서 국가는 소멸되기 마련이며, 그것의 소멸의 과도기적 형태는 지배계급으로 조직된 프롤레타리아트 독재일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해내었다.<sup>118)</sup>

이러한 입장을 맑스는 그의 『고타 강령 논평』(1875)에서 “자본주의 사회와 사회주의 사회 사이에는 전자의 후자로서의 혁명적 전환의

---

월), p. 212.

118) V. I. 레닌, 『국가와 혁명』, (강철민 옮김, 서울: 도서출판 새날, 1991), p. 76.

시기가 가로 놓여있다는 것, 그리고 이 시기는 정치상의 과도기에 해당하며, 그 국가는 프롤레타리아의 혁명적 독재에 지나지 않는다”고 간단한 설명을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언급 때문에 맑스의 사후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개념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맑스주의자들은 세기적 논쟁을 일으켰다. 그런데 맑스의 이 고전적 명제에 대하여 러시아의 레닌과 스탈린에 의하여 부르조아지에 대한 ‘폭력적 억압’의 측면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재해석되었다. 즉, 레닌은 자본주의에서 공산주의에로의 과도기에는 다양한 정치형태가 나타나지만 “그 본질은 오직 하나, 프롤레타리아독재일 것이다”라고 단정하고 이것은 부르조아지를 억압하기 위한 폭력조직이라는 점을 역설하면서 맑스주의를 단순히 계급투쟁의 이론에다 국한시키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며 계급투쟁의 시인을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시인으로까지 확장하는 사람만이 맑스주의자라고 했다.

레닌이 10월혁명 후 러시아에 수립한 소비에트제도를 맑스가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전형으로 보았던 파리코뮌과 동일시한 이후로는 “프롤레타리아독재 = 소비에트제도”라는 등식이 공산주의자들간에 통용되었고, 이것은 스탈린에 의하여 계승되었던 것이다.<sup>119)</sup>

북한에서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개념을 처음으로 사용한 시기는 한국전쟁중인 1952년 2월이었음을 앞에서 지적하였다. 이후 김일성은 프롤레타리아독재의 개념에 대해서는 1956년경부터 본격적으로 거론하기 시작하였는데 북한에서는 주로 권력투쟁의 도구로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소련의 경우와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아래의 연설에서 반종파분자들을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대상으로 지적한 것을 볼 수 있다.

우리는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 넘어가는 과도기의 혁명임

119) 양호민, 『북한의 이데올로기와 정치』, p. 105.

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치열한 계급투쟁의 환경속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계급적 원수들에게 자비심을 베푸는 것은 혁명가의 태도가 아닙니다. ‘준법성’이니 뭐니 하고 떠들어대는 것은 우리 국가의 프롤레타리아 독재기능을 약화시키기 위한 반당반혁명 종파분자들의 책동입니다.<sup>120)</sup>

북한이 1956년부터 프롤레타리아독재의 개념을 전면에 내세워 본격적으로 활용한 것은 1956년 8월 종파사건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8월종파사건을 계기로 김일성의 정적들이 전면에 드러나게 되자 이들을 숙청한 이후 일반주민들 중에서도 김일성과 그 지도부를 반대하는 세력들을 통제할 수 있는 이념적 도구로서 프롤레타리아독재의 개념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맑스주의의 적들을 척결하는 하는 것은 프롤레타리아독재의 필연성”이라는 논리 하에 맑스-레닌주의를 권력투쟁을 정당화하는 이론으로 활용하였다.

맑스주의의 적들은 맑스-레닌주의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인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어로 이행하는 시기에 있어서의 프롤레타리아독재의 역사적 필연성을 부인하며 맑스-레닌주의당의 지도적 역할을 부인하여 나섰습니다.<sup>121)</sup>

프롤레타리아독재의 개념이 김일성의 권력강화에 활용된 것은 1967년에 이르러 더욱 적극화된다. 1967년이라는 시점은 갑산파를

120) 김일성, “사회주의건설에서의 혁명적 대고조를 일으키기 위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한 결론, 1956년 12월 13일), 『김일성저작집』 제10권, pp. 412-413.

121) 김일성, “사회주의진영의 통일과 국제공산주의 운동의 새로운 단계,”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확대전원회의에서 한 보고, 1957년 12월 5일), 『김일성저작집』 제11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p, 410.

속청하고 김일성 권력의 유일독재를 확립한 시점이라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개념이 자신의 권력투쟁과 사회통합에 유용한 도구임을 인식한 김일성은 본격적으로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개념을 체계화한 연설을 발표하였다. 김일성은 1967년 5월 25일의 연설이 그것이다.<sup>122)</sup>

김일성은 무엇보다도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개념에서 ‘과도기에 사용되는 통치형태’라는 주장을 어떻게든 수정하여 영속적으로 통치의 도구로 활용하는데 가장 큰 관심을 보였던 것으로 보인다.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개념은 독재체제에서 매우 유용한 이론적 도구이기 때문이다.

과도기를 사회주의제도의 승리까지로 보는 것은 국내적으로는 전복된 착취계급 잔여분자들과의 계급투쟁을 그만두고 국제적으로는 제국주의와 평화적으로 살면서 세계혁명을 하지 않으려는 사상관점에서 나온 것입니다. 더구나 과도기가 끝나면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없어진다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될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근본적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과도기를 이와 같이 규정하여야 한다면 프롤레타리아 독재 문제는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우에서 말한바와 같이 고전가들은 과도기와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상응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나라에서 무계급사회가 실현되고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가 이루어지면, 다시말하여 과도기의 임무가 완수되면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더는 필요없게 될 것입니까? 절대로 그렇게 말할수 없습니다.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과도기의 전기간에 있어야 할것은 더 말할것도 없고 과도기가 끝난다음에도 그것은 공산주의의 높은단계까지 반드시 계속되어야 합니다.

맑스는 이러한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에서 프롤레타리아트가 주권을 잡은 다음 사회주의로 넘어가는 과도적단계를 비교적 짧은 기간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다시말하면 사회에는 자본가계급과 노동계급

122) 김일성,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와 프롤레타리아 독재 문제에 대하여” (당사상사업부문일군들앞에서 한 연설 1967년 5월 25일), 『김일성저작집』 21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의 두 계급밖에 없기 때문에 사회주의혁명에서 자본가계급을 때려부시고 그 소유를 수탈하여 전인민소유제로 만들기만 하면 과도기의 임무를 비교적 짧은 기간에 수행할수 있고 공산주의의 높은 단계로 빨리 갈 수 있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결코 맑스가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단계를 거치지 않고 직접 공산주의로 갈 수 있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생산력이 높이 발전되고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 차이가 없다 하더라도 착취계급의 잔여세력을 청산하며 사람들이 머리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 잔재를 없애기 위한 과도기의 임무는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째로 반드시 이 점을 고려하여야 합니다.<sup>123)</sup>

나아가서 1968년 북한 정권수립 20주년 기념연설에서 김일성은 북한의 역사를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강화하는 역사로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김일성은 당시까지 북한의 역사를 3단계로 나누고 제1단계를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제2단계를 북조선인민위원회, 제3단계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설립으로 보았으며 2단계인 북조선인민위원회를 최초의 프롤레타리아독재 정권이라고 규정하였다.

제1단계인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농동맹에 기초하여 광범한 반제반봉건적 민주역량을 망라하고있는 민주주의 민족통일전선에 의거한 인민정권으로서 인민민주주의독재의 기능을 수행하였다고 보았다. 이 정권 앞에 나선 기본과업은 조국광복회10대 강령과 20개조정강을 실현함으로써 반제반봉건적 민주주의혁명과업을 완수하며 북반부에 혁명적 민주기지를 창설하는데 있다는 것이다. 김일성에 의하면 민주개혁을 실시하여야만 지주, 예속자본가를 비롯한 반동계급들의 경제적 기초를 없애고 사회적 진보를 위한 넓은 길을 열어놓을 수 있었으며 인민정권의 사회경제적 기반을 튼튼히 하고 북반부를 강력한 혁명적 민주기지로 전변시킬 수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

123) 위의 글.

2단계인 북조선인민위원회는 1단계에서 민주주의혁명이 완수됨에 따라 북반부에서는 점차 사회주의혁명에 넘어갈 수 있는 조건이 이루어졌다고 보았다. 이로부터 북한은 북한혁명의 무기인 인민정권을 사회주의혁명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맞게 더욱 발전시킬 과업을 내놓았는데 그리하여 첫 민주선거를 실시하고 북조선인민위원회를 창설하였다. 이것은 북한에 탄생된 첫 프롤레타리아 독재정권이었다고 선언하였다. 북조선인민위원회는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의 강력한 무기로써 점차 사회주의에 넘어가는 과도기의 임무를 수행하여 인민경제를 계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투쟁하였다고 주장하였다.

3단계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창건이후 프롤레타리아독재의 기능을 끊임없이 강화하면서 당이 내세운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분야의 모든 혁명과업을 빛나게 수행하여왔다고 보았다.<sup>124)</sup> 이런 맥락에서 보면 김일성은 프롤레타리아 독재와 노동당의 영도적 역할을 동일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나. 프롤레타리아 독재론과 북한의 유일체제 및 수령제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 이행하는 과도기에 일시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개념지어졌던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독재자에게는 무소불위의 이념적 도구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김일성 정권에게는 매우 편리한 이론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서 이 개념은 북한 조선노동당의 독재, 나아가서 김일성 개인의 독재로 변용되었다. 또한 1967년 이후 추진된 유일사상체제의 이론으로도 활용되었다. 다시말하여 프

124) 김일성,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스무돛기념 경축대회에서 한 보고, 1968년 9월 7일), 『김일성저작집』, 22권, p. 419.

롤레타리아 독재의 개념을 수령의 유일적 영도체계의 개념으로 개칭한 셈이다. 맑스-레닌주의를 폐기하고 대안으로 제시된 주체사상 이론서에서조차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개념은 온존된 채 북한의 수령체를 설명하는 개념으로 활용되고 있다. 아래의 「주체사상 총서」 인용문은 ‘수령의 유일적 영도’의 개념을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이론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수령의 유일적 영도는 프롤레타리아독재체계를 통하여 실현된다. 프롤레타리아독재체계는 수령을 중심으로 노동계급의 당과 정권기관, 근로단체들로 이루어진다. 프롤레타리아독재체계는 혁명과 건설 전반에 대한 수령의 유일적 영도를 보장하기 위한 조직지도체계이며 영도체계이다. 수령의 유일적 영도를 보장하기 위한 영도체계인 프롤레타리아독재체계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노동계급의 당이다.<sup>125)</sup>

북한의 노동당은 노동계급인 프롤레타리아의 당이므로 노동당은 프롤레타리아를 지배하는 이론으로 비약되었다. 즉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집단주의적 지도체제의 개념인데 이는 북한에서는 당이 대체한 것이다.

당은 근로대중의 모든 조직들 가운데서 지도적 지위에 있는 최고의 조직으로 되며, 프롤레타리아독재체계의 다른 모든 조직들,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를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는 혁명의 참모부로 된다.<sup>126)</sup>

그리고 수령은 당 위에 군림하게 되었다. 결국 프롤레타리아 독재라는 집단지도체제는 수령의 개인의 독재로 변형되었다.

125) 사회과학출판사 편, 「영도체계」(주체사상총서9), p. 110.

126) 위의 책, p. 112.

수령의 유일적 영도체계는 수령의 혁명사상을 유일적 지도적 지침으로 하여 혁명과 건설을 수행하며 수령의 명령, 지시에 따라 전당, 전국, 전군이 하나와 같이 움직이게 하는 영도체계이다. 다시말하여 그것은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오직 수령의 사상과 의도대로만 풀어나가며 프롤레타리아독재체계의 모든 조직기구들과 거기에 망라되어 있는 모든 성원들이 수령의 유일적 영도밑에 하나의 유기체와 같이 움직이며 수령의 의도와 명령, 지시를 무조건 접수하고 끝까지 관철해 나가게 하는 영도체계이다.<sup>127)</sup>

요약컨데 맑스-레닌주의의 프롤레타리아독재의 개념은 북한에서 수령의 유일적 영도개념을 정당화하는 이론으로 활용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 3. 레닌의 전위당 이론과 북한의 일당독재

북한의 일당 독재체제를 정당화한 것은 레닌의 프롤레타리아독재 뿐 아니라 레닌의 전위당 이론이 더욱 적극적으로 가세하였다. 북한을 비롯한 사회주의 체제에서 1당으로의 권력집중이 제도화하게 된 것은 당의 전위적 역할에 관한 레닌의 이론과 실천에서 비롯되었다.

당의 전위적 역할에 대한 레닌의 입장은 러시아혁명 당시의 ‘경제주의’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정립되었다. 경제주의자들은 사적 유물론을 해석함에 있어서 노동자의 혁명적 의식이 발달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경제적 조건이 성숙해야 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레닌은 노동자를 혁명적으로 의식화시키는 것은 사회적·경제적 조건이 아니라 당의 전위적 역할이라고 보았다.<sup>128)</sup>

---

127) 위의 책, p. 79.

128) Ralf Miliband, *Class Power and State Power* (New York: Verso, 1983), pp. 161~62; Leszek Kolakowski, *Main Currents of Marxism, 2-The Golden Ag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78), pp.

레닌은 자발적인 노동계급운동은 자연발생적인 상태로 방치되면 결국은 부르조아 이데올로기에 봉사하게 되며 노동조합은 부르조아지가 노동자들을 이데올로기적으로 노예화하는 수단이라고 보았다.<sup>129)</sup> 노동자들은 노동력을 더 좋은 조건에 팔기 위하여 투쟁을 하기는 하겠지만 노동자들의 운동은 어디까지나 부르조아 노동운동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회주의적 혁명의식은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sup>130)</sup>

레닌은 프롤레타리아 스스로는 사회주의적 의식을 발전시킬 수 없기 때문에 혁명을 향한 의지는 단순히 사회적·경제적 조건에 의하여 야기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조직화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사회적 조건이 혁명의 가능성은 만들겠지만 그 가능성을 현실화하는 것은 조직화된 당이며 당만이 혁명적 의식의 원천이며 주도자일 수 있다는 것이다.<sup>131)</sup>

레닌은 당이 전위대, 조직자, 지도자, 이론가여야 하며 그러한 역할 없이는 노동자들이 부르조아사회의 지평을 넘을 수 없다고 보았다. 오직 당만이 사회에 대한 과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은 사회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독점적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다.<sup>132)</sup> 당의 헤게모니에 대한 레닌의 이러한 사상은 자연히 사회주의 사회에서 당의 지도적 역할 사상으로 발전되었다. 인민대중은 너무 무식하기 대중의 이익, 요구, 욕구에 대하여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당은 대중보다는 더 잘 알며 당만이 과학적 지식에 기초하여 잘 헤아

---

386, 396.

129) V. I. Lenin, *State and Revolution*, Lenin's collected Works, vol. 5, p. 384; Kolakowski, *Main Currents of Marxism, 2-The Golden Ag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78), p. 387.

130) Leszek Kolakowski, *Main Currents of Marxism, 2-The Golden Age*, p. 389.

131) Ibid., pp. 397~98.

132) Ibid., pp. 387, 391.

릴 수 있다는 것이다.<sup>133)</sup> 이러한 점에서 레닌은 당 주도의 사회주의를 과학적 사회주의라고 부르고, 유토피아 사회주의 및 자생적인 노동자운동과 구별하였다.

레닌은 ‘프롤레타리아트는 그대로 방치해두면 언제까지나 타락한 존재로 남을 것’이라고 주장했다는 점에서 그의 전략은 소수 정예주의이며 엘리트주의자였다.<sup>134)</sup> 당이 계급을 대신하고 엘리트주의적 당-국가가 프롤레타리아 독재에 의해 상징되었던 프롤레타리아트의 선도적 지위를 대신했다. 레닌의 사상에는 확실히 인민대중이 자율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간은 처음부터 없었다. 이것은 결국 노동계급과 사회전체에 대한 당의 독재에 대한 이데올로기적인 기초가 되었다.

북한의 맑스-레닌주의의 이론서는 레닌의 전위당의 개념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음을 아래의 인용문에서 볼 수 있다.

노동계급의 당은 노동계급을 비롯한 전체 근로대중 가운데서 가장 우수한 선진분자들로 조직된 선봉대이다. 일반적으로 노동계급이 가장 선진적인 계급이며 인민대중이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지만 그들의 사상의식 수준과 준비정도는 같지 않으며 착취사회의 조건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그들 모두가 단번에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 계급의 선진분자, 혁명분자의 수준에 오를 수 없다. 근로인민대중이 복잡하고 치열한 계급투쟁과 어렵고 장기적인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사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자면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혁명성이 누구보다도 강하며 혁명투쟁 경험이 풍부한 선진분자, 핵심분자들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선진분자, 핵심분자들로 조직된 전투부대, 선봉대가 곧 노동계급의 당이다.<sup>135)</sup>

133) Ibid., p. 392.

134) Amos Perlmutter, *Modern Authoritarianism: A Comparative Institutional Analysis*, 김문조·임현진 역, 『현대국가와 권위주의』(정음사, 1986), p. 102.

135) 사회과학출판사 편, 『영도체제』(주체사상총서9), p. 113.

레닌의 전위당 이론이 김일성에게 직접 수용되었다는 증거를 김일성의 한 연설문에서 엿볼 수 있다.

당은 레닌적 당 건설 원칙에 튼튼히 립각하여 우선 로동계급속에 확고히 뿌리박고 로동자 성분으로 자기대렬을 끊임없이 확대하며 그 들속에서 계통적으로 당간부들을 육성함으로써 당의 기본핵심을 꾸려놓았다. 이에 기초하여 농민,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자들속에서 우수한 사람들을 적극 당에 받아들이고 당적 훈련과 교양을 강화함으로써 우리 당은 근로대중의 선봉대로서 조선에서 가장 강대한 정당으로 발전하였다.<sup>136)</sup>

이에 따라 북한의 정치체제도 다른 사회주의와 마찬가지로 모든 정치적 권력이 관료화된 전위당인 노동당에 집중되어 사회의 전 구조가 수직적 통제하에 들어있다. 모든 권력이 1인과 일당에 집중되었다. 옥상옥을 이룬 관료기구는 모든 시민에 대하여 생사여탈권을 갖는 권력을 가지게 되었다. 당의 관료, 국가기구의 관료들이 모든 권력을 독점하게 되었다.

북한의 권력집중은 다른 사회주의보다 더욱 심한 편이다. 노동계급을 선도하는 당의 전위를 넘어서 당을 영도하는 수령의 전위 개념으로 한층 더 발전시켰다. 북한은 당의 독재가 아니라 수령의 독재인 것이다. 북한의 주체사상총서 중의 하나인 『영도체계』라는 책은 “광범한 균중을 묶어 세워 하나의 목적실현으로 조직동원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하나의 영도자, 수령을 내세우고 혁명과 건설 전반에 대한 그의 유일적 영도를 확고히 보장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sup>137)</sup>

북한에서 수령의 유일적 영도자의 개념은 신의 경지로까지 절대화

136) 김일성, “위대한 10월의 사상은 승리하고 있다”(위대한 사회주의 10월 혁명 40돛에 즈음하여 발표한 론설, 1957년 10월 22일), 『김일성저작집』 11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p. 359.

137) 사회과학출판사 편, 『영도체계』(주체사상총서9), p. 49.

되었으며 절대자에 대한 복종은 종교적 차원으로까지 발전되었다. 1974년에 발표한 ‘유일체제확립 10대원칙’은 북한관 10계명으로서 북한주민의 일상생활의 정치적 계율이 되고 있다. 10대원칙의 내용은 김일성의 혁명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하기 위하여 목숨바쳐 투쟁해야 하며, 김일성의 권위를 절대화해야 하며, 김일성의 교시를 신조화해야 하며, 김일성 교시의 집행에서 무조건성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는 등의 원칙을 포함하고 있다. 10번째 계율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계승하며 완성하여 나가야 한다”는 것으로서 10계명은 김정일에게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령에 대한 절대화는 곧 전 주민의 전체주의적 통합을 강요하기에 이르렀다. 수령, 당, 대중은 삼위일체로서 하나의 사회적 유기체를 형성한다는 이론으로 발전시켰다. 생물유기체의 개념을 사회유기체의 개념으로 발전시켰다.

수령에 대한 절대적 복종을 강요하는 북한체제의 특성에 대하여 최근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는 현대판 노예제 사회라고 비판하였다.<sup>138)</sup> 북한은 내부의 노예적 상태를 외부에 의한 노예의 위협으로 상쇄시키고자 한다. 이러한 측면은 북한 사상교양의 내용에서 잘 드러난다. 북한의 최근 사상교양의 핵심은 “미국에 점령되어 노예로 살기보다 자주적으로 살아야 한다. 사회주의 놓치면 미국의 식민지 노예가 된다, 그렇게 살겠느냐 아니면 헐벗더라도 국방력 강화하여 자주 독립을 유지하겠느냐?”, “통일되면 노예가 된다, 남한의 지주·자본가에게 먹히게 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sup>139)</sup> 외부 적의 노예에 비하면 내부 수령의 노예는 정당화된다는 논리이다.

138) 『조선일보』, 1999.12.1.

139) 김철대 및 이수동 증언.

#### 4. 맑스-레닌당의 조직원리와 북한의 전체주의

북한이 다른 사회와 구분되는 중요한 특징의 하나는 전체주의체제라는 점이다.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전체주의 구호는 북한체제의 핵심적 특징의 하나이다. 이러한 전체주의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통치방식을 특징짓는 것이지만 그 이론적 근거는 맑스-레닌주의에서 나왔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소련의 맑스-레닌주의는 당의 조직원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

레닌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공산당은 그가 가장 철저한 중앙집권제로 조직되며 당내에 군사적 규율에 가까운 강철의 규율이 지배하며 그의 당 중앙이 당원들의 전면적 신임을 받으며 광범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엄격하고 권위있는 기관으로 되는 그러한 경우라야 자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당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단 하나의 규율만을 가진다는 것이다. 즉 단일의 통치기관인 당대회와 그리고 당대회가 열리지 않은 기간에 존재하는 선출된 중앙위원회가 그것이다. 하위의 당기관들은 보다 상위의 기관들에 복종하며 동시에 소수는 다수에 복종한다.<sup>140)</sup>

북한의 맑스-레닌주의 교재는 소련의 맑스-레닌주의 교재의 핵심을 전승받았지만 매우 엄격하고 구체적인 규율들을 발전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상하급 당조직간에 엄격한 상명하복의 규칙이 적용됨을 강조하고 있다.

당의 중앙집권제는 당원은 당조직에 복종하며, 하급당 조직은 상급당 조직에 복종하며 전체 당조직은 당중앙위원회에 절대 복종하며, 하급당 조직은 상급당 조직의 결정을 의무적으로 집행하며, 상급당조직은 하급당조직의 사업을 계통적으로 지도검열하는 것을 의

140) G. P. 체르니코프, 『과학적 사회주의』, p. 77.

미한다. 민주주의 중앙집권제의 기본 요구는 당원들이 당 생활과 당 조직들의 활동에 있어서의 당의 유일한 지도, 유일한 의사를 그의 적극적이며 창발적 활동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는데 있으며 당의 혁명적 규율을 당원대중의 정치적 자각과 고도의 창발성, 적극성과 잘 결합시키는데 있다.<sup>141)</sup>

조직에 있어서 규율은 곧 생명이다. 당원들이 지켜야 할 규율은 자각적인 규율이다. 이 강철같은 자각적인 규율로 조직된 부대가 바로 맑스-레닌주의 당이다. 맑스-레닌주의 당에 있어서 규율을 강화하는 것은 당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는 기본조건으로 된다.<sup>142)</sup>

북한은 맑스-레닌주의 당의 특성으로서 유일사상으로 통일단결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에서 가장 많이 강조되고 있는 정치구호가 ‘일심단결’임을 고려한다면 북한체제의 전체주의체제의 특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맑스-레닌주의적 당이 자기가 내세운 최종 목적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신을 부단히 강화발전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먼저 전당이 하나의 사상, 하나의 의지, 하나의 행동으로 철석같이 통일단결되어야 한다. 당의 통일과 단결은 맑스-레닌주의 당의 생명이며 모든 승리의 첫째조건이다. 또 당은 당대열의 통일과 단결이 강화되는 과정에서 부단히 장성한다. 그러나 당의 통일과 단결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당의 통일과 단결은 당원들이 부단한 사상투쟁에 의해서만 보장된다. 그것은 당에 잠입한 온갖 그릇된 현상, 옳지 못한 경향들은 오직 당원들의 사상투쟁에 의해서만 극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전체주의의 한 요소는 종파주의에 대한 경계이다. 가족주의와 지방주의가 종파주의로 발전하는 것을 우려하여 경계하고, 개인들간의 친목모임까지 금기시하며 통제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종파주의

141) 『맑스-레닌주의 학설』, pp. 379-380.

142) 위의 책, p. 380.

로 발전할 것을 우려한 때문이다. 북한은 종파주의에 대한 경계를 맑스-레닌주의의 이름으로 설명하고 있다.

맑스-레닌주의 당은 지방주의, 가족주의 등 낡은 분파적 표현들에 대해서도 결코 묵과하지 말아야 한다. 지방주의는 자기 지방의 협소한 이익을 내세우면서 당 결정을 집행하지 않는 그루빠적 경향이며 가족주의는 당결정을 반대하는 것을 보고도 그것을 용화 묵과하며 서로 결함을 감싸주는 그릇된 경향이다. 이러한 경향이 자라나면 나중에는 종파를 형성하는대로 떨어진다. 따라서 지방주의, 가족주의는 종파를 낳는 온상으로 된다. 지방주의와 가족주의는 당내에서 사상투쟁을 마비시키며 당원들의 경각성을 무디게 하며 무원칙하게 서로 타협하려는 사상을 조성하며 당원들을 당조직에 의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개인에게 맹종맹동하게 한다. 그러므로 지방주의, 가족주의를 극복하는 것은 당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다.<sup>143)</sup>

북한의 주민들을 전체주의의 규율에 묶어두고 통제하는 방식의 하나는 총화시간에 타인과 자신을 비판하는 제도이다. 주위의 동료들로 하여금 서로를 비판하게 함으로써 체제에 대한 이반이나 체제에 대한 사보타지를 못하도록 개인을 통제하는 것이다.

맑스-레닌주의 당의 강화발전에서 주요한 의의를 갖는 것은 당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와 결함에 대해서 대담한 비판사업을 전개하는 것이다. 비판과 자기비판은 당내에서 온갖 부정적 현상을 극복하며 당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무기로 되며 당의 혁명사업을 발전시키는 힘으로 된다.<sup>144)</sup>

북한의 주민들과 개인을 전체주의의 틀에 묶어 놓는 것은 쉬임없는

---

143) 위의 책, p. 381.

144) 위의 책, p. 382.

정치학습이다. 사상교양과 계급교양의 이름으로 부과되는 전체주의 교육이 맑스-레닌주의의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다.

맑스-레닌주의 당의 발전에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당원들에 대한 사상교양을 강화하는 것이다. 특히 제국주의를 미워하고 그와 철저히 투쟁하는 사상으로 교양하는 계급교양을 강화해야 한다. 당의 결정과 지시라면 물불을 헤아리지 않고 이악하게 관철하는 당적인 사상체제로 당원들을 무장시켜야 한다. 이러한 사상교양 사업이 진행될 때에는 당은 그 어떤 난관과 시련도 극복할 수 있으며 부단히 자신을 강화할 수 있다.<sup>145)</sup>

이런 일련의 측면을 종합해본다면 북한의 전체주의의 뿌리와 이론적 근거는 맑스-레닌주의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5. 프롤레타리아 독재와 북한의 계급투쟁노선

맑스-레닌주의가 “새로운 생산력과 낡은 생산관계간의 모순은 저절로 해결되지 않으며 치열한 계급투쟁을 통해서만 해결된다”<sup>146)</sup>고 설명한 바와 같이, 계급투쟁은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과도기적으로 필요한 정치수단으로 인식되었다.

그런데 북한은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연장하여 영속화하고자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계급투쟁도 영속화하여 독재정치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프롤레타리아독재와 관련하여 계급투쟁문제에 대하여 몇가지 간단히 말하려 합니다. 계급투쟁이 있는 한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있는

---

145) 위의 책, p. 382.

146) 위의 책, p. 115.

것이고 프롤레타리아독재는 계급투쟁을 하기위하여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계급투쟁의 형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본주의를 때려부시는 때의 계급투쟁과 자본주의를 때려부신 다음의 계급투쟁은 그 형태가 다릅니다. 이것은 우리 당 문헌에 이미 똑똑히 밝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것을 똑똑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좌경적 혹은 우경적 오류를 범하고있습니다.<sup>147)</sup>

김일성은 자본주의를 전복한 다음에도 계급투쟁을 계속해서 존속시켜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김일성은 계급투쟁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사회주의혁명을 할 때의 계급투쟁은 자본가들을 계급으로서 청산하기 위한 투쟁이고 사회주의사회에서의 계급투쟁은 통일단결을 목적으로 하는 투쟁이며 그것은 결코 사회성원들이 서로 반목질시키기 위해서 하는 계급투쟁은 아닙니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계급투쟁을 하되 통일과 단결을 목적으로 하여 협조의 방법으로 계급투쟁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있는 사상혁명이 계급투쟁이라는 것은 더 말할것도 없고 농민을 로동계급화하기 위하여 농촌을 협조해 주는 것도 계급투쟁의 한 형식입니다. --- 우리가 계급투쟁을 하는 목적은 농민을 로동계급화하여 계급으로서의 농민을 없앨뿐 아니라 지난날의 인테리와 도시소자산계급을 비롯한 중산층을 혁명화하여 로동계급의 모양대로 개조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계급투쟁의 주요 형식입니다.<sup>148)</sup>

김일성은 계급투쟁의 개념을 자신의 통치의 이념적 도구로서 영속화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147) 김일성,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와 프롤레타리아 독재 문제에 대하여” (당사상사업부문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 1967년 5월 25일).

148) 위의 글.

사회주의사회에서 계급투쟁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연히 계속되며 다만 그 형식이 달라질뿐입니다. 사회주의사회에서 계급투쟁문제를 이와같이 보는 것은 완전히 옳은 것입니다.<sup>149)</sup>

김일성은 사회주의 제도가 있는 한 계급투쟁은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표출하였다.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기간을 무한정 연장하기를 희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김일성이 계급투쟁을 유력한 정치의 도구로 활용한 것은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개념과 유사하다.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개념과 계급투쟁의 개념은 같은 동전의 다른 면과 같은 격이다. 프롤레타리아독재와 마찬가지로 계급투쟁의 개념도 1956년의 8월종파사건과 1967년의 갑산과속청 사건을 계기로 활발히 동원되었다. 8월종파사건 직후부터 ‘중앙당집중지도’를 실시하여 북한주민 전체를 상대로 출신성분과 사상경향을 조사하여 정권을 지지하는 자와 반대하는 자, 믿을 수 있는 자와 믿을 수 없는 자를 감별하고 반대하는 자들을 대상으로 ‘계급투쟁’을 실시하였다.

1967년 갑산과사건 직후에도 ‘주민재등록사업’을 실시하여 전주민을 정치적 성분에 따라 3계급 51계층으로 분류하고 계급투쟁을 실시하였다. 계급투쟁이 어떻게 정치적 도구로 활용되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 6. 레닌의 폭력혁명론과 북한의 테러의 정치

사회주의 체제의 한 특징은 모든 현실적 가상의 적에 대하여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이름으로 조직적 폭력을 사용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문제 등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

149) 위의 글.

적 수단으로 테러를 사용한다.<sup>150)</sup> “프롤레타리아독재는 지주, 자본가들에게는 독재를 실시하며,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노동인민에 대해서는 민주주의를 실시합니다”라는 말속에서 그 의미가 잘 나타나 있다. ‘독재’라는 말의 의미는 무자비한 폭력을 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맑스-레닌주의가 미친 영향이다.

레닌은 사회주의 혁명과정에서 자본주의 국가를 폐지하게 되는데 프롤레타리아트에 의한 부르조아 국가의 폐지는 폭력혁명을 통한 강제적 폐지(abolish)가 불가피하며, 그에 반해서 공산주의 이후 프롤레타리아 국가의 소멸은 자연적 사멸은 (wither away)이라고 보았다.<sup>151)</sup> 레닌은 부르조아 국가는 사멸의 과정을 통하여 프롤레타리아 국가 (프롤레타리아 독재)로 대체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오직 폭력혁명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보았다. 레닌은 폭력혁명의 불가피성을 맑스와 엥겔스에게서 이론적 근거를 찾기 위해서는 폭력혁명의 불가피성을 자랑스럽고 공공연하게 선언하고 있는 『철학의 빈곤』과 『공산당선언』의 결론 부분을 보라고 지적하였다. 레닌은 폭력혁명의 이찬가는 결코 단순한 충돌이나 형식적 인사치레, 또는 논쟁에서의 비꼼이 아니라, 대중에게 폭력혁명에 대한 이런 견해, 그리고 바로 이런 견해를 체계적으로 불어넣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것이 맑스와 엥겔스의 전체 이론의 근본이라고 주장하였다. 부르조아 국가를 프롤레타리아 국가로 대체하는 것은 폭력혁명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sup>152)</sup>

러시아의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소수에 의한 테러 통치를 위한 위장술에 지나지 않는다고 사회민주주의 정치가들과 언론에 의하여 비난

150) Zbigniew Brzezinski, *The Grand Failure: The Birth and the Death of Communism in the Twentieth Century*, (Macmillan Publishing Co., 1989), p. 19.

151) V. I. 레닌, 『국가와 혁명』, p. 33.

152) 위의 책, p. 35.

받았는데 레닌은 이 비난에 대하여 1918년 8월 20일에 쓴 미국노동자들에게 보내는 편지, 「Letter to American Workers」에서 격렬하게 반박했다.

영국의 부르조아들은 그들의 1649년을 망각했고, 프랑스의 부르조아들은 그들의 1793년을 망각했다. 봉건주의에 대항하여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부르조아가 테러에 의존했을 때, 테러는 정당하고 합법적이었다. 그런데 노동자와 빈농이 부르조아에 대해 테러를 과감하게 사용하였을 때 테러는 극악무도하고 죄악시되어야 한다는 말인가? 소수의 착취자를 다른 소수의 착취자로 대치할 목적으로 사용되었을 때 테러는 정당하고 합법적이었다. 테러는 모든 소수 착취자를 전복할 목적으로 사용되고 광범위한 실질적인 대다수의 이익, 프롤레타리아의 이익, 노동계급과 빈농을 위해 사용되기 시작했을 때는 극악무도하고 죄악시된다는 말인가?<sup>153)</sup>

10월혁명으로 권력을 장악한 뒤 레닌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규모의 폭력과 테러를 사용하겠다고 주창하였다. 그는 「국가와 혁명」이라는 저서에서 민주주의란 한 계급의 다른 계급에 대한 폭력을 체계적으로 사용하는 조직이라는 말로 표현했다. 「Collected Works」라는 저서에서는 민주주의라는 것은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레닌은 집권하자마자 사회전체를 테러화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사소한 관료적 방해에 대항해서도 폭력을 무차별적으로 사용했다. 1918년 1월에 내린 한 명령에서 레닌은 볼셰비키 통치에 반대하는 자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정책을 발표하면서 레닌은 국가 기관들로 하여금 러시아땅에 있는 모든 해로운 ‘벌레’들을 모조리 소탕할 것을 명령했다. 또한 한 지방 당 간부에게 무자비

153) V.I. Lenin, *Collected Works*, vol. 28, p. 71, 에른스트 피셔 편저, *The Essential Lenin*, 「레닌주의의 이론구조」, 노승우 역 (전예원, 1986), p. 93-94에서 재인용.

한 집단 테러를 사용할 것을 지시했다. 집단테러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행정적 수단으로 되었다. 게으른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10명 중 한 명은 현장에서 총살하도록 지시했다. 규칙을 안 지키는 노동자에 대해서도 그런 규칙 위반자는 총살되어야 한다고 지시했다.<sup>154)</sup> 레닌의 이러한 정책은 스탈린체제를 탄생시킨 온상이 되었다.

북한도 레닌주의의 전통을 많이 물려받았다. 테러는 북한의 자주 사용되는 통치방식의 하나이다. 1946년 토지개혁의 과정, 농업협동화의 과정, 그리고 상공업국유화 과정에서 테러가 많이 사용되었다. 또한 주민들의 성분조사 사업과정에서도 테러가 사용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90년대 들어서 자주 사용하고 있는 공개처형도 한 사례이다. 김정일 지시에 의해 “사회질서 문란행위를 엄벌에 처해라”는 지시가 있는 이후 공개처형이 각급 지역별로 회수가 할당되어 실시되었다고 한다. 90년대에 귀순한 대부분의 귀순자들은 직접 1~2번씩 공개처형을 목격했다고 한다.

가령, 서철영은 함경도 세천에서 2명이 총살당하는 것을 목격했다. 94년 봄이었는데 그중 1명은 자기와 같이 근무하던 동기동창(강정욱)이며, 다른 1명은 자기의 1년 선배인 학보탄광 노동자라고 한다. 그들은 다른 3인과 같이 군인으로 가장하고 양곡 200kg을 훔쳤다가 발각되었다고 한다. 그중 주모자는 농장 기사장의 아들로서 15년형을 판결받고 1년 후 병보석되었지만, 출신성분이 안좋은 2명만 처형을 당했다고 한다. 공개처형시에 세천주민들에게 순회방송차로 공개재판 일정을 홍보하였다고 한다.<sup>155)</sup>

간부 출신의 김철대도 비슷한 증언을 하였다. 그는 흉년들면 도적이 성하고, 도적이 성하면 법이 많아진다고 진단하면서 북한에서 즉결 총

154) Ibid, p. 19-20.

155) 서철영(이하 모든 귀순자는 가명 25세, 청진철도국 남양분국 세천역 신호원, 1999.8.14 귀순) 증언.

살이 남발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1996년 김책시 장마당 옆 강변에서 시범적으로 3인에 대한 공개처형을 실시했다고 한다. 2인은 공장의 동을 뜯어내어 팔았으며 1인은 장마당에서 강도질한 혐의라고 한다.<sup>156)</sup>

북한은 1999년 소위 ‘황색바람’을 차단할 목적으로 중국과의 접경 지역에서 6월과 7월 사이 강제송환된 탈북주민과 비리연류자 30명을 총살했다고 한다. 총살당한 사람가운데는 함경북도 도검찰소장 심○○, 양강도 산업관리소장 김○○, 혜산시 신발공장 당책임비서 등 고위관리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은 업무상 비리에 연루되어 처형되었다고 한다.<sup>157)</sup>

북한에서 범법자에 대한 처벌이 매우 가혹하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귀순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김정일은 자기말 안들으면 짐승처럼 죽인다는 말을 자주 하고 있다. 수많은 사람이 굶어서 죽는 판에 자기 자리 하나 지키자고 저렇게 정치한다고 비난한다고 한다. 경제난 속에서도 체제가 유지되는 이유에 대하여 많은 귀순자들은 사람을 사정없이 죽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sup>158)</sup>

북한에서 이처럼 공개처형과 같은 폭력에 의존하여 정치를 하는 것은 공포심을 유발시켜 주민들을 심리적으로 억압시키고, 체제에 대한 불만과 일탈의 의지를 사전에 차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체제의 이러한 특징은 김일성과 김정일의 통치양식의 한 측면이지만 이것이 맑스-레닌주의의 이론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156) 김철대 (47세, 1997.8 탈북, 1999.1 귀순, 과학원 수리공학연구소 연구사) 증언.

157) 「연합뉴스」, 1999.11.25

158) 정석영 (23세, 함북도 인민학교 교원, 1999.1 귀순), 서철영(25세, 청진철도국 남양분국 세천역 신호원, 1999.8.14 귀순) 등 다수 증언.

## VI. 주체사상이 북한체제 형성에 미친 영향

주체사상이 북한체제 형성에 미친 영향은 주체사상이 북한에서 행한 기능의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다. 주체사상이 북한체제에서 행한 기능은 크게 세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대외적 자주의 개념으로 정의되었을 당시, 김일성이 정적들을 사대주의자 또는 교조주의자라고 딱지를 붙여 숙청하기 위한 이념적 도구로 사용되었다. 둘째는 사회주의적 생산양식이 야기한 소극적 인성에 대응하여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라는 구호 하에 북한 주민들에 대하여 주인다운 태도를 갖도록 교양 개조하는 이론으로 사용되었다. 셋째는 이들 두가지 개념이 북한체제의 각 부문의 정책을 정당화하는 지도이념으로 사용되었다. 이들을 차례대로 살펴보자.

### 1. 권력지형의 공고화

북한에서 ‘주체’라는 개념이 처음 만들어지게 된 국내외적 배경은 김일성의 권력이 도전을 받게 된 것과 관련이 있다. 국제적으로는 스탈린 사망이후 우상숭배 비판의 흐름과 사회주의권의 수정주의의 흐름이 국내에서 김일성의 정적들에게 김일성 권력에 도전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1955년 당시까지 소련파, 연안파, 갑산파 등 많은 파벌들이 김일성에게 도전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김일성이 이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주체의 확립’이라는 명분을 만들어 낸 것이다.<sup>159)</sup> 소련의 후원 하에 권력의 정상에 오른 김일성은 이들 경쟁집단들과 연립

159) 서대숙 지음, 서주석 옮김, 『북한의 지도자 김일성』 (서울: 청계연구회, 1989), pp. 113~116 참조.

정권을 구성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도전을 받는 것은 필연적인 귀결이었다. 조만식이 이끄는 민족주의파는 일찍이 소련에 의하여 거세되었고 남은 권력집단 또는 파벌은 김일성의 빨치산파와 갑산파를 포함한 범빨치산파, 조선계소련인들을 지칭하는 소련파, 중국에서 돌아온 혁명가들로 구성된 연안파,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선과 일본에서 공산주의운동을 한 사람들을 망라한 국내파였다. 이 중 가장 수가 많은 것이 국내파였고 가장 수가 적은 것이 빨치산파였다.

1967년에 갑산파 제거를 마지막으로 경쟁파벌들을 제거하여 유일지도체제를 구성하기까지 김일성의 권력은 경쟁파벌들과의 연립정권이었으며 이들과의 집단지도체제였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김일성의 권력은 항상 도전에 직면하고 있었으며 권력 기반이 불안정하였다.

김일성은 이러한 경쟁세력들을 종파라고 규정하였으며 이들 각 종파는 중국과 소련을 등에 업은 세력이었기 때문에 이들을 사대주의자들이라고 비판하였다.

한국전쟁 동안 북한은 소련과 중국으로부터 많은 원조를 받았기 때문에 소련파와 연안파가 더욱 득세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전쟁 이후에는 전쟁의 실패에 책임을 물어 김일성에 대한 공세가 제기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김일성은 오히려 전쟁의 책임을 남로당의 책임으로 전가하면서 역공을 취했다. 남침을 감행하였을 때 남한에서 공산당의 남침을 환영하여 민중폭동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전세가 불리해졌다고 주장하면서 남로당을 비난하였다. 수가 가장 많고 부담스러운 국내파를 가장 먼저 공격할 수 있는 명분이 된 것이다. 6·25전쟁의 주도자가 자기임에도 불구하고 박헌영, 이승엽 등 남로당파 11명에 전쟁의 실패를 전가하고 미국 간첩이라는 죄를 씌워서 1952년 12월 15일에 체포하였고, 휴전 3일 후에 이들을 기소하여 처형하였다.<sup>160)</sup>

그러나 여전히 연안파와 소련파는 건재하고 있었다. 마침 사회주의 권의 개인숭배 비판과 수정주의의 여파가 김일성의 정적들을 고무시켰기 때문에 김일성은 매우 불리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일성은 ‘주체를 세워야 한다’는 개념을 도입하여 소련과 중국을 등에 업고 있는 반대세력들에 반격을 가하였다. 김일성은 자신의 정적들을 제거하는 명분을 찾는 과정에서 주체라는 개념을 내세우게 된 것이다.<sup>161)</sup> 1955년 4월의 시점에서 김일성이 행한 연설은 당시의 국내정치적 상황과 그에 대한 김일성의 인식이 잘 드러난다.

오늘 우리 당내의 혁명활동가들은 쏘련, 중국, 남반부 등 여러곳에서 왔거나 혹은 국내에서 투쟁한 사람들로써 구성되어 있는데 흔히 종파분자들은 이것을 자기의 종파적 목적에 리용하려고 합니다. 남반부에서 들어온 사람들 가운데는 자기가 남반부에서 들어온 사람들 중의 대표적 인물이라고 자처하여 나서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자기가 높은 자리만 얻으면 인차 남반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을 마치 자기가 나서서 일자리를 주선힌해주어서 밥 먹을 자리나 얻어 준 것 같이 만들고 마치 그들의 운명을 자기가 결정하는 듯이 하여 그들을 자기 개인활동의 토대로 만들려고 합니다. 지난 시기 리승엽이 이런 식으로 일부 남반부에서 온 동무들을 룡락하였습니다. 쏘련에서 나온 사람들 중에서는 허가이 같은 자를 실례로 들 수 있습니다. 허가이는 마치 쏘련에서 나온 사람들 가운데서는 자기가 대표적 인물인 것처럼 자처하여 나섰습니다. 중국에서 나온 사람들 중에서는 박일우 같은자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습니다. 그는 중국에서 나온 사람들 중에서 자기가 대표적인 인물인 것 같이 생각하면서 《중국에서 나온 동무들을 간부로 등용하지 않는다》느니, 《쏘련에서 나온 사람과 중국에서 나온 사람은 서로 생활풍습이 맞지 않는다》느니 하면서 계급의식이 약한 동무들을 자기 주위에 규합하려고 쏘

160) 박헌영에 대한 처형은 1955년 12월에 있었다. 고병철, “한국전쟁과 북한정치체제의 변화,” pp.12~13.

161) 서대숙 지음, 『북한의 지도자 김일성』, p. 95.

라닥쫄라닥 장난을 하고 있습니다.<sup>162)</sup>

그러나 위 연설에서는 아직 ‘주체’라는 말은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김일성이 ‘주체’라는 말을 처음 사용한 1955년 12월의 연설,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데 대하여」에서 연안파, 소련파 등 적대세력들에 대하여 주체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모조리 비판을 가함으로써 외부의 수정주의 바람에 대한 대항적 개념을 처음으로 만들어냈던 것이다. 이 연설에서 김일성은 박영빈, 박창옥 등 정적들을 모두 사대주의, 종파주의로 매도하였는데 사상에서 주체가 똑똑히 서있지 않았다고 비판하였다.

박영빈은 소련에 갔다와서 하는 말이 소련에서는 국제긴장상태를 완화하는 방향이니 우리도 미제국주의를 반대하는 구호를 집어치워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혁명적 창발성과는 아무런 공통성도 없으며 우리 인민의 혁명적 경각성을 무디게 하는 것입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우리 강토를 불태우고 무고한 인민들을 대량적으로 살육하였으며 지금도 계속 우리 조국 남반부를 강점하고있는 천추에 잊을수 없는 우리의 원썩가 아닙니까. ---박창옥은 우리 나라의 력사와 우리의 현실을 연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르쥬아 반동작가인 리태준과 사상적으로 결탁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에게는 부르쥬아 사상잔재도 있었지만 우리 나라의 현실을 연구도 하지 않고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자고자대하는데서 일이 잘못되었습니다. 사상사업에 끼친 그의 죄과는 매우 큼니다.<sup>163)</sup>

162) 김일성, “사회주의혁명의 현계단에 있어서 당 및 국가 사업의 몇가지 문제들에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한 결론, 1955년 4월 4일).

163) 김일성,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데 대하여,” 『김일성저작집 9』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p. 474-475.

이처럼 주체확립 개념의 정치적 목적은 정적들을 사대주의자 또는 교조주의자라고 규정하여 비판하기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주체’의 개념은 소련이나 중국을 모방하지 말고 우리식으로 하자는 것으로 정의되었다.

어떤 사람들은 쏘련식이 좋으니, 중국식이 좋으니 하지만 이제는 우리 식을 만들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쏘련의 형식과 방법을 기계적으로 따를것이 아니라 그 투쟁경험과 맑스-레닌주의의 진리를 배우는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쏘련의 경험을 배우되 형식에 치우칠것이 아니라 그 경험의 진수를 배우는데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쏘련의 경험을 배우는데 형식만 따르는 경향이 많습니다. 《쁘라우다》지에서 《우리 조국의 하루》라고 제목을 달면 우리 《로동신문》도 《우리 조국의 하루》라고 제목을 달니다.<sup>164)</sup>

김일성은 사상에서 주체가 확립되지 못한 것에 대한 예를 다음과 같은 것을 들었다. 매우 설득력 있는 사례 제시이다.

우리의 선전선동사업에서 남의 것만 좋다고 하고 우리자체의 것을 소홀히 하는 현상은 얼마든지 찾아볼수 있습니다. 내가 언제인가 인민군휴양소에 한번 가보니 거기에는 씨비리 초원의 그림이 붙어있었습니다. 그 풍경은 아마 로씨야 사람의 마음에는 들것 입니다. 그러나 조선사람들에게는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금수강산이 더 마음에 듭니다. 우리 나라에는 금강산이나 묘향산과 같은 아름다운 산들이 있으며 맑은 시내물과 파도치는 푸른 바다가 있으며 오곡이 무르익는 논밭이 있습니다. 우리 인민군대로 하여금 자기의 향토와 조국을 사랑하게 하려면 이러한 우리 나라 풍경을 그린 그림들을 많이 보여주어야 할것입니다. 금년여름 어느날 지방의 한 민주선전실에 가보니 거기에 쏘련의 5개년계획에 대한 도표는 있는데 우리 나라의 3개년 계획에 대한 도표는 한장도 없었습니다. 또한 다른 나라 공장들의

164) 위의 글, p. 477.

웅장한 사진은 있으나 우리가 복구건설하는 공장들의 사진은 한장도 없었습니다. 우리 나라 력사의 연구는 고사하고 경제건설에 관한 도표와 사진을 붙이는 일까지도 하지 않고있습니다. 인민학교에 가보니 사진을 걸었는데 마야뽑쓰끼, 뿌슈깁 등 전부 외국사람들뿐이고 조선사람이란 한사람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을 교양해서야 어떻게 민족적자부심이 생기겠습니까.<sup>165)</sup>

이러한 현상들에 대하여 김일성은 모두 주체가 없는 탓이라고 비판하였다. 이것이 김일성이 주장한 ‘주체’의 개념이 등장한 인식적 배경이며, 동시에 ‘주체’ 개념의 핵심적 내용이다.

내부에서 정적들과 세력다툼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서 1956년 2월에 있었던 후르시초프의 스탈린 개인숭배 비판 및 격하 연설은 김일성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김일성에게는 위기였고, 정적들에게는 기회였다. 김일성은 개인숭배를 자제하도록 내부단속을 하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외형적으로 나타난 자숙 분위기와는 달리 이 시기에 김일성의 개인숭배 행태에는 변화가 없었다.<sup>166)</sup>

소련 공산당 제20차대회에서 후르시초프가 행한 개인숭배비판 연설에 고무를 받았던 박창옥(소련파)과 최창익(연안파) 등이 1956년 8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기하여 김일성의 지도체제에 반기를 들었다. 그런데 김일성은 무력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하여 사대주의적 종파주의자로 몰아서 모조리 숙청하는데 성공하였다. 김일성을 공격하던 윤공흠, 서희, 이용규, 김강 등이 중국으로 망명하고 최창익과 박창옥이 출당되었다. 이로써 김일성이 연안파 및 소련파 등 반대파를 숙청함으로써 갑산파 단독 권력체제가 된 것이다.<sup>167)</sup>

165) 위의 글, p. 471.

166) 이종석, 『현대북한의 이해: 사상, 체제, 지도자』, 서울: 역사비평사, 1995, p. 206.

167) 북한연구소 편, 『북한총람』 (서울: 북한연구소, 1980), pp. 301~02.

그러나 소련과 중국이 이에 대해 반발을 하면서 북한 내정에 개입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김일성은 최창익과 박창옥을 중앙위원으로 복귀시키고 다른 4인에 대한 출당처분도 취소하였다. 김일성으로서의 소련과 중국으로부터 치욕을 당한 셈이다. 이것이 8월중과 사건이다.

이를 계기로 김일성은 자신의 정적들이 교조주의, 형식주의, 종파주의, 관료주의 등에 젖어있어 혁명과업을 곤란하게 했다고 주장하고 ‘주체의 확립’의 개념을 발전시켜 나갔다. 당시는 주체라는 말이 이론적이나 논리적 해석을 수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의 구호 형식에 불과했지만 김일성은 자신의 반대세력을 제거하는데 유용한 이념적 도구로 사용하였다.

주체사상이 본격적으로 북한의 지배이념으로 발전된 것은 1967년의 갑산파의 권력도전과 이들을 숙청하고 권력에 본격 부상한 김정일이 주체사상을 유일사상으로 추진하면서부터이다.

1967년 당시의 권력지형은 김일성을 중심으로 하는 주류와 반대파인 갑산파 간의 권력갈등이 점차 표면화되고 있던 상황이었다. 이 상황에서 김일성은 소련과 중국의 이념분쟁이 전개되고 월남전에 남한이 파병하는 등의 상황을 이용하여 반대파들을 배제하고 자파세력을 전면에 내세워 권력구조 개편을 단행하였다.

소련과 중국이 이념분쟁을 하는 등 사회주의진영이 분열되고 있는 사이 미국과 남한이 월남에 군대를 파견하는 등의 상황이 전개되자 북한은 1966년 10월 5일 제2차 당대표자회의를 열고 경제-국방 병진정책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일주일 후인 1966년 10월 12일 당중앙위원회 제4기 14차전원회의를 열어 권력구조를 재편하고 만주 빨치산파를 대거 부상시켰다. 만주빨치산파가 권력의 전면에 부상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만주빨치산파와 대립하고 있던 갑산파는 권력 핵심에서 배제되었다. 권력갈등은 당연히 정책갈등으로 표출되었다. 주류에서 밀리고 있던 갑산파들은 그 동안 소련의 후르시초프의 영향을 받아서 중공업보다는 경공업을 중시하는 등 수정주의적 노선을 강조하면서 김일성파를 비판하였다. 빨치산파의 경제-국방병진에 대해서 경제우선주의를 주장하는 등 김일성의 정책과 대립되는 주장을 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권력갈등과 정책갈등을 빚고 있던 갑산파를 김일성과 그 지도부는 수정주의자, 종파주의자로 몰아서 숙청한 사건이 1967년 5월의 당중앙위원회 제4기 15차 전원회의이다. 갑산파 숙청을 계기로 북한은 급속하게 김일성의 유일체제로 전환하였다. 지금까지의 집단지도체제를 김일성 개인의 독점체제를 구축하게 된 것이다.<sup>168)</sup>

이 과정에 김정일의 역할이 컸다는 것은 잘 알려진 일이다. 1967년 갑산파 숙청에 하나의 불씨를 제공한 것이 이효순 박공철 숙청사건인데, 김정일이 이를 지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위 ‘일편단심’ 영화사건이다.

갑산파를 숙청한 직후부터 북한은 그 동안의 집단지도체제를 김일성의 단일지도체제로 전환하고 당의 유일사상체제의 확립을 시작하였는데 이것이 김정일의 주도에 의하여 추진되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증거들이 있다. 가령, 김정일은 1967년 4기 15차 전원회의가 끝나고 당중앙위원회 일군들과 한 담화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라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이다.<sup>169)</sup> 북한이 유일사상체제를 주

168) 이후 북한은 권력엘리트 뿐만 아니라 일반주민들 중에서도 지지자와 반대자를 감별하는 작업을 강화하였는데 그것이 전주민에 대한 성분 분류 작업이다. 1967년부터 1971년말까지 북한은 전주민을 대상으로 정치적 성분에 따라 3개 계급 51개 계층으로 분류하고 계급과 계층에 따른 계급노선의 정치를 하였다.

창한 배경에 대하여 이견이 있기는 하지만 주체사상을 유일사상으로 옹립하고, 이 사상을 가장 중요한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게 된 배경에는 김정일의 권력승계 전략과 관련이 있다.

김정일의 주도로 주체사상을 유일사상으로 옹립하였다는 것은 아래의 인용문이 시사하고 있다.

얼마전에 있는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15차전원회의는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며 수령님의 혁명사상에 기초한 당대렬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우리 당의 투쟁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역사적인 회의였습니다. 이번 전원회의에서는 오래동안 우리 당안에 숨어서 책동하던 반당반혁명분자들의 죄행을 폭로비판하고 주동분자들을 당대렬에서 제거하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동분자들을 몇명 제거하였다고 하여 반당반혁명분자들과의 투쟁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반당반혁명분자들과의 투쟁은 이제 시작에 지나지 않습니다. ---반당반혁명분자들이 뿌려놓은 사상여독을 뿌리빼고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데서 기본은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 것입니다.<sup>170)</sup>

기존의 이색분자 뿐 아니라 이색적인 조류가 새롭게 싹트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유일사상체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볼 수 있다. 북한에서 유일사상체제는 곧 수령론으로 발전되었는데 혹자는 북한의 수령론과 유일사상체제가 당시 북한의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형성된 체제라는 주장이 있으나<sup>171)</sup>, 김정일의 연설을 볼 때 이것은 사

169)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당력사연구소, 『김정일동지락전』,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9), p.99.

170) 김정일, “반당반혁명분자들의 사상여독을 뿌리빼고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울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선전동부 일군들과 한담화 1967년 6월 15일), 『김정일선집』 1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p. 230, 237.

171) 이태섭, 『김일성 리더십연구』 (서울: 들녘, 2000).

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한 사업을 조금이라도 늦추게 되면 당과 혁명대오 안에서 이색적인 사상조류가 싹트고 자라나게 되며 종파와 분파가 생겨 당의 강화발전엔 엄청난 해독을 끼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혁명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실천적경험이 뚜렷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당의 운명과 관련되는 근본문제로 튼튼히 틀어쥐고 끊임없이 심화시켜나 가야 합니다.<sup>172)</sup>

북한이 일단 유일사상체계를 도입한 이후 모든 다른 소수집단이나 사상의식은 모두 배척되었다. 가족주의, 지방주의, 종파주의, 사대주의 등을 철폐하고 당의 유일사상체제로 철저히 무장하도록 강요하였다. 김정일은 당시 주류세력을 추종하지 않는 모든 사상을 반당반혁명 분자로 규정하고 ‘오가잡탕’이라고 매도하였다.<sup>173)</sup> 유일사상의 배경이 김일성을 지지하는 세력의 사상을 유일사상으로 규정하려는데 있듯이 유일사상체계의 의도도 김일성을 중심으로 하는 권력의 독점 체제를 구축하려는데 있었음을 아래의 연설에서 알 수 있다. 김일성 이외의 다른 어떤 간부에 대한 충성도 허용하지 말 것을 지시하는 내용을 김일성의 연설에서 읽을 수 있다.

군당책임비서들과 공장당책임비서들은 도당책임비서가 내려가든 중앙당 부장이 내려가든 또는 그 보다 높은 사람이 내려가든 절대로 그들에게 아침해서는 안됩니다. 동무들은 그 누구에게도 맹종맹동하

172) 김정일, “작가, 예술인들 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울데 대하여,”(당사상사업부문 및 문학예술부문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67년 7월 3일), 『김정일선집』 1권 (1992), p. 275.

173) 김정일, “반당반혁명분자들의 사상여독을 뿌리빼고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울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일군들과 한 담화 1967년 6월 15일), p. 230.

지 말고 당의 사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여야 하며 당적 원칙, 당의 조직규율과 질서를 위반하는 온갖 사소한 요소들과도 비타협적으로 투쟁하여야 합니다.<sup>174)</sup>

1967년 김정일의 연설에서 당의 유일사상을 구현한다는 언명을 하면서도 유일사상이 주체사상을 의미한다는 언명은 없었다. 이것을 통하여 김일성의 노선을 유일사상으로 먼저 설정하고 나중에 그 유일사상의 본질이 주체사상이라고 추가하였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유일사상이란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된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 전통”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언급되고 있으나 이 당시 김일성의 연설에서도 유일사상은 곧 주체사상이라는 언명은 발견되지 않는다. 1967년 3월 연설에서 유일사상은 김일성에게만 충성하고 김일성의 지시만 따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1966년 당대표자회에서 주체사상에 대한 언급 없이 대신 맑스-레닌주의를 강조하였다.

우리는 전당적으로 맑스-레닌주의학습과 당정책학습을 더욱 강화하여야 하며 대중속에 맑스-레닌주의원리를 반복하여 해석선전하며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침투시켜야 합니다. 누구나 할것없이 자체의 학습과 사상수양을 첫째가는 혁명임무로 여기고 맑스-레닌주의의 혁명정신과 그 진수를 체득하며 우리 당의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자기의 확고부동한 신념으로 만들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여야 할것입니다.<sup>175)</sup>

그런데 유일사상은 곧 주체사상인 것으로 주장되었다. 1967년 6월

---

174) 김일성, “당사업을 개선하여 당대표자회 결정을 관철할데 대하여” (도, 시, 군 및 공장 당 책임비서협의회에서 한 연설, 1967년 3월 17-24일), 『김일성저작집』 21권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p. 3.

175) 김일성, “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 (조선로당대표자회에서 한 보고 1966년 10월 5일), 『김일성저작집』 20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의 김일성 연설에서는 “유일사상 = 주체사상”이라는 언명이 발견된다. 주체사상은 당의 혁명사상에서 핵을 이루며 사상에서 주체를 세운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여 당의 유일사상체계로 무장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하였다.<sup>176)</sup>

북한에서 김일성의 유일사상체계는 1967년 갑산과 숙청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김정일은 유일사상체계확립의 내용을 김일성의 절대화에 두고 이를 위해 당시에 설치되어 있던 『조선로동당역사연구실』을 『김일성동지혁명역사연구실』로<sup>177)</sup> 개편하고<sup>178)</sup> 여기에 『항일빨치산들의 회상기』, 『김일성동지혁명역사도록』 등을 비치하고 김일성의 유일사상확립을 위한 교양의 본당으로 삼도록 하였다.

이처럼 1967년을 기점으로 김일성은 초기의 연립정권을 벗어나 1인지배체제를 확립하였으며, 이를 정당화하는 이념체제까지 정비한 셈이다. 1967년까지 주체사상은 김일성과 김정일의 권력공고화 및 권력승계의 이념적 도구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 2. 사회주의적 생산양식이 야기한 인성 개조

정치권력에서 안정적 지위를 완성한 북한으로서는 이제 경제건설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상황에서 당면하였던 과제가 바로 북한에서 가장 풍부한 생산요소인 노동력을 활성화시켜 생산력을 증진시키는 것이었다. 그 과제의 핵심은 사회주의제도를 정

176) 김일성, “당대표자회 결정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함경남도 및 함흥시 당열성자회의에서 한 연설, 1967년 6월 20일), 『김일성저작집』, 21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p. 6.

177) 『김일성혁명사상연구실』의 기능에 관한 자세한 분석은 김병로, 『북한 사회의 종교성: 주체사상과 기독교의 종교양식 비교』 (통일연구원, 2000), pp. 93~104 참조.

178) 이후에 『김일성혁명사상연구실』로 개칭됨

착한 이후 나타난 생산성 저하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었다.

명령계획경제 체제의 사회주의적 생산양식은 북한의 간부나 주민 할 것 없이 모두 공적 부문의 행위양식에서 무사안일, 개인주의, 이기주의, 본위주의, 책임감 없이 시키는 대로 수동적으로 하는 척만 하는 인성을 형성시켰기 때문이다. 즉, 물질적 사회적 인센티브에 의하여 개인이 자발적으로 일을 찾아서 작업능률과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이든지 위에서 시키지 않으면 하지 않는 인성이 만연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북한의 간부들과 일반주민들의 작업태도에 대한 북한 지도부의 질타가 끊임 없이 없었다.

주체사상이 발전과정으로서 ‘주체’라는 말이 최초로 사용된 것으로 알려진 김일성의 연설<sup>179)</sup>의 뒷부분에서도 북한 노동자들의 주인다운 자각성 없는 작업태도들을 질타하였다.

인민대중을 사회주의사상으로 교양하는 것이 선전선동 사업의 주 되는 내용으로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노동자, 농민, 특히 노동자들에게 그들이 정권의 주인이라는 것을 명백히 인식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자각이 높으면 노동자들이 자기의 직장과 기계설비들을 애호하며 일도 열심히 하고 규율도 잘 지키고 반혁명분자와도 잘 싸우고 모든 것을 주인답게 할 것입니다. --- 누구나 다 자기가 주인이라는 것을 알 때에는 열성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혁명활동을 할 때 돈을 주고 시켜서야 누가 그런 일을 하였겠습니까. 혁명을 해야 자신의 운명을 개척할 뿐아니라 조국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자각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잠도 자지 않고 배고픈 것을 잊어버리고 투쟁하였습니다. 노동자들도 자신의 노동이 자기의 행복과 사회의 번영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명백히 자

179) 김일성,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 데 대하여,” (당 선전선동 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 1955년 12월 28일).

각할 때에는 모든 힘과 열성을 다하여 일할 것입니다.

생산수단이 국유화되어 있는 명령경제체제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작업태도를 잘 드러낸 대목이다. 70년대 김정일의 연설에서도 그러한 내용이 자세히 드러나고 있다.

지금 일군들가운데는 맡겨진 혁명과업을 주인다운 립장에서 책임적으로 수행하지 않고 눈치놀음을 하면서 요령주의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행정경제부문의 일부 지도일군들은 사업과정에 무슨 결함이 나타나면 그 원인을 주관에서 찾고 결함을 고치기 위하여 애쓰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이리 밀고 저리 밀면서 발뺌을 하는가 하면 아래일군들이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똑똑한 결론을 주지 않고 질질 끌거나 적당히 해보라는 식으로 대답하면서 우유부단하게 행동하고있습니다.<sup>180)</sup>

형식주의, 요령주의에 대한 질타는 60년대 70년대 김일성과 김정일의 연설에서도 무수히 많이 나타났는데 1990년대 중반의 김정일의 연설에서도 여전히 되풀이되고 있다. 사회주의적 생산양식이 야기한 인성은 새로운 물질적 인센티브의 제도가 도입되지 않으면 인간개조 사업에도 불구하고 잘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군들속에서 사업을 눈가림식으로 실속없이 하는 형식주의, 요령주의를 없애야 합니다. 사업에서 형식주의, 요령주의는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와 근본적으로 배치될뿐아니라 당과 혁명에 대한 불성실한 태도의 표현입니다. 사업을 형식적으로, 요령주의적으로 하는 사람은 걸치레로 발라맞추는데 버릇되고 건달풍에 물젖게 되며 나중에는 당을 속이는것도 서슴지 않게 됩니다. 책임을 회피하고 발뺌을 하는

---

180) 김정일, “당생활을 강화하여 간부들을 철저히 혁명화하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일군들과 한 담화 1970년 12월 3일), 『김정일 선집』 2 (조선로동당출판사, 1993), p. 125.

것과 같은 혁명가답지 못한 현상들도 철저히 없어야 합니다.<sup>181)</sup>

김정일은 북한의 간부들과 일반주민들이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심하다고 지적하면서 그것을 자본주의적 속성이라고 질타하고 있다. 그런데 그것은 자본주의적 속성이라기 보다는 명령경제 방식의 사회주의적 생산양식이 야기한 필연적 인성구조인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생산양식이 사회주의적으로 개조되었지만 인간의 본성까지는 개조되기가 어렵다는 것이 지난 70여 년 동안의 소련 사회주의 실험의 실패에서 증명된 셈이다. 물질적 인센티브가 없이 이데올로기적 동원만으로는 인간이 쉽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90년대 중반의 북한주민들의 인성은 정권초기의 그것과 전혀 다르지 않으며 사회주의적으로 온전히 개조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사상분야에서의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와의 투쟁은 본질에 있어서 집단주의와 개인주의와의 투쟁입니다. --- 개인주의, 리기주의는 혁명화의 기본 장애물이며 기본 투쟁대상입니다. 일군들속에서 나타나는 혁명화되지 못한 여러가지 현상들, 온갖 비당적, 비사회주의적 현상들은 어느 것이나 다 개인주의, 리기주의에 뿌리를 두고있습니다. 사회와 집단은 어떻게 되든 자기 한몸의 안일만을 추구하고 제 살 궁리만 하는 것은 사회적 인간의 본성과 배치되며 사람다운 풍모를 저버리는 수치스러운 행동입니다. <sup>182)</sup>

김정일이 간부들과 일반주민의 잘못된 행위양식의 하나로 자주 질타하고 있는 또 하나의 문제가 ‘본위주의’이다. 기관이나 소집단 단위의 개인주의 및 이기주의인 셈이다.

---

181) 김정일,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간부들을 철저히 혁명화할데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4년 5월 24일), 『김정일 선집』 13권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p. 405.

182) 위의 글, pp. 408-9.

지금 본위주의도 우리의 전진을 크게 저해하고있습니다. 본위주의는 혁명의 리익, 국가의 리익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부분, 자기 단위의 협소한 리익만 추구하며 당사업과 행정경제사업에서 통일적지도와 협동을 저해하는 매우 유해로운 경향입니다. 일군들은 본위주의를 철저히 없애고 모든 문제를 당적, 국가적 립장에서 혁명의 리익에 맞게 서로 힘과 지혜를 합쳐 풀어나가는 기풍을 가져야 합니다.<sup>183)</sup>

사회주의적 생산양식이 야기한 인성의 특성으로서 간부들의 개인차원의 이기주의가 대민 업무에서 나타난 행위양식이 바로 관료주의와 세도주의이다.

우리 당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이라는 구호를 내놓고 모든 일군들이 언제나 인민의 요구와 리익을 첫 자리에 놓고 그 실현을 위하여 투쟁하며 인민들과 고락을 같이할데 대하여 강조하여왔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적지 않은 일군들은 자기를 특수한 존재처럼 여기면서 인민들의 요구와 리익을 위하여 성실하게 일할 대신 세도를 쓰고 관료주의를 부리며 자기 개인의 리익과 안락만 추구하면서 특권행세, 귀족행세를 하고있습니다. --- 일군들속에서 나타나는 부정적현상은 그것이 크건작건 당의 권위를 훼손시키고 우리 당이 이룩해놓은 업적을 손상시키며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에 금이 가게 하고 우리 나라 사회주의의 영상을 흐리게 하는 해독작용을 합니다.<sup>184)</sup>

### ‘주인다운 사람’ 만들기 위한 인간개조 이론으로서의 주체사상

1972년에 새롭게 개작된 북한의 주체사상은 이러한 주민들의 무사안일주의, 수동성, 소극성, 개인주의, 이기주의, 본위주의 등의 인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제시된 것이다. 60년대에 반대파 간부들의 종파

183) 위의 글, p. 405.

184) 위의 글, p. 408.

주의를 비판하던 김정일의 관심이 권력 기반이 어느 정도 안정화된 70년대 들어서는 간부들의 일상적인 근무태도에 관심을 보였다는 정치적 상황과도 관련이 있다.

주체사상의 첫단계가 맑스-레닌주의를 북한의 실정에 맞게 ‘창조적으로’ 적용하되, 큰 나라가 하는 대로 따라하는 사대주의를 반대한다는 대외적 자주성을 근간으로 하는 개념으로 특징지어질 수 있다면, 1972년에 발표된 ‘인간중심의 주체사상’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간”이라는 인간중심의 세계관으로 새롭게 구성된 것으로서 황장엽이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첫째 단계와 둘째 단계에서 주체라는 어휘는 동일하지만 그 의미는 전혀 다르게 되었다. 첫째 단계의 주체는 대외적 자주, 경제적 자립, 국방에서의 자위 등을 의미한다면, 둘째 단계의 주체사상은 인간이 역사발전의 주체라는 개념이다. 인간은 동물과는 달리 의식을 가지고 있고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연환경을 극복하고 사회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주체적인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인간이 세계의 주인이라는 논리이다. 첫단계의 주체사상이 기본적으로 맑스-레닌주의를 이념적 전제로 한 사상이라면 인간중심적 주체사상은 맑스-레닌주의를 폐기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사상이다.

북한의 주체사상은 이렇게 논리적으로 연결될 수 없는 개념들이 주체라는 하나의 글자로 담겨져 있는 기이한 현상을 보이고 있는 셈이다. 첫단계의 주체의 개념은 반사대주의 또는 자주가 핵심적 내용이며, 영어로는 self-reliance로 번역할 수 있는 개념이며, 둘째 단계의 주체의 개념은 주인 또는 주도자의 뜻으로서 영어로는 subjecthood, lord, initiator 등으로 번역할 수 있는 개념이다.

주체사상에 대한 북한 당국과 김일성의 인식에서도 주체사상이 새롭게 개작된 배경을 잘 읽을 수 있다.

주체사상은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 원리를 당건설 분야에 구현하여 당사업의 기본은 사람과의 사업이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밝히고 사람과의 사업을 잘해 나가는 데서 나서는 모든 원칙적 문제들을 전면적으로 해명하고 있다.

“당사업의 기본은 사람과의 사업입니다. 다시말하여 간부들과 당원들과 군중을 하나의 사상의지로 무장시켜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며 그들을 당정책 관철에로 조직동원하는 사람들과의 조직정치사업이 바로 당사업입니다.”<sup>185)</sup>

당사업의 기본이 사람과의 사업이라고 할 때 그것은 본질에 있어서 행정경제사업이나 기술실무적 사업이 아니라 사람들을 교양하고 움직이는 조직정치사업이며 물건이나 기계를 대상하는 사업이 아니라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당은 사람과의 사업을 통하여 제기된 모든 혁명과업을 풀어나간다.<sup>186)</sup>

북한은 ‘인민대중이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라는 주체사상의 구호를 인민대중에 대한 사상개조운동의 명분으로 활용하고 있다. 새로운 주체사상이 만들어진 이후 북한주민들은 ‘주인답지 못하다’는 비난에 직면하게 되었고 결국 인간개조운동의 대상으로 전락한 것이다. 인간을 주인으로 대접하겠다는 사상이 실제로는 인간을 인간개조의 대상으로 전락시킨 셈이다. 주체사상이 형식주의, 요령주의, 이기주의에 빠진 북한주민들의 인성을 개조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지금 전반적 사회형편으로 보나 당안의 형편으로 보나 사상생활에서 나타나고 있는 주요 결함은 모든 일에서 주인다운 태도가 부족한 것입니다. -- 주인답게 일하지 않고 되는데로 일하는 현상은 특히 사회주의 경제건설 분야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sup>187)</sup>

185) 김일성,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1970년 11월 2일), 『김일성저작집』, 25권, p. 336.

186) 사회과학출판사, 『영도체제』 (주체사상총서 9) (서울: 지평, 1989), p. 124.

187) 김일성, “현시기 당사상사업을 개선강화하기 위한 몇가지 과업,” (당

이러한 개념에서 시작된 인간개조사업은 북한에서 사회개조사업과 함께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수단으로서 대대적으로 추진되었다. 총10권의 『주체사상 총서』 중의 하나가 「인간개조리론」<sup>188)</sup>이라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 주체사상은 곧 주인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지는 이론으로 해석되고 있다. 주체사상은 인민대중에 대한 정치적 경제적 동원의 이념으로 많이 활용되었다. 김일성과 김정일에 대한 충실성예의 동원, 노동예의 동원을 위하여 주체사상이 이념적 도구로 사용된 것이다. 인민대중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혁명과 건설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자면 혁명과 건설의 직접적 담당자인 인민대중을 옹계 조직동원하여야 한다. 온갖 낡고 반동적인 것을 쓸어버리고 새롭고 선진적인 것을 창조하는 혁명투쟁에서 그 주인인 인민대중의 역할을 어떻게 높이는가 하는 것은 혁명의 성과를 좌우하는 근본문제의 하나로 된다. 사상사업을 앞세워 인민대중의 정치사상의식을 끊임없이 높이고 그들이 혁명과업수행에 자각적으로 동원되도록 하는 것은 대중령도의 가장 힘있는 사업방법이다.<sup>189)</sup>

주체사상에 나타난 북한 지도부의 의도는 주민동원이다.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위한 정치적 동원, 노동예의 동원이다. 그러나 오늘날 주체사상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은 「자기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라는 민주주의적 개념인 것으로 서서히 지각하기 시작하였다. 북한주민들이 주체사상을 평가할 때 사상은 좋은 데 현실과 맞지 않다고 평가하

---

사상사업부문 일군회의에서 한 담화, 1973년 6월 13일), 「김일성저작집」, 28권.

188) 사회과학출판사, 「인간개조리론」(주체사상총서6),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189) 한병희, “사상사업을 앞세우는 것은 당정책관철의 기본,” 「근로자」, 1973년 10호, p. 20.

는 이유 중의 하나가 여기에 있다.

### 3. 주민동원 정책에 대한 정당화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주체사상이 북한체제에 미친 영향은 초기에는 “반사대주의 또는 자주노선”의 구호 하에 김일성 권력을 지키기 위하여 기능하였고, 그리고 70년대에는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라는 구호 하에 사회주의적 타성에 젖은 주민들의 소극적 작업태도를 교정하기 위하여 주로 활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밖에도 주체사상은 북한의 유일 지도이념으로서 각 부문의 정책 방향에도 영향을 미쳤다. 주체사상총서 제3권 『주체사상의 지도적 원칙』에는 초기 주체사상에서 주장된 “사상에서의 주체,” “정치에서의 자주,” “경제에서의 자립,” “국방에서의 자위”가 자주적 입장을 견지하기 위한 원칙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4가지 자주노선은 대외적 외교 뿐만 아니라 경제에서의 자력갱생 노선을 정당화하는 이론으로 활용되고 있는 셈이다.

70년대의 새로운 주체사상의 구호인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라는 구호는 경제관리방식, 문화건설이론, 영도예술, 영도체계 등의 영역에서 핵심이론으로 활용되고 있다. 주체사상총서 7권의 『사회주의경제건설이론』은 사회주의경제제도가 본질적으로 우월하다고 주장하는 등 경제제도를 정당화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사회주의경제제도하에서는 근로자들이 다같이 생산수단의 주인으로서 그것을 평등한 입장에서 이용한다. 그러므로 노동력의 소유와 이용이 분리되지 않으며 모든 근로자들이 사회와 자신을 위하여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활동을 적극 벌이게 된다.<sup>190)</sup>

190) 사회과학출판사 편, 『사회주의경제건설이론』 (주체사상총서 7) (서울:

나아가 북한은 자력갱생 경제발전정책이 확대재생산에 효과적인 체제라고 주장하였다. 북한의 폐쇄주의적 정치에 기인하여 채택된 폐쇄주의적 경제를 자력갱생이라는 개념으로 제시하고 이것을 주체사상으로 이론화한 셈이다.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것은 민족경제의 자립적이며 종합적인 재생산균형을 보장함으로써 경제발전을 높고 안전한 속도를 이룩하게 하며 사회총생산물과 국민소득의 빠른 성장을 가져오게 한다. ---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킬데 대한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기본노선은 또한 생산수단생산과 소비재생산 발전의 균형을 가장 합리적으로 설정하게 함으로써 사회주의적 확대재생산을 끊임없이 성과적으로 실현해나갈 수 있게 한다.<sup>191)</sup>

주체사상은 이 밖에도 기술혁명, 대안의 사업체계를 정당화하는 이념으로도 활용되었다. 기술혁명은 생산과정을 기계화함으로써 근로자들을 힘든 노동에서 해방한다는 논리로 설명하고 있다.

기술혁명은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추구하는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만 제기될 수 있고 인민이 주인으로 되고 있는 사회주의사회에서만 수행될 수 있는 인간해방의 성스러운 과업이다.<sup>192)</sup>

주체사상이 북한에서 행한 정당화 역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체사상총서 제9권<sup>193)</sup>과 제10권<sup>194)</sup>에 소개되어 있는 대로 북한의

---

태백, 1989), p. 49

191) 위의 책, p. 122.

192) 위의 책, p. 157.

193) 사회과학출판사 편, 『영도체계』 (주체사상총서 9).

194) 사회과학출판사 편, 『영도예술』 (주체사상총서 10) (서울: 지평, 1989).

수령체제를 정당화하는데 있다. 주체의 영도방법은 수령의 영도라고 정식화하였으며, “혁명과 건설에 대한 영도는 노동계급의 수령의 영도”라고 선언하였다.<sup>195)</sup> 수령의 영도에서 강조한 영도원칙은 수령의 유일적 영도의 실현이라고 보았다.<sup>196)</sup>

그리고 주체사상이 북한체제에서 행한 기능의 핵심은 북한주민들을 정치와 경제에 동원하는데 있다. 주체사상총서의 마지막 제10권은 「영도예술」이라는 제목으로 대중동원에 관한 방법론을 자세히 제시하였다. 북한에서 영도란 다름아니라 근로대중에 대한 동원적 지도방식이다.

혁명운동, 공산주의 운동에서 지도문제는 다름아닌 인민대중에 대한 당과 수령의 영도문제이며 인민대중을 의식화, 조직화하여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동원하는 당과 수령의 영도는 과학적이고 원숙한 방법에 의거할 때에만 성과적으로 실현된다.<sup>197)</sup>

대중동원의 방식을 예술의 경지로 높여서 칭하고 있다. 대중동원이란 사람을 움직이는 것이다. 이것이 주체사상의 본질이라고 볼 수 있다.

영도예술이란 한마디로 말하여 사람들을 움직이는 방법입니다. 군중속에 들어가 그들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그들이 창발성을 내어 일하도록 적극 고무해주며 군중을 발동하여 제기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바로 영도예술입니다.<sup>198)</sup>

영도예술은 대중동원의 전형적인 형태로서 천리마작업반 운동,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 배우는 운동을 제

195) 사회과학출판사 편, 「영도체계」 (주체사상총서 9), p. 34.

196) 위의 책, p. 47.

197) 사회과학출판사 편, 「영도예술」 (주체사상총서 10), p. 11.

198) 위의 책, p. 11.

시하였다.<sup>199)</sup>

이처럼 주체사상은 사상 그 자체가 정책방향을 제시한다기보다는 이미 정해진 정책방향을 정당화하는 것이다. 가령 자력갱생의 경제발전 전략도 이미 정치적으로 폐쇄주의 체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뒤에 이를 사후적으로 주체사상으로 설명함으로써 정당화하는 것이다. 주체사상에 의한 천리마작업반 운동 등도 이미 시행중인 노동동원 방식인데 주체사상으로 사후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맑스-레닌주의가 북한체제의 골격을 형성하는 방식으로 기능하는 것에 비해본다면, 주체사상은 정치적으로 이미 결정된 정책방향에 북한주민들을 동원하는데 기능하는 이데올로기인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

199) 위의 책, p. 42.

## VII. 북한의 맑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의 비교

### 1. 맑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과의 관계

주체사상과 맑스-레닌주의의 관계를 두가지 대표적인 문건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하나는 주체사상을 체계화시켜 김정일의 이름으로 발표된 1982년의 「주체사상에 대하여」<sup>200)</sup> 문건이며, 다른 하나는 1985년에 발간된 「주체사상총서」 10권 중에서 제1권 「주체사상의 철학적 원리」이다.

북한의 「주체사상총서」에 의하면, 맑스주의가 철학, 정치경제학, 과학적 사회주의 3대구성으로 되어있듯이, 김일성의 혁명사상도 3대구성으로<sup>201)</sup> 되어 있는데 그것은 주체사상, 혁명이론, 영도방법으로 나누어진다는 것이다.<sup>202)</sup> 주체사상이 맑스-레닌주의를 대체하였기 때문인 듯 맑스-레닌주의와의 맥락에서 주체사상의 역사적 위치를 설명하고 있다.

이 문건들은 우선, 북한이 맑스-레닌주의를 폐기하고 주체사상을 제시한 것은 시대의 발전이 세계관의 발전을 동반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맑스-레닌주의가 출현한 것은 그 당시의 시대상황에 맞는 사상이지만, 자본주의가 폐지되고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된 이제는 다른 사상이 필요하다는 요지이다.

200) 김정일, “주체사상에 대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70돛기념 전국주체사상토론회에 보낸 논문 1982년 3월 31일), 『김정일 선집』 7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201) 「주체사상총서」는 제1권-제3권이 주체사상, 제4권-제8권이 혁명이론, 제9권과 제10권이 영도방법을 다룬다.

202) 사회과학출판사 편, 「주체사상의 철학적 원리」 (주체사상총서 1권), (서울: 백산서당, 1989), p. 44.

지난날 세계관의 발전력사는 상반되는 두 철학조류인 유물론과 관념론, 변증법과 형이상학의 투쟁력사였습니다. 맑스주의는 이 투쟁에서 유물론과 변증법의 승리를 확정하였습니다. 맑스주의 유물변증법적 세계관의 출현은 당대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

시대의 발전은 세계관의 발전을 동반합니다. 로동계급의 진출과 함께 개시된 혁명의 끊임없는 확대발전은 이제까지 력사의 대상으로 되어온 근로인민대중이 력사의 주인으로 등장하는 새로운 시대의 탄생을 가져왔습니다.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이 세계를 지배하는 위대한 역량으로 등장한 새시대는 그들이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되어 그것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하며 민족해방, 계급해방, 인간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승리적으로 실현해나갈 수 있게 하는 새로운 세계관의 출현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력사적 과제는 주체사상이 창시됨으로써 빛나게 해결되었습니다.<sup>203)</sup>

아래의 인용문에서 보듯이 이전의 맑스-레닌주의에 의하여 세계의 시원문제가 유물론적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주체사상은 이제 세계에서 사람의 지위와 역할 문제를 철학의 근본문제로 새롭게 제기하고 세계의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 문제에 해답을 주었다고 주장한다. 즉, 주체사상은 맑스-레닌주의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킨 사상이라는 주장이다.

세계의 주인으로서의 사람의 지위와 역할을 밝힌 주체사상의 철학적원리는 사람에 대한 새로운 해명에 기초하고있습니다. 사람에 관한 문제는 선행철학들에서도 수많은 논의되어왔지만 대부분 그것은 사회적 관계를 떠나 순수 인간에 대한 추상적인 견해에 머물러있었습니다. 인간의 본질에 관한 문제는 맑스주의에 의하여 사회적 관계속에서 제기되고 해명되었습니다. 주체사상은 사람을 사회적 관계속에서 보면서 인간의 본질적 특성을 새롭게 밝혔습니다. 주체사상에 의하여 사람은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사회적 존재라는 것이 밝혀짐으로써 인간에 대한 완벽한 철학적 해명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주체사상이 사회적 인간에 대한 과학적 해명에 기초하여 사

203) 김정일, “주체사상에 대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70돐기념 전국주체사상토론회에 보낸 논문 1982년 3월 31일), p. 205.

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 원리를 천명한 것은 세계관에서 새로운 변혁을 가져오게 한 철학적 발견으로 됩니다.<sup>204)</sup>

또한 김정일의 문건은 맑스-레닌주의가 관념론과 형이상학을 극복하고 유물변증법을 제시하였듯이 주체사상도 관념론과 형이상학과 대립된다고 주장함으로써 주체사상이 맑스-레닌주의를 창조적으로 발전시킨 사상임을 시사하고 있다.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사상, 다시말하여 사람이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이며 세계의 개조자, 자기 운명의 개척자라는 사상은 관념론이나 형이상학과는 근본적으로 대립됩니다. --- 사람이 세계와 자기운명의 주인이며 세계를 개조하고 자기 운명을 개척할수 있다는 사상은 신비주의와 숙명론을 부인한 유물론적, 변증법적 입장을 전제로 합니다.<sup>205)</sup>

주체사상은 맑스-레닌주의의 노동계급적 세계관을 계승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즉, 계급이론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는 셈이다.

주체사상은 선행한 혁명리론에 옳바로 대할수 있게 하는 지침으로도 됩니다. 노동계급의 선행한 혁명리론은 오늘과 다른 시대적 조건과 과업을 전제로 하여 나왔지만 계급적 리념과 사명에 있어서는 주체사상에 기초한 혁명리론과 공통성을 가지고있습니다. 주체사상은 기성리론과 경험에 창조적으로 대하는 원칙을 제기함으로써 선행혁명리론을 우리 시대의 혁명실천의 요구에 맞게 구현하고 발전시켜나갈수 있게 합니다. 특히 그것은 노동계급과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철저히 옹호하고 실현하는 입장을 견지함으로써 혁명을 중도에서 포기하거나 계급투쟁을 부인하는 수정주의를 비롯하여 온갖 기회주의를 정확히 가려보고 극복하며 노동계급의 혁명리론에서 계급적 원

---

204) 위의 글, p. 206.

205) 위의 글, p. 206.

칙과 계속혁명의 정신을 확고히 고수해나갈수 있게 합니다.<sup>206)</sup>

주체사상이 창시된 의도는 인민대중의 혁명적 열의와 창조력을 발양시키기 위한 것임을 아래의 인용문이 잘 드러내어 주고 있다. 즉,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라는 명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밝혀주고 있는데, 이 내용은 인민대중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맑스-레닌주의를 계승하면서도, ‘인민대중의 혁명적 열의’를 동원하는 방법 또는 수단으로서의 주체사상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주체사상은 바로 인민대중의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으로부터 출발함으로써 인민대중의 근본리익을 옹호하며 그들의 높은 혁명적 열의와 무궁무진한 창조력을 옹호하여 발양시키는 리론과 전략전술을 내놓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노동계급의 혁명리론을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 철저히 옹호하고 그들의 역할을 최대한으로 높일 수 있게 하는 가장 위력한 혁명리론으로 되게 하였습니다.

주체사상과 맑스-레닌주의와의 관계는 1985년에 발간된 주체사상총서 시리즈에서 더욱 체계적으로 설명되었다. 주체사상총서 제1권에서는 「주체사상의 역사적 지위」 제하의 소절에서 “주체사상은 맑스-레닌주의를 계승한 사상이면서도 그의 내용에서나 구성에서나 질적으로 다른 독창적인 사상”이라고 주장하면서도<sup>207)</sup> “주체사상은 맑스-레닌주의와 다른 역사적 시대를 대표하는 사상이지만 노동계급의 혁명위업에 복무하는 그 계급적 이념과 사명의 공통성으로 하여 맑스-레닌주의와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다”<sup>208)</sup>고 주장하였다. “맑스주의에 의하여 처음으로 노동계급의 혁명적 세계관이 확립되었다면, 주체사상

206) 위의 글, p. 210.

207) 사회과학출판사 편, 「주체사상의 철학적 원리」 (주체사상총서 1권), p. 47.

208) 위의 책, p. 48.

에 의하여 노동계급의 혁명적 세계관은 새로운 높은 단계로 발전완성되었다”<sup>209)</sup>는 것이다.

## 2. 주체사상과 사회주의와의 관계

그렇다면 북한의 주체사상은 사회주의와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맑스-레닌주의에 의하면 맑스-레닌주의가 곧 사회주의를 의미한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맑스-레닌주의를 폐기하였지만 사회주의의 개념은 그대로 온존해 있다. 따라서 주체사상과 사회주의와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었는지는 이론적으로 중요한 부분이다. 『주체사상총서』에 사회주의제도의 본질에 대하여 밝혔다. “사회주의제도의 본질은 근로대중이 모든 것의 주인으로 되고 있으며, 사회의 모든 것이 근로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데 있다”는 것이다.<sup>210)</sup> 주체사상의 핵심적 내용 자체가 사회주의제도의 핵심적 내용으로 해석된 것이다. 사회주의제도가 맑스-레닌주의가 아닌 주체사상으로 재해석된 셈이다. 즉, 주체사상의 시각에서 본 사회주의의 의미는 “근로대중이 모든 것의 주인으로 되고 있으며 모든 것이 근로대중을 위하여 복무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명분은 인민대중이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의 주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사회주의제도하에서 인민대중은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의 주인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하여 사회주의사회의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옹호하고 책임을 다할 수 있게 되며 사회주의사회를 공고발전시키는데서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sup>211)</sup>

209) 위의 책, p. 48.

210) 사회과학출판사 편,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이론』 (주체사상총서 4), (서울: 백산서당, 1989), p. 334.

211) 위의 책, p. 340.

주체사상의 핵심이 사회주의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주체사상이 사회주의를 구현하는 이념적 도구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주체사상의 가치를 높이 들고 투쟁해 나가야 그 어떤 난관과 시련도 이겨내고 조국의 통일을 앞당길 수 있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중국적 승리를 이룩할 수 있습니다.<sup>212)</sup>

종합한다면 맑스-레닌주의가 사회주의이며, 맑스-레닌주의가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이념이었듯이, 북한에서는 주체사상이 사회주의이며, 주체사상이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이념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3. 맑스-레닌주의 없는 사회주의의 의미: 맑스-레닌주의가 감추어진 사회주의

앞의 논의에서 맑스-레닌주의는 곧 사회주의 사상이며, 맑스-레닌주의는 유물론, 자본주의는 착취적이라는 정치경제학, 그리고 노동자들을 각성시켜 자본주의를 전복하고 사회주의 혁명을 성취해야 한다는 사회주의론의 세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밝혔다.

이러한 세부분의 학설은 주로 자본주의를 전복하고 사회주의 제도를 수립하기 위한 사회주의 혁명과정에서 필요한 이론들이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시대의 발전은 세계관의 발전을 동반한다”<sup>213)</sup>고 주장하고 사회주의가 수립된 이후의 새로운 사상으로서 주체사상의 정당성을 주장한 북한 지도부의 입장은 타당한 면이 있다. 사회주의 제도가 일단 북한에서 수립되었으니 사회주의 제도를 계속

---

212) 김정일, “주체사상에 대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70돛기념 전국주체사상토론회에 보낸 논문 1982년 3월 31일), p. 213.

213) 위의 글, p. 205.

발전시키기 위하여 인민들의 혁명적 열의를 발양시키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생각되는 주체사상만 있으면 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맑스-레닌주의를 폐기하지 않고 존속시키면서 맑스-레닌주의에 부가하여 주체사상을 활용하는 것이 합당한 논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맑스-레닌주의를 폐기하고 주체사상만을 ‘유일한 지도이념’으로 채택하고 있는 데는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북한의 지도부가 맑스-레닌주의를 기피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령, 앞에서 지적했듯이 소련의 맑스-레닌주의가 우상숭배를 강력히 비판한 대목이라든지, 정적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반사대주의를 주장한 김일성에게 ‘주체의 확립’에 더욱 명분을 주기 위하여 소련에서 도입한 지배이념인 맑스-레닌주의를 순수 북한 이념으로 대체해야 할 필요가 있다든지 하는 이유이다. 그래서 명목상으로 맑스-레닌주의를 폐기하였던 것이며, 사회주의를 설명하는 논리적 체계가 보완되지 못한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의 추상적 개념으로서의 ‘맑스-레닌주의’는 폐기되었지만, 맑스-레닌주의를 구성하는 세부적인 사상들, 즉, 변증법적 유물론, 역사적 유물론, 잉여가치설, 노동착취설, 계급투쟁설, 전위당의 개념, 프롤레타리아독재의 개념 등은 온전히 그대로 남아서 북한 체제의 일부로서 살아있다는 것이다. 즉, 공식이념으로서의 ‘맑스-레닌주의’는 폐기되었지만 실질적 내용으로서의 맑스-레닌주의는 ‘사회주의’라는 개념과 동의어로서 북한체제에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북한체제의 유일지배이념은 주체사상”이라는 언명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논증된 셈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이 보고서의 제Ⅳ장은 맑스-레닌주의가 공식 지배이데올로기에서 퇴출되었지만 아직도 북한체제의 골격을 이루고 있다는 점을 부각한 것이다.

## Ⅷ. 북한의 주체사상 및 맑스-레닌주의와 개혁·개방의 논리

### 1. '강성대국론'의 경제우선 논리와 주체사상의 퇴조

주체사상이 행한 역할은 지도부의 의도에 크게 미치지 못하였던 것으로 평가된다. 형식주의, 요령주의 타파를 위하여 김일성과 김정일이 그렇게 지속적으로 외쳐대고 주체사상 사상교양을 강화하였지만 물질적 인센티브 없는 이데올로기의 효과는 매우 미약함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를 두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북한경제에서 노동생산성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였으며 경제침체는 지속되고 있다. 주체사상이 노동동원에 미친 효과가 별로 없다는 뜻이다. 둘째, 주체사상을 끊임없이 다른 말로 바꾸어서 사용했다는 사실도 주체사상의 효력이 미약함을 반증한다. 북한은 주체사상을 영생불멸의 사상이라고 주장하였지만 1980년대 후반부터 지속적으로 새로운 개념들을 동원하여 체제통합을 도모하였다. 우리식 사회주의, 조선민족제일주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론, 붉은기 사상, 강성대국론 등이 주체사상의 결함을 메우기 위하여 새롭게 만들어진 이데올로기적 개념들이다.

결국에는 주체사상과는 전혀 상이한 논리로 구성된 새로운 사상이 제시되었다. 강성대국론이 그것이다. 강성대국론은 경제난으로 말미암아 체제에 대한 회의와 절망감, 나아가서 불만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체제통합을 위한 새로운 이데올로기로 만들어 졌다. 경제난을 회복하여 부강한 나라를 만든다는 새로운 희망적인 메시지가 강한 새로운 이데올로기인 것이다.

강성대국론은 1998년 가을에 헌법을 개정하고 김정일이 국방위원장으로 취임하게 됨에 따라 공식적으로 김정일의 시대를 시작하는 시

점에서 나왔다. 1998년 9월 5일 최고인민회의의 10기 1차회의에서 채택한 수정 헌법이 국방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김정일을 국방위원장으로 추대하기 바로 직전인 8월 22일 『로동신문』 정론을 통하여 ‘강성대국론’이 발표되었다.

‘강성대국론’이 당시의 내용과 그 이후 지금까지 북한정치에서 행한 역할로 볼 때 ‘강성대국론’은 공식적인 김정일 시대의 공식 지도이념으로 제시된 것으로 파악된다.

‘강성대국론’은 김정일이 국정의 최고지도자로 취임하면서 제시한 국정목표이자, 미래의 비전이며, 통치이념으로서 특징지어지는 이념체계라는 것이 아래의 인용문에서 분명히 나타나 있다.

새사회 건설, 주체의 강성대국 건설, 이것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선대 국가수반 앞에, 조국과 민족 앞에 다지신 애국충정의 맹약이며, 조선을 이끌어 21세기를 찬란히 빛내이시려는 담대한 설계도이다. (중략)

이제 우리 장군님께서 이 땅위에 어떤 경이적인 현실을 펼쳐 놓으실 것인가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으며 적들은 상상도 못한다. ... 세상 사람들은 이제 보게 될 것이다. 우리 장군님께서 수령님의 애국한생이 어린 이 땅위에 어떤 모습의 강성대국을 어떻게 일떠 세우시는가를.<sup>214)</sup>

북한이 강성대국론을 통치이념으로 제시한 이유를 몇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북한의 주체사상은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경직되고 폐쇄적인 체제의 상징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국제사회의 식량 지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자제하지 않을 수 없는 구호이다.

둘째, 북한은 김정일 시대를 맞아 김정일의 리더십이 강조되는 새

---

214) 『로동신문』 정론, 1998. 8. 22.

로운 통치이념과 구호를 새롭게 만드는 방안을 모색했던 것으로 보인다. 주체사상은 새로운 김정일 시대의 새로운 통치이념으로는 참신성이 부족하며, 또한 사회통합과 사회동원으로서의 기능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을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식량난이 심화되어 생존이 어려운 상황에서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라는 구호는 현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궁색하게 인간중심론의 주체사상을 수령중심론의 주체사상으로 변형하기는 했지만 실제 효용가치는 별로 없었던 것이다.

셋째, 강성대국론은 간부들과 주민들의 체제불안 심리와 동요를 진정시키기 위하여 북한은 무너지지 않는 강한 국가로 발전될 것이며 김정일의 강력한 리더십이 이를 성취시켜 줄 것이라는 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하여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1998년 8월 30일에 발사된 대포동1호 미사일을 강성대국론의 상징으로서 대대적으로 홍보한 것은 이러한 의도와 일치한다. 사상강국, 군사강국, 정치강국이라는 구호를 하위구호로 포함하고 있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강성대국론은 북한이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시기인 1998년에 나왔다는 점에서 이데올로기적 성격이 매우 강하다.

강성대국, 듣기만 하여도 힘과 용기가 샘솟고 민족적 자존심을 가슴 후련히 폭발시켜주는 이 한마디.<sup>215)</sup>

넷째, 북한은 식량난으로 민심이 흉흉한 상황에서 군부를 무마하고 동시에 사회통합에 활용하기 위하여 1995년부터 선군정치라는 새로운 통치양식으로 통치를 하고 있는데 이 선군정치에 잘 부합하는 통치이념이 강성대국론이다. 아래의 인용문은 강성대국론이 선군정치와 가장 근접해 있는 상위개념임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

215) 위의 글.

위대한 수령님께서 언제나 그렇게 하시었던 것처럼 사상과 군대를 틀어쥐면 주체의 강성대국 건설에서 근본을 틀어쥔 것으로 된다.<sup>216)</sup>

다섯째, 새로운 통치의 수단으로 활용하게 된 선군정치라는 개념은 인민대중이 주인이라는 주체사상의 기본 개념과는 상치되는 개념이다. 또한 2002년 신년공동사설에서 제시한 4대제일주의 중의 수령제일주의와 군대제일주의도 주체사상의 인민대중중심의 개념과도 상치된다. 강성대국론과 주체사상을 동시에 강조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을 가중시킬 것이기 때문에 주체사상을 퇴출시키면 이러한 모순이 없어진다. 강성대국론이 더 설득력이 있는 통치이념으로 등장한 것은 이러한 상황변화에 기인한다.

### 강성대국론과 주체사상의 관계

강성대국론의 등장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가장 큰 관심은 강성대국론이 주체사상을 완전히 대체한 새로운 통치이념이나 아니면 주체사상이라는 큰 지배이념(dominant ideology)아래의 하나의 하위 통치이념(ruling ideology)이냐는 의문이다. 북한은 공식적으로는 강성대국론이 주체사상을 대체했다는 발표를 한 적이 없으며, 주체사상의 존속을 전제로 강성대국론을 설명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성대국론이 주체사상을 대체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북한이 강성대국론의 취지를 설명할 때 21세기 김정일 시대의 설계도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북한이 미국이 대항하기 위하여 힘을 길러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전자의 의미에서 본다면 새로운 시대의 새 지배이념으로 해석되고, 후자의 의미에서 본다면 주체사상의 아류

---

216) 위의 글.

로 이해되기도 한다.

그런데 논리적으로 볼 때 강성대국론과 주체사상은 모순적인 관계에 있다. 새로운 통치의 수단으로 활용하게 된 선군정치라는 개념은 인민대중이 주인이라는 주체사상의 기본 개념과는 상치되는 개념이다. 또한 2002년 신년공동사설에서 제시한 4대제일주의 중의 수령제일주의와 군대제일주의도 주체사상의 인민대중중심의 개념과도 상치된다. 강성대국론과 주체사상을 동시에 강조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을 가중시킬 것이기 때문에 주체사상을 퇴출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주체사상이 당국의 의도와는 달리 북한주민들에 의하여 일탈행위의 사상적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김일성 사후 주체사상을 언급하는 빈도수를 급격히 줄이고 대신 강성대국론을 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판단의 단서로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국 강성대국론이 주체사상을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강성대국론이 주체사상을 대체하고 있다는 증거의 하나는 강성대국론이 만들어진 그 이듬해 1999년 신년공동사설의 제목으로 올랐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1999년의 신년공동사설은 『올해를 강성대국 건설의 위대한 전환의 해로 빛내이자』라는 제목으로 “올해의 투쟁은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오랫동안 무르익혀오신 강성대국 건설의 웅대한 설계도를 전면적으로 실현해가는 역사적 진군”이라고 주장하였다. 1999년부터 2001년까지의 신년공동사설에는 주체사상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다. 각 년도의 신년공동사설에는 ‘주체혁명’, ‘주체위업’, 주체의 사회주의강성대국이라는 단어들만 한두 번 나타날 정도이며 ‘주체사상’이라는 말은 전혀 없다. 대남방송인 『평양방송』에서만 ‘김일성 혁명사상 강좌’라는 주제로 주체사상의 내용이 상세하게 방송되고 있다.<sup>217)</sup>

특이할만한 점은 2002년의 신년공동사설에서는 주체사상에 대한 언급이 1995년 이후 처음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2002년 신년공동사설의 제목은 「위대한 수령님 탄생 90돐을 맞는 올해를 강성대국건설의 새로운 비약의 해로 빛내이자」이다. 전체 내용은 강성대국론이 주조를 이루면서도 김일성에 관련된 업적을 부각하기 위해서 주체사상을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김일성을 ‘주체사회주의’의 시조로 보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다. 특히 ‘사상제일주의’를 언급하는 부분에서는 주체사상을 “혁명의 천하지대본”이라고 지적하면서 “주체사상을 튼튼히 틀어쥐고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상교육 관련된 부분에서의 주체사상의 의미는 아직 살아있다고도 볼 수 있다. 주체사상이 2002년에 새삼 되살아난 또 다른 이유의 하나는 부시행정부의 대북강경책에 대한 반응으로서 나온 것이며 대외적 자주노선을 강조함으로써 체제결속을 위한 것이다. 그런데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라는 개념의 주체사상은 별로 언급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 강성대국론이 아직 이론적 체계를 가진 이념체제로 발전되지는 않았다. “21세기를 찬란히 빛내이시려는 담대한 설계도”라고 규정한 것으로 볼 때 강성대국론은 김정일정권의 정책목표 및 정책방향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며 사회통합과 사회동원의 구호로서 활용되고 있는 수준이다.

## 2. 주체사상 및 맑스-레닌주의의 논리에서 본 개혁·개방의 의미

### 가. 개혁의 내용: 사회주의사회보장제에서 자본주의적 임노동제로

강성대국론이 경제난이 심화된 상황에서 제시된 경제발전 지향적인

---

217) 최근의 한 예를 든다면, “김일성혁명사상 강좌 154회,” 「평양방송」, 2001년 10월 3일 02:30시.

새로운 지도이념이라는 사실이 앞에서 강조되었다. 그런데 북한은 지도이념의 변화뿐만 아니라 사회주의체제의 골격도 변화시키고 있다. 그러한 변화의 핵심은 주인의식을 자각시키는 주체사상 이념에 의존해온 기존의 사회동원 정책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제는 효율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이념 대신에 물질적 인센티브로 대체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에서 지금까지 노동생산성이 낮은 원인 두가지를 다음과 같이 들 수 있다. 첫째, 사회주의 명령계획경제체제 하의 집단주의 작업장에서 적극적인 노동참여의욕을 잃고 수동적이고 무사안일주의로 사회의식이 변화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북한의 배급제를 근간으로 하는 노동보수제 때문이다. 그 동안의 보수체제는 현물배급제로서 저렴한 가격을 지불하기는 하지만 무상에 가까우며 이 무상배급제도는 노동의 양과 질에 거의 무관하게 1인당 정액의 배급을 받는 것이다. 이 제도 때문에 북한의 간부와 주민들은 열심히 일할 필요를 못 느끼었다. 열심히 일을 하든 않든 상관없이 정액제의 배급이 지급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회주의체제하에서 북한지도부의 최대의 관심은 주민들의 노동동원을 효율화하는 것이었다. 김일성과 김정일이 연설에서 가장 많이 강조한 것의 하나가 주민들과 간부들의 사업작풍에서의 형식주의, 요령주의, 이기주의, 무사안일주의, 본위주의를 질타하는 것이다.

일군들속에서 사업을 눈가림식으로 실속없이 하는 형식주의, 요령주의를 없애야 합니다. 사업에서 형식주의, 요령주의는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와 근본적으로 배치될뿐아니라 당과 혁명에 대한 불성실한 태도의 표현입니다. 사업을 형식적으로, 요령주의적으로 하는 사람은 걸치레로 발라맞추는데 버릇되고 건달풍에 물젖게 되며 나중에는 당을 속이는것도 서슴지 않게 됩니다. 책임을 회피하고 발뺌을 하는 것과 같은 혁명가답지 못한 현상들도 철저히 없애야 합니다.<sup>218)</sup>

70년대 주체사상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라는 구호를 내세워 주민들의 주인의식과 책임의식을 고양하여 노동에서의 요령주의와 무책임한 태도를 극복하고자 하였으며 사회주의적 인간개조사업의 이론적 기초로 활용되었다. 북한은 노동동원과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사상교양, 집단생활, 인간개조사업 등의 이데올로기적 수단에 치중하였다. 천리마운동, 속도전운동, 대홍단 정신, 성강의 봉화 등 농업과 공업부문의 각종 구호들은 노동력 동원에서 박차를 가해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이념체계들이다.

북한이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 7·1경제관리 개선 조치는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노동보수제에 있어서 기존의 사회주의 사회보장제도를 폐기하고 임금노동제<sup>219)</sup>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적 내용이다.<sup>220)</sup> 북한의 이번 ‘노동보수제’ 개선은 지금까지 주체사상과 같은 이데올로기와 사상교육으로 해오던 방식을 지양하고 화폐 및 물질적 인센티브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7·1경제관리 개선조치의 핵심은 국가의 현물 및 무상 제공을 없애고 일한 만큼 임금을 받아서 생필품을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사회주의적 사회보장제도를 최소화 및 폐지하는 것이다. 일하지 않고도 국가에서 공짜로 배급받던 제도를 폐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본주의적 임금노동 제도와 유사한 방식의 노동보수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218) 김정일,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간부들을 철저히 혁명화할데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4년 5월 24일), 『김정일 선집』 13권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p. 405.

219) 임금노동제는 노동자가 노동을 제공한 대가로 임금을 받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제도로서 자본주의 노동보수제의 핵심이며 갈 맑스가 자본주의를 분석할 때 자본주의의 특징을 임금노동제로 파악하였다.

220) 자세한 논의는 서재진, 『북한의 7·1경제관리개선 조치가 주민생활에 미칠 영향』 (통일연구원, 통일정세분석보고서 2002-5) 참조할 것.

일을 많이 한 사람은 많이 받는다는 ‘능력급제’를 도입하고, ‘실리 보장’이라는 개념 하에 화폐에 의한 유통제도를 도입하여 노동생산성 향상을 꾀하고 있다. 새로운 임금체계는 직급별로 기본급을 정하고 개인별로 노력하고 생산한 만큼의 성과급을 합하여 지급된다고 한다.

7·1경제관리 개선조치의 시행을 지시한 김정일의 지시내용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사회주의 노동생활의 기풍을 확립해 건달을 부리거나 놀고 먹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하며, 근로자들의 생활을 안정 향상시켜야 한다.
- 물질적 평가에 정치적 평가를 잘 결합시켜 노동량과 질이 높은 사람은 물질적 정치적으로 응당 평가를 받게 하며 분배에서 평균주의를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
- 현실의 변화발전에 따라 노동에 대한 새로운 평가, 분배방법을 연구 도입해서 사회주의 노동보수제를 더욱 개선하고 완성시켜야 한다.
- 경제생활에서 공짜가 많은데 이런 것들을 정리해야 하고 무상공급, 국가보상 기타 혜택들도 검토해서 없을 것은 없애야 한다.<sup>221)</sup>

김정일 지시내용의 핵심은 지금까지 국가가 공짜로 주던 제도를 중단하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공짜로 먹여주고 대신에 열심히 일하도록 사상적으로 독려하던 제도가 작동하지 않음을 인식하고 제도를 개혁하겠다는 것이며, 놀고먹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며, 보수체계를 이념에서 물질로 개혁하는 것이며, 노력한 만큼 벌어서 현금으로 구매하라는 것이다.

생계수단을 자기가 일한 만큼 받는 수입에 의존하도록 함으로써 노동윤리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하고 노동생산성을 높임고자 하는 것이다.

---

221) 명미상의 북한의 내부문건 (2001년 10월); 『조선신보』, 2002년 7월 26일자.

이러한 분석에 유사한 관찰이 박재규 전통일부장관의 방북 조사에서 이루어졌다. 지난 9월 KBS와 북한 합동연주회에 동행했던 박재규는 방북기간 동안 접촉했던 고위급 인사들에 대한 집중적인 면담을 실시하고 7·1경제관리개선 조치의 배경에 대하여 대략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분석결과를 발표하였다. 북한 관리들이 발언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sup>222)</sup>

북조선 성립이후 인민들이 초기에는 열심히 일하였으나 점차 게을러졌다. 농민, 광부, 어부 할 것 없이 모두 게을러졌다. 노동생산성이 아주 침체되었다. 매년 새해 시작시에는 엄청난 목표를 설정하였으나 연말에는 모두 가짜 허위보고로 끝냈다. 일을 열심히 한 사람과 안한 사람이 모두 똑같이 분배받았다.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하지 않았다. 이것이 북한의 병이다. 이 병을 치료하고 생산성을 올리기 위한 조치가 이번의 조치이다. 김정일의 명을 받아서 연구한 결과 채택된 조치가 7월1일의 경제관리개선조치이다.

### 암시장 통제와 중앙계획경제의 복원

7·1경제관리개선 조치는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주된 목적이지만 동시에 임금제도의 변화를 통하여 암시장으로 유출된 노동력을 공식경제영역으로 복귀시킴으로써 중앙계획경제를 복원하는 효과도 노리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암시장을 중심으로 시장화되어 가고 있는 북한의 실물경제를 사회주의 계획경제로 복원하기 위한 조치인 셈이다.

조총련의 「조선신보」는 “국가가격제정국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이번 개혁은 철저하게 사회주의원칙을 기초로 해서 단행된 조치”라고 밝혔

222) 박재규, “6·29 서해사건 이후의 남북관계,” 『통일IT포럼』 주최 세미나에서 발표한 논문, 2002.9.23, 프레스센터)

으며 “사람들의 경제활동이 화폐에 의한 유통형태를 취하게 되어도 생산수단의 전인민적 소유에 기초를 둔 계획경제의 테두리 안에 있다”고 지적하였다. 북한이 이번 가격개혁 조치 이후 암시장을 단속하고자 시도한 것으로 볼 때 이번 조치가 시장주의로의 개혁하고자 하는 의도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중앙정부의 재정수입 확대를 통한 예산배분 및 계획능력 복원

7·1경제관리개선 조치의 또하나의 효과는 그 동안 국가가 무료, 혹은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해오던 재화와 서비스의 종류를 최소화함으로써 국가의 재정적자를 줄이는 것이다. 집세와 교통비를 포함하여 모든 무료 또는 무료에 가까운 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하였고, 국경에 국가세무국을 설치하여 고액의 세금을 징수하고 있는데 이런 조치들은 모두 재정수입을 크게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다.

국가의 재정이 확보되어야 국영기업과 국가기관에 예산을 배정할 수 있고 강력한 중앙정부의 힘을 복원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조총련의 조선신보는 “나라가 허리를 펼 수 있도록 하는 현명한 조치”라고 평가한 것으로 보아 이번 조치의 목적의 하나는 국가재정 확충을 기도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 기업의 자율성 증대

김정일의 2001년 10월의 지시내용은 계획작성, 가격제정, 자재공급 전반에 걸친 것으로서, 계획작성은 전략적 중요성을 가진 지표의 경우 국가계획위원회에서 계획하지만 나머지는 해당 기업소에서 하도록 지시함으로써 기업의 자율성을 증대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지방경제 부문은 공업총생산액이나 기본건설 투자액 등 중요지표를 제외한 세부지표들은 도·시·군 자체 실정에 맞게 계획하도록 지시하였다. 가격제정에서도 지방공업 생산품(주로 소비재)은 상급기관의 감독 아래 공장 자체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자재공급체계에서도 생산물의 일부분을 자재용 물자교류에 사용할 수 있게 했으며, ‘사회주의 물자교류시장’을 허용하였다.<sup>223)</sup>

또한 기업책임경영제도를 일부 시험적으로 도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재일본 총련기관지 『조선신보』에 의하면 마그네샤클링카(마그네사이트를 고온에서 가공한 덩어리) 생산 수출 업체인 조선마그네샤클링카총회사가 최근 생산에서 수출까지 업무를 일원화했다고 한다. 과거에는 마그네사이트 광석 채굴과 가공공장은 채취공업성이, 가공된 제품의 수송은 철도성이, 대외판매는 무역성 산하 무역회사가 맡아오던 것을 총회사가 모두 총괄해서 책임경영을 하도록 한 것이다.

여러개의 부서로 나누어진 업무의 분업체계를 단일 기업내부에서 총괄하도록 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확대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일원화된 생산공정 및 품질관리를 통하여 제품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판매대금 일부를 설비와 자재확충을 위해 전용할 수 있는 권리를 총회사에 부여하여 기업단위의 창발성을 제고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sup>224)</sup>

223) 『조선신보』, 2002년 7월 26일.

224) 『중앙일보』, 2002년 10월 10일자에서 재인용.

## 개인영농제의 시범실시

함경북도 회령, 무산 등 일부지역에서 시범적으로 개인영농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30-50평에 불과하던 개인 텃밭을 400평으로 확대한 것으로 전해진다.

### 나. 개방의 내용

북한은 2002년 9월 22일 신의주를 홍콩과 같이 독자적 입법·사업·행정권을 가진 1국 2제의 자본주의적 행정특구로 개방했으며 개성공단과 금강산을 각각 경제특구와 관광특구로 개방했다. 이들 특구의 설치는 생산요소의 확보를 위한 것이다. 국내에서 만성적으로 부족한 생산요소를 외부에서 수혈받고 동시에 과학기술의 도입 및 학습, 경영기술의 도입을 위한 것이다. 북한은 최근 자본도입, 기술도입, 시장개척에 혈안이 되어 있는데 특구를 통하여 이런 목적들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신의주와 개성 특구에서 외화를 획득함으로써 초기 경제회생의 자금줄로 사용하고 특구에서 획득한 기술과 경영기법과 개혁개방의 실험을 북한의 본토로 확대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물론 지금은 그러한 의도가 없을 수도 있지만 특구에서 성공을 거둔다면 나머지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은 정해진 이치이다.

북한의 폐쇄적인 이미지를 일거에 개선하려는 의도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신의주 특구 발표를 통하여 매우 적극적인 개방의 이미지를 창출했다고 볼 수 있다. 신의주 특구 뿐만 아니라 북한 당국에 대한 지원과 경제협력을 수반할 것으로 기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신의주 특구의 설치에 북한이 명실상부하게 개방의 길에

나섰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볼 수 있다. 중국의 개혁초기보다 과감한 개방이라고 평가될 만큼 북한 지도부의 선택은 매우 과격적이다. 지난 10년 전 나진선봉에서의 개혁개방의 실험이 무참히 실패한 것을 교훈삼은 양 이번에는 매우 적극적으로 개방을 시작하였다.

<표 1> 신의주 특구 기본법과 홍콩특구 기본법 비교

	신의주 특구 기본법	홍콩 특구 기본법
지정시기	2002. 9	1997. 7
경제권한	자본주의제도 50년 보장, 토지 임대기간 연장 가능 명기, 사유재산권, 상속권 보장	자본주의제도 50년 보장, 연장 가능 불명기, 사유재산권, 상속권 보장
노동력 채용	국가가 특구내 설치 기업에게 북한 노동력 활용하도록 함	언급 없음
입법·행정·사법권	독자적 권한 부여	독자적 권한 부여
외교권	중앙정부가 관할	중앙정부가 관할, 특구정부 국제회의 국제기구에 독자 참여가능
국방권	중앙정부에 있고, 필요시 군대 주둔시킬 수 있음	중앙정부에 있고, 특구에 주둔군 파견, 주둔군 경비 중앙정부 부담
행정수장	행정장관	행정장관
치안유지	특구 정부가 전담하나, 주둔군에 치안·재해 구조 협조 요청 가능	특구 정부가 전담하나, 주둔군에 치안·재해 구조 협력 요청 가능
외국 정치조직의 활동 여부	다른 나라 정치조직의 활동 불허	외국 정치단체의 특구내 정치활동 금지
특구와 중앙정부의 관계	명문 규정 없음	중국 각 성·자치구 특구내 기구 설치 가능, 특구정부 북경에 사무기구 설치 가능
교육	사회과학교육은 중앙정부의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함	언급 없음
공용어	조선어	중국어, 영어

출처: 임강택 외, 『신의주 행정특구 지정의 의미와 전망』 (통일연구원, 2002).

이러한 특징은 신의주 기본법에 잘 나타나 있는데 독자적인 입법, 행정, 사법권을 특구가 독립적으로 행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기본법의 특징적인 내용의 하나는 사적 소유제도, 상속제도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 시장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북한의 신의주 행정특구의 특성을 잘 이해하기 위하여 북한이 모델로 삼은 홍콩의 행정특구와의 비교하여 보는 것이 필요하다. <표 1>에서 보는 대로 1국양제를 표방하고 있는 홍콩의 경우와 매우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사회과학교육을 북한당국의 해당기관과 합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부분이 가장 큰 차이점의 하나이다. 북한 체제로부터 입법, 행정, 사법권을 독립시키겠다는 규정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 의문시되는 부분이다.

#### 다. 경제 논리에서 본 개혁·개방의 의미

북한의 최근 개혁·개방은 북한 경제난의 두가지 애로 요인을 타파하기 위한 조치이다. 북한의 경제난의 원인을 요인별로 나누면 노동생산성 침체와 생산요소의 부족으로 대별할 수 있다. 북한의 중앙명령 계획경제 체제와 사회주의 사회보장체제에 기인하여 노동생산성이 극도로 저하되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가 7·1경제관리개선 조치이다. 즉 분배체계를 사회주의적 사회보장제도에서 임금노동제로 전환함으로써 생계를 개별 노동자의 생산성에 의존하게 한 것이다.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근간이 배급제도와 사회보장제도임을 감안한다면 7·1경제관리개선조치는 북한 사회주의의 근간을 폐기한 급진적인 조치인 것이다.

두 번째, 연료, 원료, 에너지, 노동력의 주요 생산요소의 만성적인 부족현상이 북한 경제의 애로의 하나였다. 북한은 이들 생산요소의

만성적인 부족 문제를 내부에서 조달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조달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북한은 사회주의권이 붕괴한 80년대 후반부터 일본의 수교를 통하여 외부수혈 방법을 모색하였으나 여의치 못하여 경제상황이 오늘처럼 침체하였다. 결국 북한은 생산요소 투입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일국양제의 신의주 특구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개방의 길로 나섰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의 최근 개혁·개방은 이처럼 경제난의 두가지 애로 요인을 동시에 극복하는 방안으로 취해진 조치인 것이다.

그러나 보다 더 적극적인 개혁과 개방은 남아 있다. 북한이 추구하는 경제발전 모델이 중국을 닮기 위해서는 북한 전역에 걸친 소유제도와 시장제도의 도입, 그리고 사상의 해방까지 가기에는 아직 먼 길이 남았다. 그러나 북한이 이번에 한꺼번에 이 정도의 변화를 취했던 점을 감안한다면 점진적으로 그 폭과 깊이를 확대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 라. 주체사상 및 맑스-레닌주의의 논리에서 본 개혁·개방의 의미

북한이 최근 취한 개혁과 개방의 의미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지배이념인 주체사상의 논리의 측면에서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주체사상은 그동안 북한의 통치의 원리로 사용되었고 정책의 방향을 설명하는 지도이념으로 활용되었기 때문이다.

주체사상의 핵심내용은 두가지로 나누어진다. 첫째는 1950년대와 1960년대에 정립된 내용으로서 반사대주의, 자주노선, 자력갱생(self-reliance)의 논리이다. 반사대주의는 주로 정적 타도를 위하여 활용되었고, 대외적 자주노선의 논리는 폐쇄주의의 논리로서 스탈린 사후 수정주의 바람과 우상화비판의 논리를 피해가기 위하여 만들어

진 것이며, 자력갱생의 논리는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선택한 폐쇄주의 경제체제를 정당화하기 위한 논리이다.

둘째는 1972년 황장엽의 주도로 개발된 주체사상으로서 핵심내용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subject)은 인민대중이며, 자기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라는 논리이다. 주민들로 하여금 역사의 주인으로서의 자각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라는 명분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개발된 사상이다. 60년대까지 정적들을 숙청하고 김일성 독점체제를 확립한 이후 경제성장에 주력할 시점에서 주민들의 소극적이고 형식적인 노동태도를 타파하기 위한 사상체계이다.

북한의 주체사상은 이처럼 두가지 상이한 내용을 복합적으로 담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자주노선의 개념으로, 대내적으로 주민들에 대한 노력동원 및 정치적 동원에 활용되었다.

그러나 경제가 철저히 실패한 상황에서 자주노선에 입각한 자력갱생의 경제발전 전략은 한계에 달하였다.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력갱생과 폐쇄주의적 경제발전 전략을 후퇴시킬 필요가 생겼으며, 이러한 취지에서 취해진 것이 개방의 노선이다. 주체사상은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폐쇄주의적 체제의 상징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지원에 장애가 되고 있는 만큼 이를 후퇴시키고 대신 강성대국론이라는 새로운 통치구호로 대체되고 있다.

또한 주체사상 이데올로기를 통한 노력동원과 생산성 향상의 통치양식이 효과가 없으며 경제침체의 주원인이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포기하고 대신 물질적 인센티브를 통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방식으로 변화한 것이 7·1경제관리개선의 개혁적 조치이다.

종합한다면 최근의 개혁과 개방은 주체사상의 두가지 핵심 내용인 자주노선과 주인으로서의 자각심을 고취하고자하는 주체사상과는 각각 상반되는 방향의 정책변화이다. 주체사상의 두가지 논리와 의미를

모두 폐기하고 있는 셈이다. 그 동안 북한체제의 유일적 지도이념이었고 영생불멸할 사상이라고 주장되던 주체사상이 이제 퇴조의 길에 들어선 셈이다.

그런데 주체사상을 폐기할 정도로 통치논리를 변화시키고 있지만 현재까지 취해진 조치만으로는 개혁·개방의 정도는 매우 미미하다. 북한이 보다 적극적인 의미의 개혁과 개방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맑스-레닌주의에 기초한 북한체제의 특성들이 변화되어야 한다. 가령,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개념이 변화하지 않고는 경제발전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과학기술자와 테크노크라트의 사회적 인센티브가 부여되기 어렵다. 노동계급이 영도하고 노동계급이 우대되는 체제하에서는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있는 경제를 발전시키기 어렵다.

또한 사적 소유제가 도입되지 않고 대신 착취제도의 산물이라고 배척되는 체제하에서 진정한 의미의 노동생산성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다. 임금노동제로의 체제변화 만으로는 노동생산성 향상에 충분하지 않다. 중국의 초기 개혁의 내용이 바로 소유제의 변화였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북한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예견되고 있다.

뿐만아니라 계급투쟁과 프롤레타리아독재와 같은 통치방식이 변화되지 않고는 북한주민들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경제활동을 기대하기 어렵다. 서방사회와 같이 계급투쟁이 아니라 다양한 계급간의 계급타협의 방향으로 계급정책이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맑스-레닌주의의 기본틀이 변화될 때 북한이 중국, 구소련 등과 같은 정도의 개혁·개방으로 진전될 수 있을 것이다.

## IX. 결 론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북한의 지배이념들 중에서 맑스-레닌주의가 행한 부분과 주체사상이 행한 부분은 따로 구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맑스-레닌주의가 북한 체제의 본질을 구성하고 있다면 주체사상은 북한의 정책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주로 활용되었다.

초기 북한체제의 형성과 현재의 북한체제의 구조적 이념적 특징을 형성한 사상적 배경은 맑스-레닌주의이다. 나아가서 현재까지도 북한체제의 본질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맑스-레닌주의이다. 생산수단의 사회주의화, 일당독재, 프롤레타리아독재, 계급투쟁, 폭력혁명, 전체주의 등의 북한체제의 특징을 형성한 것은 맑스-레닌주의에서 나온 것이며, 북한정권 수립 과정에서 소련이 미친 영향이다. 북한체제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맑스-레닌주의가 북한체제에 미친 영향을 올바르게 평가해야 하는 것이다. 맑스-레닌주의는 북한체제에서 국가(state)의 특성을 규정하는데 이념적 구실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에 반하여 주체사상은 국가와 사회와의 관계를 규정하는 정권(regime)의 성격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주체사상이 북한에서 행했던 기능은 북한체제의 구성원리이기 보다는 경제와 정치에서 주민들을 동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자주노선, 폐쇄주의, 자력갱생, 군중노선, 수령우상화 등의 정책을 정당화하는 이론적 분식으로 작용했다.

위에서 살펴본 대로 북한의 주체사상은 북한의 통치양식과 생산양식의 부산물이다. 첫째, 반사대주의 및 자주노선으로 특징지어지는 초기의 주체사상은 당시의 북한의 통치권력의 애로를 돌파하기 위하여 형성된 이념이다. 즉, 북한정권의 초기 연립정권의 권력 지형 때문에 불가피하게 권력투쟁이 격심하였고 권력투쟁에서 정적을 타도하기 위

하여 김일성은 주체확립이라는 명분의 주체사상을 만들게 되었던 것이다.

둘째, 70년대 새롭게 개작된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라는 내용의 주체사상은 북한의 사회주의적 생산양식에서 기인한 주민들의 노동생산성 하락을 극복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이념체계이다. 즉, 북한의 사회집단적 소유와 명령경제체제하에서 주민들의 작업의 태도는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고, 이기주의, 형식주의, 요령주의로 특징지어지는 인성을 발달시키게 되었는데 북한 지도부는 주인의식을 자각하라는 명분 하에 이기주의, 형식주의적 작업태도를 개선하기 위한 이데올로기로 주체사상을 발전시켰다.

70년대 이후 북한의 지배이념으로서 주체사상의 역할은 주로 주민들을 경제와 정치적 충성에 동원하는 사상교양에 활용되었다. 즉, 주체사상이 정책의 방향을 규정하기보다는 정치권력의 요구대로 형성된 정책의 방향을 정당화하는 구실을 한 측면이 더 많다고 볼 수 있다. 외교에서의 자주노선이나 경제의 자력갱생은 정치권력의 요구 때문에 이미 그렇게 정해진 정책방향이였다. 주체사상은 그것을 주체를 확립한다는 명분으로 정당화하는 기능을 했을 뿐이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반사대주의, 또는 자주노선의 의미로서의 주체사상만이 아직 어느 정도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요약컨대 북한의 가장 강력한 지배이데올로기는 맑스-레닌주의이다. 북한에서 언어적으로는 맑스-레닌주의가 폐기되었다고 선언되었지만 아직까지 권력의 구조와 정치체제의 특징을 구성하는 것은 맑스-레닌주의의 이론들이다. 공식적인 언명에서 맑스-레닌주의가 폐기되었다고 해서 맑스-레닌주의가 실제로 폐기된 것은 아니다. 이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역사적 사실이 북한이 주체사상을 새로운 지배이념으로 형성한 이후 맑스-레닌주의적 요소 중에서 폐기된 부분이

아무 것도 없다는 점이다. 최고지도이념이 주체사상으로 구호는 바뀌었지만 프롤레타리아 독재, 전위당, 계급투쟁, 폭력혁명 등의 맑스-레닌주의적 요소들은 모두 온존해 있다. 다만 맑스-레닌주의는 사회주의라는 이념의 표피 밑으로 잠수하게 된 것이다. 주체사상은 이러한 맑스-레닌주의를 은폐하기 위한 이데올로기적 구호로 활용된 측면이 강하다. 소련으로부터의 정치적 영향을 차단하기 위하여 소련의 지도이념인 맑스-레닌주의가 아닌 것으로 북한의 지도이념으로 새로 만들고자 했던 것이 당시의 주체사상이었던 셈이다. 북한체제의 구성원리는 사회주의이며 사회주의의 근간은 맑스-레닌주의이지 주체사상이 아니다. 북한체제의 구성원리인 맑스-레닌주의는 사회주의라는 이념 속에 묻혀있는 셈이며, 주체사상은 사회주의 외의 부분을 정당화하는 역할을 한 셈이다.

정말로 맑스-레닌주의가 폐기되고 주체사상이 전일적으로 북한을 지배하고 있다고 믿는다면 그것은 북한의 지도층의 지배이데올로기에 휘둘리는 격이다. 북한에서 주체사상이 유일한 지배이념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가장 이데올로기적인 언술이 되며, 그 언술을 뒤집으면 북한은 아직도 맑스-레닌주의에 의하여 조직되고 통치되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주체사상은 오히려 강성대국론에 의하여 대체되고 있는 중이다. 최근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개혁·개방의 움직임은 주체사상의 논리들을 허물어뜨리는 것임을 앞의 분석에서 발견하였다. 주체사상은 쇠퇴하고 있지만 북한체제의 골격을 구성하는 맑스-레닌주의는 오히려 변화하지 않고 있다. 계급투쟁, 국가소유제도, 당의 조직원리 등은 변화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북한에서 진정한 의미의 개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맑스-레닌주의가 변화해야 한다. 맑스-레닌주의가 사회주의 이론의 원형이며 골격이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 1. 국문

- 고병철. “한국전쟁과 북한정체체제의 변화.” 고병철 외. 『한국전쟁과 북한사회주의체제 건설』. 서울: 경남대학교 극동 문제연구소, 1992.
- 김병로. 『북한사회의 종교성: 주체사상과 기독교의 종교양식 비교』. 통일연구원, 2000.
- 김성보. 『남북한 경제구조의 기원과 전개: 북한 농업체제의 형성을 중심으로』. 서울: 역사비평사, 2000.
- 김학준. 『한국전쟁』. 서울: 박영사, 1989.
- 레닌, V. I. 『칼 맑스』. 서울: 도서출판 새날, 1990.
- \_\_\_\_\_. 『국가와 혁명』. 강철민 옮김. 서울: 새날, 1991.
- 박재규. “6·29 서해사건 이후의 남북관계.” 『통일IT포럼』, 주최 세미나, 2002.9.23.
- 북한연구소 편. 『북한총람』. 서울: 북한연구소, 1980.
- 브라니츠키, P. 이성백, 정승훈 옮김. 『마르크스주의의 역사』(II). 중원문화사, 1989.
- 빅토르 아파나세프. 김성환 옮김. 『역사적 유물론』. 서울: 백두, 1988.
- 서대숙 지음. 서주석 옮김. 『북한의 지도자 김일성』. 서울: 청계연구소, 1989.
- 서재진. 『북한의 7·1경제관리개선 조치가 주민생활에 미칠 영향』. 통일연구원. 통일정세분석보고서 2002-5.
- \_\_\_\_\_. 『주체사상의 형성과 변화에 대한 새로운 분석』. 통

일연구원, 2001.

스켈런, James. *A Critical Survey of Current Soviet Thought*. 강재륜 역. 『소련의 마르크스주의』. 서울: 명문사, 1989.

스탈린. 『스탈린선집 I』. 서울: 전진, 1988.

\_\_\_\_\_. 『스탈린선집 II』. 서울: 전진, 1988.

신일철. 『북한 주체철학 연구』. 서울: 나남출판, 1993.

아이히호른 외 지음. 이상훈 외 옮김. *Marxistisch-Leninistische Philosophie*. 『역사적 유물론』. 서울: 동녘, 1990.

양호민. 『북한의 이데올로기와 정치』제2권. 서울: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1972.

유문신, 이육경. 『周保中傳』. 흑룡강성 인민출판사, 1986.

윤해수. 『러시아체제변동론』. 서울: 한올아카데미, 1995.

이육경, 이빈화. “在東北抗日戰場上的周保中志.” 『求是學刊』. 흑룡강대학보, 1981년.

이종석. 『현대북한의 이해: 사상, 체제, 지도자』. 서울: 역사비평사, 1995.

전현수. “소련군의 북한 진주와 대북한 정책.” 『한국독립운동사연구』9, 1995.

중앙일보특별취재반. 『비록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하) 중앙일보사, 1993.

체르티코프, G.P. 노중기 옮김. 『과학적 사회주의』. 서울: 백두, 1989.

펠뮤터, Perlmutter, Amos. *Modern Authoritarianism: A Comparative Institutional Analysis*. 김문조·

- 임현진 역. 『현대국가와 권위주의』. 정음사, 1986.
- 피셔, 에른스트 편저. *The Essential Lenin*, 『레닌주의의 이론구조』. 노승우 역. 전예원, 1986.
- 학우서방. 『변증법적 및 역사적 유물론』(하). 동경: 조선로동신문인쇄소, 1962.
- 황장엽. 『나는 역사의 진리를 보았다: 황장엽 회고록』. 서울: 한울, 1999.
- 『조선일보』
- 『중앙일보』
- 『연합뉴스』

## 2. 영문

- Brzezinski, Zbigniew. *The Grand Failure: The Birth and the Death of Communism in the Twentieth Century*. Macmillan Publishing Co., 1989.
- Department of State Publication No. 7118, Far Eastern Series No. 103 (Washington, D.C.: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61)
- Hough, Jerry and Merle Fainsod, *How the Soviet Union is Governed*.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1979.
- Kolakowski, Leszek. *Main Currents of Marxism, 2-The Golden Age*, New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78

- \_\_\_\_\_. *Main Currents of Marxism, 3 The Break-dow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78.
- Lenin, V. I. *State and Revolution*. Lenin's collected Works. vol. 5.
- Marx, K. and Frederick Engels. *The German Ideology*, ed. by C.J. Arthur. New York: International Publisher, 1970.
- Miliband, Ralf. *Class Power and State Power*. New York: Verso, 1983.
- Scalapino, Robert and Chong-Sik Lee. *Communism in Korea, Part I: The Movement*.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2.
- Suh, Dae-Sook. *Kim Il Sung: The North Korean Leader*.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8.
- U.S. Department of State. *North Korea: A Case Study in the Techniques of Takeover*, Department of State Publication No. 7118, Far Eastern Series No. 103 (Washington, D.C.: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61)

### 3. 북한원전

김일성. “건국사업에서 인테리들앞에 나서는 과업” (평양시내 교원, 인테리들 앞에서 한 연설, 1945년 11월 17

- 일). 『김일성 저작집』 제1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 \_\_\_\_\_. “3·1절을 맞이하며 조선인민에게 고함” (1946년 3월 1일 평안남도 3·1운동 기념대회에서). 『김일성 선집』 제1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49.
- \_\_\_\_\_. “조선림시정부수립을 앞두고 20개조 정강발표” (1946년 3월 23일). 『김일성 선집』 제1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49.
- \_\_\_\_\_. “토지개혁 총결보고에 대한 결론 요지” (1946년 4월 13일,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 제1차 확대회의에서). 『김일성선집』 제1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49.
- \_\_\_\_\_. “북조선 민주주의 민족통일전선위원회 결성에 대한 보고,” (1946년 6월 22일 북조선 민주주의 각 정당 사회단체 대표회의에서). 『김일성 선집』 제1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49.
- \_\_\_\_\_. “조선정치 형세에 대한 보고” (1947년 2월 8일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 성립 제1주년 기념대회에서). 『김일성선집』 제1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49.
- \_\_\_\_\_. “8·15해방 2주년 기념보고” (1947년 8월 14일 북조선인민회의 북조선인민위원회 북조선각정당 사회단체 평안남도 및 평양특별시 인민위원회 연합 8·15해방 2주년 기념대회에서). 『김일성 선집』 제1권. 평양: 1949.
- \_\_\_\_\_. “목전 조선정치형세와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의 조직 문제에 관한 보고” (1948년 2월 8일 북조선민주주의

각정당 사회단체 행정국 인민위원회 대표 확대협의회에서 행한 연설). 『김일성 선집』 제1권 .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49.

\_\_\_\_\_.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와 조선인민의 투쟁.” 『김일성 선집』 제4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53.

\_\_\_\_\_. “현재단계에 있어서의 지방정권기관들의 임무와 역할”(도, 시, 군인민위원회위원장 및 당지도 일군 련석회의에서 한 연설. 1952년 2월 1일). 『김일성 저작집』 제7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_\_\_\_\_. “당의 조직적 사상적 강화는 우리 승리의 기초,”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5차전원회의에서 한 보고, 1952년 12월 15일), 『김일성 저작집』 제7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_\_\_\_\_.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제30차전원회의에서 한 결론” (1954년 8월 23일). 『김일성 저작집』 제9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_\_\_\_\_. “농촌경리의 금후 발전을 위한 우리당의 정책에 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한 결론, 1954년 11월 3일). 『김일성 선집』 제4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0.

\_\_\_\_\_. “당원들의 계급교양 사업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한 보고, 1955년 4월 1일). 『김일성 선집』 제4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0.

\_\_\_\_\_. “모든 힘을 조국의 통일 독립과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을 위하여” (우리 혁명의 성격과 파업

- 에 관한 테제, 1955년 4월). 『김일성 선집』 제4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0.
- \_\_\_\_\_. “사회주의 혁명의 현단계에 있어서 당 및 국가사업의 몇가지 문제들에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한 결론, 1955년 4월 4일). 『김일성 선집』 제4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0.
- \_\_\_\_\_.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데 대하여.” 『김일성 저작집』 제9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 \_\_\_\_\_. “조선로동당 제3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 보고” (1956년 4월 23일). 『김일성 저작집』 제10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 \_\_\_\_\_. “사회주의건설에서의 혁명적 대고조를 일으키기 위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한 결론, 1956년 12월 13일). 『김일성 저작집』 제10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 \_\_\_\_\_. “위대한 10월의 사상은 승리하고 있다” (위대한 사회주의10월혁명 40돛에 즈음하여 발표한 론설, 1957년 10월 22일). 『김일성 저작집』 제11권. 평양: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 \_\_\_\_\_. “사회주의진영의 통일과 국제공산주의 운동의 새로운 단계”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확대전원회의에서 한 보고, 1957년 12월 5일). 『김일성저작집』 제11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 \_\_\_\_\_. “당사업에서 주되는 것은 모든 사람을 교양하고 개조하여 단결시키는 것이다” (1961년 1월 23일, 평

- 양시 송호구역 리현리당총회에서 한 연설). 『김일성 저작집』 제15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 \_\_\_\_\_. “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 (조선로당대표자회에서 한 보고 1966년 10월 5일). 『김일성 저작집』 제20권. 평양: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 \_\_\_\_\_. “당사업을 개선하여 당대표자회 결정을 관철할데 대하여” (도, 시, 군 및 공장 당 책임비서협의회에서 한 연설, 1967년 3월 17-24일). 『김일성 저작집』 제21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 \_\_\_\_\_.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와 프로레타리아독재 문제에 대하여” (당사상사업부문일군들앞에서 한 연설 1967년 5월 25일). 『김일성 저작집』 제21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 \_\_\_\_\_. “당대표자회 결정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함경남도 및 함흥시 당열성자회의에서 한 연설, 1967년 6월 20일). 『김일성 저작집』 제21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 \_\_\_\_\_.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스무돛기념 경축대회에서 한 보고, 1968년 9월 7일). 『김일성 저작집』 제22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4.
- \_\_\_\_\_. “현시기 당사상사업을 개선강화하기 위한 몇가지 과업” (당사상사업부문 일군회의에서 한 담화, 1973년 6월 13일). 『김일성 저작집』 제28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4.

- 김정일. “반당반혁명분자들의 사상여독을 뿌리빼고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울데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일군들과 한 담화 1967년 6월 15일). 『김정일 선집』 제1권. 1992.
- \_\_\_\_\_. “작가, 예술인들 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울데 대하여” (당사상사업부문 및 문학예술부문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67년 7월 3일). 『김정일 선집』 제1권. 1992.
- \_\_\_\_\_. “당생활을 강화하여 간부들을 철저히 혁명화하자”(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일군들과 한 담화 1970년 12월 3일). 『김정일 선집』 제2권. 조선로동당출판사, 1993.
- \_\_\_\_\_. “주체사상에 대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70돛기념 전국주체사상토론회에 보낸 론문 1982년 3월 31일). 『김정일 선집』 제7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 \_\_\_\_\_.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간부들을 철저히 혁명화할 데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4년 5월 24일). 『김정일 선집』 제13권.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 『맑스-레닌주의학설』. 최길성 편. 『사회과학강의: 맑스-레닌주의 학설』(북한문헌연구자료 5). 평양: 문화사, 1965. 사회과학출판사 편. 「주체사상의 철학적 원리」(주체사상총서 1). 서울: 백산서당, 1989.
- \_\_\_\_\_. 「주체사상의 사회역사원리」(주체사상총서 2). 서울: 백산서당, 1989.

- \_\_\_\_\_. 「주체사상의 지도적 원칙」(주체사상총서 3). 서울: 백산서당, 1989.
- \_\_\_\_\_.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이론」(주체사상총서 4). 서울: 백산서당, 1989.
- \_\_\_\_\_. 「사회주의,공산주의건설이론」(주체사상총서 5). 서울: 태백, 1989.
- \_\_\_\_\_. 「인간개조리론」(주체사상총서 6).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 \_\_\_\_\_. 「사회주의경제건설이론」(주체사상총서 7). 서울: 태백, 1989.
- \_\_\_\_\_. 「사회주의문화건설이론」(주체사상총서 8). 서울: 조국, 1989.
- \_\_\_\_\_. 「영도체계」(주체사상총서 9). 서울: 지평, 1989.
- \_\_\_\_\_. 「영도예술」(주체사상총서 10). 서울: 지평, 1989.
- 조근원. “새날을 위한 애국렬사 가족들의 첫봉화.” 『농업협동화운동의 승리 (1)』,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당력사연구소. 『김정일동지락전』.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9.
- 최길성. 「사회과학강의: 맑스-레닌주의 학설」(북한문헌연구자료 5). 평양: 문화사, 1965.
- 한병희. “사상사업을 앞세우는 것은 당정책관철의 기본.” 『근로자』, 1973년 10호.

북한의 맑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 비교연구 :  
체제형성에 미친 영향과 개혁·개방의 논리를 중심으로

인쇄/2002년 12월 28일

발행/2002년 12월 31일

발행처/통일연구원

발행인/서병철

편집인/북한사회·인권연구센터

등록/제2-2361호(97. 4. 23)

(142-076)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전화(대표)900-4300 (직통)901-2528 팩시밀리 901-2546

© 통일연구원, 2002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정부간행물판매센터

매장 : 734-6818 · 사무실 : 394-0337

---

ISBN 89-8479-143-1

가격 8,500원